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6월 6일(음력 4월 21일) 수요일 (주간) 제 631 호

"전통사찰 중첩규제 해결책 필요"

조계종·정각회, 11일 '불교규제 법령 개정 공청회' 개최

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6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영호 의원(열린우리당)과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이 1 · 2부 사회를 맡으며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가 '전통문화 계승의 의무와 국가의 역할', 박희승 조계종 총무원 기획차장이 '개발제한 구역 지정에 대한 전통사찰의 피해 현황과 과제', 정태용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장이 '외국의 그린벨트 제도'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한편 정종복 의원(한나라당)은 개발제한 구역 내에 위치한 전통사찰 증 · 개축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 24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전통사찰 주지스님이 관련법에 따라 시 · 도시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내지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담고 있다.

정종복 의원은 "현행 전통사찰에 대한 정부정책은 이중삼중의 규제정책만 있었지, 민족의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올바른 보존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서울 강남의 대표적 사찰인 봉은사. 등록된 신도만 20만 명이고, 하루 사찰을 방문하는 신도만 1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신도 1000명 이상 법회를 볼 수 있는 신행공간이 없다. 가장 큰 법왕루조차 최대 500여명 밖에 수용할 수 없다. 특히 하루 평균 300명이 넘게 외국인이 방문하지만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법 등의 규제로 신도회 건물 등 총 19개소 약 520평이 불법으로 낙인찍혔다. 벌금도 2500만원 물었다. 관할관청은 봉은사를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했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관리 지원을 한 적 없다. 도시공원법으로 규제하면서 사유지라는 이유를 들어 관리하지 않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하루 300명 이상 찾는 외국인들을 위한 서울 봉은사 외국인 안내소도 중첩 규제 때문에 가건물로 지어져 있다.

#.국제선원으로 유명한 서울 강북의 화계사. 푸른 눈의 납자들이 뜨거운 구도열을 토해내고 있다. 불법(佛法)을 찾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온 그들이 불법(不法)건물에서 용맹정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때문이다. 화계사는 1970년대에 연면적 183평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았다. 3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화계사는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대적광전 314평, 보화루 외 90평 등 총 404평이 시대에 맞지 않는 각종 중첩 규제로 묶여있는 것이다. 강제이행금 5억원, 변상금 1억5000만원도 물어야 한다.

전통사찰들이 각종 중첩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 은평구 진관사, 종로구 승가사, 서초구 대성사, 고양시 흥국사 등 주로 도심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 사찰의 건축제한을 규제하고 있는 법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전통사찰보존법 등 10여 가지.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 국회 정각회는 '불교 규제



마애불이 새겨진 암석의 표면은 땅에 파묻힌 상태다.

통일신라 시대 추정 마애불 발견

경주 남산 열암곡 인근서… 610cm 높이 암석에 조각

'야외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성보(聖寶)를 품에 안고 있는 경주 남산에서 통일신라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마애불상이 발견됐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는 열암곡 인근의 발굴조사를 진행하던 중, 5월 22일 인위적인 조각이 새겨진 암석 하나를 발견했다. 높이 610cm에 무게만도 70여 톤에 달하는 암석은 엎어진 채였고 한 면에 돋을새김으로 마애불이 조각돼 있었다.

5월 31일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살펴본 마애불은 흙을 파낸 암석의 남쪽 면으로 대좌와 왼쪽 다리, 가슴, 어깨, 손의 일부와 U자형의 옷주름들을 드러냈다.

현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마애불의 제작 연대를 9세기로 추정하고 있으나 땅에 파묻힌 불상의 머리 부분의 조사 이후 정확한 시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병목 소장은 "1천년 이상을 땅속에 묻혀 있어 풍화의 영향을 받지 않아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말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하나의 독립된 바위에 새겨진 불상 중 이렇게 큰 것은 처음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제는 엎어진 마애불을 세우는 일. 무게가 70톤에 달하는 데다 마애불이 중장비의 접근이 어려운 산비탈에 있고, 헬기를 동원하기도 쉽지 않은 여건이다. 유 청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우 교수(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는 "이번 마애불의 발견으로 대형 마애불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주=하성미 기자**

하안거 결제 법어 ▶4면

I Love Buddha / 실천하는 수행

용정운(www.zentoon.com)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주)에이치비엠씨)

선무도
선체조/선요가/선호흡/선기공/선무술
선무도 전국지원
·경주 총본원 골굴사 및 협회 054)744-1689, 054)742-1605 www.sunmudo.com
·서울 : 종로 02)763-2980
서초 02)581-6521 방배 02)599-5554
송파 02)3431-4889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02)2260-3727
·인천 032)541-6301 일산 031)924-5655
·안산 031)475-2600 청주 043)285-1732
·대구 053)525-0718 포항 054)275-6069
·울산 052)276-6271 양산 055)382-5074
·부산 :
보림 051)524-1600 정등 051)464-1380
금정 051)515-8323 서면 051)818-0166
국외지원
·U.S.A L.A 213-487-5377
·Canada Toronto 941-656-9642
·Austria Salzburg 06-215-5394
·France Toulouse 05-61-08-1010
(사)세계선무도협회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인물經세상鏡

10년 묵은 짐 벗은 Y보살

부처님오신날, Y보살은 큰 짐을 벗었다. 10년 동안 가슴에 묵직하게 얹혀있던 짐을 내려놓으니 극락이 따로 없다.

Y보살은 10년 전 대구의 한 사찰에서 조직된 관음회 회장이었다. 회원이 많지는 않지만 불심으로 뭉쳐진 관음회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즐거운 단체였다. 회원들끼리 서로 신행을 독려하고 사찰 일에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임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회가 해체되고 말았다. 관음회가 해체되고 나니 형제 같던 도반들과도 거리가 생겼다. "인연이 여기까지라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그런데 회장을 맡았던 Y보살에게는 고민이 생겼다. 회비정산을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회를 재건하고 싶은 생각과 이런저런 사정이 겹치면서 피일차일 하게 됐다. 회원들을 한 자리에 모으거나 일괄적으로 공지할 수 있는 방법도 막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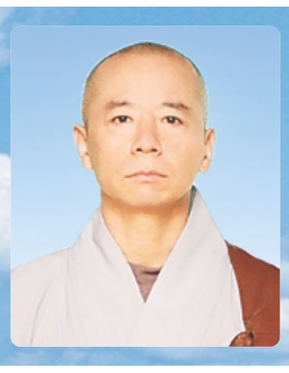
가슴에 응어리처럼 담겨진 회비 95만원. Y보살은 이 돈을 가슴에 묻고 10년을 살았다. 더러는 잊혀지고 더러는 생각나기를 거듭하면서… 그래서 늘 불편했고 죄책감마저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불기255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Y보살은 결심했다. 이제 관음회가 다시 결성될 가능성도 없고 옛 도반들을 일일이 만날 수도 없는 일. 당시에 남았던 회비에 자신의 '죄값'을 얹어 좋은 일에 쓰기로 했다.

Y보살은 현대불교신문이 조계종 포교원과 공동주최 하는 '새싹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하고 종립학교에 현대불교 보내기 후원금으로 200만원을 내놓았다. 불기2551년 부처님오신날은 Y보살이10년 묵은 짐을 벗은 날이 됐다.

임연태 기자

최제의 신간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법어집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대자유인의 삶을 가리켜 보이는 선 법문집의 백미"
서옹대종사의 법제자 제산종성 장실의 법맥을 살려 한국 조계선종의 임제가풍을 정통으로 계승한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사자후!


法玄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그대 안의 '옛거울'을 찾아라
번뇌의 파도가 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여(眞如)의 큰 바다를 보고
분별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의 현실에 서서
자기 본래의 옛거울을 밝히니
그 찬란한 광명에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
큰 기틀로 크게 쓰니 하늘과 땅을 토해 내고,
서강(西江)의 물을 다 들이켜니
비로자나 정상의 진법신(眞法身)이요
거리의 술집에서 쌍쌍으로 취한 아이들이라
검단산 임제선원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135-3번지 전화 031-792-8825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법현 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본 / 416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교육은 대만불교 발전의 밑거름"

조계종 교직자 연수단 대만 불교 현장 탐방
외국어·인터넷 교육 등 현대화 시스템 도입

조계종 전국 승가대학 교직자 스님들이 대만불교 현장을 탐방하기 위해 5월 26~29일 불광산사(佛光山寺)와 중태선사(中台禪寺), 법고산사(法鼓山寺)를 찾았다. 스님들은 교육 과정과 시스템 등을 둘러보며 한국 승가대학의 방향성을 점검했다.

'인간불교' 시작은 교육에서

26일 까오슝(高雄)에 도착한 60여명의 조계종 교직자 연수단은 곧바로 불광산사를 찾았다. 도감원장 훼이추안(慧轉) 스님은 "불광산사는 3대 교육체계로서 승가교육, 사회교육, 신도교육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설명을 시작했다.

현재 불광산사에는 남녀 불학원이 따로 있으며, 출재가 구분 없이 교육을 하고 있다. 불학원 신입생의 99%가 재가자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출재가에 대한 구분이 없다보니 사부대중이 모두 평등하며 또 재가자의 80~90%는 불학원 과정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출가하게 된다고 한다.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영어와 일어는 물론 인터넷 불학원도 개설돼 있다. 외국인 중에서도 불학원에 입학해 언어 과정을 마치고 입학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백양사 승가대학 학장 법광 스님은 "전통 강원의 틀을 극복하고 외국어 교육 등에서 현대화된 시스템을 도입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덕사 강사 원산 스님도 "교리뿐만 아니라 계율 교육에도 철저하기 때문에 불광산사에 많은 불자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국 승가교육체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세계불교교육단지를 꿈꾼다

다음날 연수단은 타이중(臺中)에 있는 중태선사를 찾았다. 중태선사에서는 현재 300여명의 학승이 불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에 100여곳의 선수행센터를 설립해 수행중심 도량의 면모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불학원은 4년제로 운영되며, 3개 도서관에 10만권이 넘는 책을 비치해 스님과 학생들은 물론 불자들도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설립해 90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기공식을 하기도 했다.

셋째날 찾은 진산(金山)의 법고산사 역시 불교교육이 우선이었다. 법고산사는 '세계불교교육단지'를 지향한다는 것을 알리기라도 하듯이 8만평 부지에 사찰 자체를 거대한 대학캠퍼스 같이 조성해 놓았다.

법고산사 수좌 훼이민(慧敏) 스님은 "법고산사는 3대 교육 목표로 대학원 교육(승가교육)과 대보편화 교육(사회교육), 대관심 교육(구호봉사 교육)을 설정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청암사 승가대학 학장 지형 스님은 "3개 사찰 모두 교육뿐만 아니라 복지와 문화 등 국민들의 마음공부를 주도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계종 전통강원 시스템이 결코 대만에 비해 열악하지는 않지만, 현대교육 부분에서는 배울 것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송광사 승가대학 강사 무애 스님도 "조계종도 학인스님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만 불교가 '교육을 중심으로 한 생활불교'에 역점을 둔 모습을 보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찜통더위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대만 불교 교육현장을 둘러본 교직자 스님들은 '전통과 현대 교육의 조화'라는 화두를 들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대만 까오슝, 타이중, 진산=공동취재단

조계종 새 재무부장 범여 스님 문화부장에 수경 스님 임명




조계종 새 재무부장에 범여(前 고창 선운사 주지 · 사진 왼쪽), 문화부장에 수경(삼선승가대 학감) 스님이 6월 1일 임명됐다.

범여 스님은 1963년 사미계, 76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총무원 사서실장, 재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80년 사미계, 91년 구족계를 수지한 수경 스님은 삼선승가대 부교수를 역임했으며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범여 스님에게 "경험이 있으니 잘할 것"이라고 말했고, 수경 스님에게 "여러 부장스님들과 의논해야 힘이 생긴다"고 조언했다.

남동우 기자



한일 불교교류회 한국과 일본측 대표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日韓불교교류회 노자와 사무총장-지관 스님

불교문화교류대회 성공개최 '맞손'

제2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일한불교문화교류회 사무총장 노자와 스님(진언종 가와사키 평간사 집사장)과 일한불교교류회 이사인 오나베 스님이 5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지관 스님은 "신임 일한 사무총장 취임을 축하한다"며 "올해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는 합천 해인사에서 '대장경'을 주제로 개최되는 만큼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노자와 스님은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양국 불교 우호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금강大 신임 이사 6명 선임

천태종립 금강대학교(이사장 도용)는 5월 29일 금강대 대회의실에서 제40차 이사회를 열고, 6명의 이사와 감사를 선임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선임된 임기 5년의 새 이사는 천태종 총무부장 문덕 스님, 권무원 천태종 참의원장, 이은윤 금강신문 사장, 김영태 동국대 명예교수, 김주식 前 강경고등학교장, 이윤재 前 충남대 교수 등 6명이다.

김원우 기자

중앙전문승가강원 입학식 개최

태고종의 중진스님들의 보습(補習)을 위해 설립된 최고 지도자 과정인 중앙전문승가강원에 61명이 입학했다.

중앙전문승가강원은 5월 28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강당에서 제1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새로운 태고종으로 거듭나는데 주인이 돼 달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몽골 영부인 운덕 스님 예방

"만복사 건립불사 지원할 것"



천태종 前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5월 30일 서울 우면동 관문사에서 몽골대통령 영부인 어철멍(O. TSOLMON) 여사와 바트바야라 울란바토르 시장, 바트나상 주한몽골대사부인의 예방을 받고 천태종이 추진 중인 몽골 만복사 건립불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

어철멍 여사는 "몽골 외무부 측에 실무 담당자를 배치해 만복사 건립 및 부처님 봉안 작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운덕 스님은 "몽골 정부가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면서도 "전기와 수도 등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아 몽골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만복사는 2만5000여 평 대지에 몽골 전통 방식인 게르(Ger) 형태의 법당과 요사채로 건립될 예정이다.

또 만복사에 봉안될 불상은 몽골 최대 규모인 높이 16m의 입불상으로 현재 중국에서 조성이 완료돼 7월 중에 만덕사로 이운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내년 연등축제도 힘써달라"

지관 스님, 조계종 찾은 오세훈 시장에 도움 당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5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예방에서는 주로 연등축제와 관련해 이야기가 오갔으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지관 스님은 오세훈 시장에게 "지난 연등축제 진행에 도움을 줘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연등축제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연등축제가 진행됐던 동대문야구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짐에 따라 내년부터 장소 사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동대문야구장과 관련)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다. 지하에 역사유적이 있어 서울시만으로는 안 된다.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 등과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고민 중에 있으나 가능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올해 연등축제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연등축제는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할 좋은 기회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연등축제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지관 스님은 오 시장에게 건강팔찌를 직접 채워주며 "(동대문야구장과 관련)가능한 부분만 가능하게 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바로 잡습니다

본지 629호 A-5면 '부산불교신협 108배 철야정진기도' 기사 중 108배를 1080배로 바로잡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만 인류가 누려야 할 참사랑, 행복, 진리의 이상세계와 태상가정

당신은 당신의 본성이 꿈꾸는 이상세계를 아는가?

당신이 진실로 행복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참된 진리를 추구함에 목숨을 다해 열정을 태울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할 것이다.

- ◆ 당신이 추구하는 진리란 무엇인지 아는가?
- ◆ 생사를 초탈한 절대 공의 세계(반야의 세계)란 어떤 것인가?
- ◆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품성과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체휼하고자 하는가?
- ◆ 대자유함과 무애행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가?
- ◆ 완성된 남녀가 나눌 수 있는 천주적인 사랑이 어떠한지 아는가?
- ◆ 깨달은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가?
- ◆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얻은 후 이루어 낼 수 있는 이상세계의 모습을 아는가?

본성의 존재는 온 우주와 하나 되니, 가슴을 관통하여 불어오는 바람에서 부드러운 신성의 손길과 마주하고 맑은 물속에 손을 담그면 그대로 내 몸은 그 맑음과 하나가 된다. 청정한 하늘은 이미 나의 가슴이 되고, 사랑의 눈으로 산을 바라보면 산은 어느새 사랑의 파동을 알아채고 깊은 사모의 정으로 나에게 화답한다. 날아가는 새의 날개 짓에서 진정한 자유 함으로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나비의 자태 속에서 너울너울 함께 춤을 춘다. 바람에 살랑대는 나뭇잎의 연애에 온 몸이 싱그러워지고 죽어가는 개미를 구해주니 그 개미에게서 터져 나오는 감사의 정은 신의 사랑으로 온 몸을 휘감고 돈다. 신성의 강렬한 파동은 천지를 사랑의 환희로 넘실대게 한다. 또한 본성의 부부가 마주보고 있으면 몸에서 신비로운 기운이 일어나니 그 사랑의 기운은 서로 어울려 지극한 평화와 미묘한 향기로 피어나 신묘하기 그지없다. 사랑하는 이가 멀리 있다 하여도 사랑하는 마음은 에너지가 되어 상대에게 전해지니 그 사랑 속에 하나 되어 극락을 노닐도다. 서로를 사랑하는 몸짓은 천상의 환희 새, 봉황이 서로 어울려 춤추는 것 같으니 온천지를 환한 빛으로 물들이고 출렁이게 한다. 움직임 하나하나에 사랑의 꽃망울이 터지듯 폭발한다. 이러한 사랑의 황홀함은 오직 본성의 자리에 들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본성의 존재들이 신의 사랑 속에 서로 어울려 살 때 이루어지는 세계가 바로 이상세계요, 이러한 세계를 알고 누리기 위해 당신은 강력한 의지로 수행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진실한 깨달음과 본성의 사랑, 행복을 꿈꾸는 만수행자는 귀 기울여 들을 지어다. 그대의 꿈은 존재의 완성이 아니겠는가? 그 목적을 위해 바로 갈수 있는 길을 두고 외면한다면 그대는 참 수행자가 될 수 없으니 가슴을 열어 태상가정에서 참된 스승의 인연과 참된 형제의 인연을 반드시 찾길 원하노라.

태상가정의 존재 이유

부처님,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아시는 참다운 본성의 아버지가 여기에 계시어 모든 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참사랑의 공동체인 태상가정을 내놓으셨음이라. 태상가정은 신의 사랑으로 너와 내가 없고, 모든 종교와 사상을 초월한 오직 신의 사랑만이 중심이 되어 세상을 참행복에 들게 하고자 한다.
태상가정은 개개인의 충족되지 못한 가슴에 참아버지로 어머니로 때로는 형제와 자매의 사랑과 정으로 신성을 제 각각 그 모양을 달리하여 나타내시어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늘의 사랑으로 위로하신다. 본성의 존재가 미치시는 사랑은 너무나 큰 에너지 파동이기에 이 공간에 들어오는 모든 이는 쉽게 이 사랑에 정화되고 동화된다. 그래서 위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아파해 온 심정과 마음의 문을 열고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 결과 모든 타락과 죄악, 업보 등이 사라지고 사랑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태상가정이 만 인류, 만 영계, 만 종교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은 만 생령이 그토록 그리워 해온 진실한 신의 사랑,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을 나눌 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승의 행복이 전체의 존재목적이기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태상가정은 만 인류, 만 생명체의 심정이 안식할 수 있는 진정한 고향이자, 귀의처가 되는 것이다.

태상가정에서 뜻을 이룰 준비된 인연을 찾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품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체휼하신 어머니가 계심을 압니다. 또한 하늘과 자녀들을 위하여 환경적 기반을 준비하신 귀한 존재가 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애끓는 심정으로 제자를 길러 오신 귀한 존재가 계심을 압니다. 이 땅에 신의 사랑을 상속 받아 각기 다른 사명의 기반을 준비해 오신 깨달은 모든 이들이시여! 태상가정에서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신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당신의 열정과 뜻을 이루기 위해 흘린 눈물과 간절한 사모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 이제 만남의 한 때를 말씀하시니 준비된 태상가정과 만나 하늘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그리움을 해원하소서.

더불어 불굴의 의지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이가 있는가? 그대는 고독과 두려움, 삶에 대한 걱정으로 불행하고자 이 땅에 태어나진 않았을 것이다. 그대가 태어난 목적은 오직 하나. 그대 스스로가 신의 현신임을 알아 신의 자녀가 되고 그 분 자체가 되어 이상세계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데 있다. 진실한 신의 사랑으로 개인을 완성하여 아름다운 이상세계에서 함께 하길 원한다면 그대는 태상가정에 올지어다. 이 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지어다.

태상가정 연락처 전 화 053-954-9117 핸드폰 010-6560-9117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권 다툼 장기화

해임 前 관장측 법원 결정 무시 운영법인체 교체요구 투쟁 계속

서울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을 둘러싸고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이사장 도후)가 박동녀 前 관장과 법적분쟁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부분의 복지시설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불교계에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처리 과정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04년 개관한 강남구립역삼청소년수련관은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서울지부가 강남구로부터 수탁 받아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

갈등은 올해 3월 파라미타 법인이사회가 박동녀 前 관장을 보직해임하면서 시작됐다. 해임 사유는 재정적자가 2억여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개선 대책이 없고, 법인을 배제한 채 시설을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이다. 신임 관장에는 진정순씨가 임명됐다.



이에 대해 박씨는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3월 22일 수련관 직원들과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수련관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파라미타청소년협회를 '비도덕적·부적격 운영법인체'로 규정하고 운영법인체 교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박씨와 파라미타는 서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두 달여 간의 심리 끝에 5월 25일 "피신청인(박동녀)은 역삼청소년수련관 관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수련관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거나 신임 관장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29일 '역삼청소년수련관 모든 직원은 비도덕적 운영법인체 교체를 위한 결사투쟁을 다짐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재판결과와 부적격 법인체와의 협약해지는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하며 "강남구청 가정복지과는 약정서를 위반한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및 서울지부 봉은사와의 협약을 즉각 해지하라"고 주장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서울지부는 "박동녀 前 관장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수련관을 무단 점거하고 직원을 집회에 동원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협회는 "시설운영과 관련해 불협화음이 발생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인 재정적자를 법인에서 충당하는 등 시설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은 "위탁시설의 운영권에 대한 수탁법인과 실질 운영주체와의 갈등은 항시 잠복해 있는 불씨"라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봉축세미나 개최

"'근대불교' 개념 재정립 필요하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 지적



"근대불교라는 용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서술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반성이 이뤄져야 한다."

조성택 교수(고려대 철학과 · 사진)가 5월 31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봉축세미나에서 한국 근대불교 연구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 · 중 · 일 삼국의 근대화와 불교'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조 교수는 '한국 근대불교 연구의 과제와 전망'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근대불교'라는 용어는 단순히 시대적 배경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제 변화에 반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교를 의미한다"며 '근대불교'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대불교'란 특정한 형태의 불교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근대공간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적응 방식을 통칭해 일컫는다는 것이다.

근대불교의 흐름을 종단 중심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사상사적으로 접근할 경우 재가 신행단체나 불교 NGO의 활동 또한 '근대불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조 교수는 말한다.

때문에 조 교수는 "근대불교 연구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사실상 근대불교가 태동한 유럽과 북미 등 전 세계적인 불교사 흐름 속에서 파악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 교수는 한국 근현대 불교사의 기술(記述)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근대불교사와 조계종의 성립 과정을 하나의 연속된 역사로 기술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엄밀한 의미의 '근대불교'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볼 때 조계종은 오히려 '전통복고'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조 교수는 근대불교 연구자들이 상상력 빈곤과 타성적 연구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역사적 관점으로 근대불교를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최병헌 교수(서울대 국사학과) 역시 "한국 근대불교는 전반적인 역사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오늘날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단초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연꽃 모으니 아이템 쑥쑥



CCR社 '불심으로 대동광렙' 온라인 이벤트 인기몰이

온라인 게임업체 CCR(주)(대표 윤석호)는 자사의 SF 3D 다중접속 역할 수행게임 'RF온라인(WWW.RFonline.co.kr)'에서 진행되는 '불심으로 대동광렙' 이벤트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주일간 진행됐는데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 CCR(주)측은 6월 초까지 연장했다고 말했다.

'연꽃잎을 모아라' 이벤트는 사냥터에서 몬스터들이 떨어뜨리는 '연꽃잎' 아이템 5개를 모은 뒤 각 종족 본부에게서 염주함 아이템으로 교환하면 된다.

염주함의 낡은 염주알, 행운의 염주, 축복의 염주, 지혜의 염주 등 아이템들은 한정시간 경험치와 숙련도 획득을 강화시켜 주거나 아이템이 떨어지는 확률을 향상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현금 아이템과 함께 사용할 경우 최고 250% 이상의 경험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돼 게이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생명·평화·나눔' 실천"

불교인재개발원 청소년委, 청소년학교 개설

조계종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 청소년위원회는 '생명·평화·나눔을 위한 청소년학교'를 개설한다.

청소년학교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과 인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토대로 생명·평화·나눔의 가치를 이해하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격월 주말과 방학 기간에 '생태' '역사' 등을 주제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외 탐방도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학교는 그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이해 6월 9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제1기 청소년 생태체험교실'을 개최한다.

오전 10시 입재식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생태적 삶과 불교' 강의와 '새싹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동물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를 주제로 한 숲 체험, 소감문 작성을 진행한다.

중·고등학생 40명 선착순 모집이며 참가비 1만원. (02)735-2428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 이달 16일부터 이틀간 개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송묵)는 6월 16~17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실시되는, 각 사찰의 불교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실기를 강습하게 된다.

교육내용은 '불교학교에서 배우는 부처님이야기' '쉽고 재미있는 불교학교를 위한 댄스' '분임토의' '페이스 페인팅' '여름불교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신 찬불가와 율동 배우기' 등이다. 선착순 15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02) 738-7860.

김원우 기자

9년만에 울린 감동의 웨딩마치

부산 용호문화센터, 장애인 부부 결혼식 지원

"나도 그댈 사랑해. 그대보다 더 오래 오래. 평생 웃게 해 줄게. 우리 둘이서 같이 산다면."

5월 30일, 부산 용호문화센터에 봄꽃 같은 결혼 축가가 울려 퍼졌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는 장애인 부부를 위해 마련한 '사랑의 결혼식' 현장에서다.

이날 신랑 장양규(42)씨는 "지금처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신부 이현숙(30 · 정신지체장애 3급)씨에게 사랑을 맹세했다. 이날 결혼식에는 자녀 장수연(8)양과 세환(7)군이 화동으로 나섰다.

류진하(용호복지관 은빛강사단 서예강사)씨의 주례로 혼인서약을 마친 이들 부부는 "9년 동안 기다렸던 화촉의 순간을 맞게 돼 기쁘고 가슴 벅차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진하씨는 "둘이 하나로 힘을 합쳐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훌륭한 자녀를 키우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신랑 장양규씨와 신부 이현숙씨가 결혼 축가를 듣고 있다.

이날 결혼식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주)강산통운 채동오 대표, 수필가 조상영씨, 글로리웨딩홀 탁경순 대표 등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무료로 치러졌다.

하성미 기자

"내년부터 불교학과 전과 금지"

동국대 2008학년도 대학편제 · 정원조정안 발표

동국대(총장 오영교)가 불교학과 전과 금지를 비롯해 비인기 학과 통폐합 등을 주 내용으로 한 '2008학년도 대학 편제 및 정원조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조정안중 불교대의 개편 내용을 보면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전과 금지 △재학생 전원 장학금 수여 △기숙사 및 사찰생활 의무화 △정원 감축 △사회복지학 복수전공 △학부제 공통기초교육 등의 제도가 실시된다.

또한 △독어독문학과 15명(정원대비 50%), 북한학과 20명(정원대비 50%) 감축 등 2008학년도 입학정원 중 총 255명(서울 110명, 경주 145명) 감축 △총 90명 정원인 철학과, 윤리문화학과, 독어독문과 등을 30명으로 감축 한 뒤 '철학윤리문화학부'로 재편 △정치행정학부(정치외교학, 행정학, 북한학), 경제통상학부(경제학, 국제통상학), 사회 · 언론정보학부(사회학, 신문방송학), 생명공학부(생명과학, 식물생명공학, 환경, 환경생태공학, 의생명공학) 및 식품과학부(식품산업시스템, 식품공학)로 재편된다.

동국대는 "이번 학제 개편은 사전에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의한 뒤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국대 문과대, 사회과학대, 예술대, 법과대, 사범대, 정보산업대 등 6개 단과대학 학생 30여명은 학제개편과 관련해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22일 교내 본관 3층 교무팀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였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선리연구원 학술상 시상식 개최

이달 11일 서울프레스센터서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6월 11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제1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시상식 및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제정된 제1회 선리연구원 학술상에는 김문경(백양사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진무(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남무희(국민대 국사학과 강사)씨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과 함께 열리는 학술회의에서는 학술상 수상자의 선정 논문이 발표된다. 김진무 연구교수는 '승조(僧肇)의 비유비무(非有非無) 논증과 그 의의'를, 남무희씨는 '원측의 유식사상과 당대(唐代) 화엄종과의 영향 관계'를, 김문경 학예연구사는 '조선후기 백양사의 경제활동'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병욱 교수(고려대 철학과), 김상현 교수(동국대 사학과), 이병희 교수(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가 나선다.

(02)734-9653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김명자 무용단 자선공연 개최

6월 10일 오후 2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다채로운 춤사위와 흥겨운 대중가요가 어우러지는 '2007년 이웃사랑 자선공연'이 펼쳐진다. 이날 무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무용의 중진이자 전통예술가인 김명자 대표(김명자 전통무용단)와 그의 제자로 구성된 '김명자 전통무용단'이 준비한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김명자 대표는 매일 아침 108참회로 하루를 시작하고 수행 정진하는 자세로 전통춤을 고수하고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승무), 제97호(살풀이) 보유자인 이매방씨의 부인이기도하다.

이번 공연을 준비한 김명자 대표는 "지난 35년간 예술가로, 교육자로 살게 해 준 제2의 고향인 부산시민 모두에게 드리는 감사의 나눔 공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051)646-4480 하성미 기자

"한국 전통사찰의 美 만끽"

부산 범어사, 동아시아 선주대회 기간 맞춰 개방

부산 범어사 보제루의 오른쪽 벽면, 목우도 선화(禪畵)를 보며 외국인들이 호기심에 찬 탄성과 질문들을 쏟아낸다.

"왜 소가 흰색으로 변하나요?" "왜 마지막의 그림에는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나요?" "왜 소가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가나요?"

5월 30일 범어사(주지 대성)는 '2007 동아시아 선주(船主)대회' 기간에 맞춰 외국인 전통사찰 대회를 실시했다.

행사는 외국인들에게 사찰을 안내하고 전통다도와 발우공양 체험, 영산재 시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행사를 진행한 연수국장 종인 스님은 "동아시아 선주 대회 참석차 방한한 외국인들에게 한국 전통사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에서 온 니콜 아페이블(Nicole Afable · 46)은 "대웅전에서 들리는 기도소리와 부처님께 절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사천왕의 모습이 위엄 있고 강인해 보여 한참 바라봤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본, 중국, 필리핀, 호주 등에서 참가한 40여명의 선주들은 영산재와 다도시연 등에 큰 박수를 보냈고 스님과 차담을 나누며 짧은 사찰체험 일정을 마무리했다.

하성미 기자

영화로 '마음의 병' 고친다? 불교상담개발원 특강 마련

영화로 심리치료를 할 수 있을까?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은 6월 13일 오후 4시 조계사 교육관 2층 제4강의실에서 '영화치료'를 주제로 월례특강을 개최한다.

영화치료전문가인 김준형 불교상담개발원 이사가 강사로 나서 영화를 통한 심리치료 기법을 소개한다.

불교와 상담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비는 5천원이다.

(02)737-7378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구담사, 전차대대 팔정사 위문 텔레비전 · 초코파이 등 전달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포천 구담사 주지 지율 스님과 신도회, 회장단, 거사림회는 5월 20일 자매결연을 맺어온 8사단 전차대대 팔정사를 방문해 그동안 준비해 온 텔레비전, 선풍기, 초코파이, 과자 등을 전달했다.

이 전달품은 태아영가천도 참회기도에 동참한 신도들이 장병들을 위해 십시일반 보시한 것이다. 지율 스님은 "앞으로도 계속 군포교와 한 생명 살리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옳고 그름 떠나 '한 바퀴 더 돈 도리' 참구하길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 해인총림 방장

옳도다, 옳지 않도다

마곡보철 선사가 석장(錫杖)을 들고서 장경회휘 화상의 회상으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장경이 앉아있는 선상을 세 바퀴 돈 후에 석장을 한번 흔들고는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장경이 말했습니다.

"옳도다. 옳도다."

선사가 다시 남전보원 화상에게 가서 똑같이 스님이 앉아 있는 선상을 세 번 돌고 석장을 한번 흔들자 남전이 말했습니다.

"옳지 않도다. 옳지 않도다."

사실 장경이 옳다고 한 것도 마곡의 껍질에 빠진 것이요, 남전이 옳지 않다고 한 것도 마곡의 껍질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설두중현 선사는 옳다고 한 것과 그르다고 한 것이 모두 '틀렸다' 고 착어(着語)한 바 있습니다. 장경은 왼쪽 눈이 반근이요 남전은 오른쪽 눈이 여덟 냥 밖에 되지 않습니다. 눈썹사이에 피 묻은 칼날을 간직하고 있긴 합니다만 세치 혀 위에서 바람과 우레를 일으켰을 뿐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눈 밝은 선지식이었다면 그가 선상을 돌기 전에 먼저 삼십 방을 때려야 했습니다. 옳다 해도 옳을 것이 없고 그르다고 해도 참으로 그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빼미와 닭은 밤과 낮을 따라 공연히 갈라질 뿐입니다. 총림에 구구하게 시비가 일어날 때, 그걸 듣고서 망설이게 된다면 바로 해골 앞에서 귀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은 옳다고 하고 한 사람은 옳지 않다고 한 것을 듣고서는 분별하여 동의한다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략)

그렇다면 결제대중에게 이 산승이 묻겠습니다.

도대체 한 바퀴를 다시 돈 것은 어떤 장처(長處)가 있는 것입니까?

이번 한 철 동안 옳고 그름을 떠난 '한 바퀴 더 돈 그 도리'의 낙처(落處)를 잘 참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략)

시비의 소용돌이에 몸 던지지 말라



원담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삼세(三世)의 부처님과 모든 조사(祖師)들은 다만 마음을 밝히고 일을 끝낸 사람일 뿐이니라.

여기에는 시비도 미치지 못하고, 인연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며, 언어로도 미치지 못하니라.

고인(古人)이 이르기를 "나에게 한 마디가 있으니 생각이 끊기고 반연(攀緣)을 잊었다. 교묘한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마음으로만 전 할 수 있다" 했는데,

대중들이여! 무엇이 마음으로만 전할 수 있는 것인고?

(주장자 일타)

이것은 나무 끝에 바람이 지나가는 격이니라.

설령 한 조각 마음을 안다 해도 전할 마음조차 없는 것을 어찌하겠는가?

(중략)

대중들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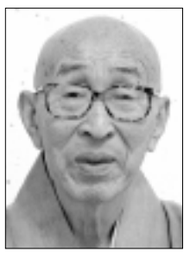
시비의 소용돌이에 몸을 던지지 말라, 앉은 자리에서 얼기설기 그물을 펴면 넝쿨에서 다시 넝쿨이 돋으리라.

자고로, 자고(鷓鴣)새는 깊은 꽃 속에서 우는 것을 알라!

부락부매상량야(不落不昧商量也)
의전당입갈등과(倚前撞入葛藤?)

떨어지지 않음과 어둡지 않음을 헤아린다면
여전히 시비 속에 빠져 들리라.

모든 모습이 본래 제자리인 것을



지종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춘심원락정무애(春心院落淨無埃)
늦은 봄날 절간은 깨끗도 하고

좌의한면심온당(坐倚閑眠心穩當)
좌선하기 낮잠 자기 꼭 알맞네

송창진일무진문(松窓盡日無塵門)
항상 방장실에는 시끄럼이 없고

법법본래안본위(法法本來安本位)
만물이 제자리에 놓여 있도다

구명구리불여한(求名求利不如閑)
명리를 찾아 허둥대도 한가함만 못하고

향상기관하족도(向上機關何足道)
향상의 기관 따위 무엇 그리 대단한가

욕식출승친절처(欲識出僧親切處)
이 몸의 얻은 불법 알고 싶다면

일령순의과백년(一領鶉衣過百年)
일생 가는 이 한 벌의 누더기 보라 하리

요즘 세간도 어지럽지만 그에 못지않게 절간도 시끄러움이 있다. (중략)

모든 모습이 본래 제자리인데 또 무엇을 찾는다는 것인가! 있는 것을 손에 쥐고 찾아 헤매는 모습은 우스운 일이 될 것이다. 오히려 마음을 어지럽히는 근본 원인인 것이다.

본래면목인 자성을 밝히는데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한가한 마음과 한가한 몸짓, 그 자체가 자성이며 자성 속에서 노닐어야 할 것이다.

계정혜 삼학을 부지런히 닦으세요



원명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상략)

오늘 결제한 총림대중 가운데는 초참자(初參者)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발심출가해 일대사(一大事)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안을 참구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대사는 무엇인가?

나고 죽는 생사대사(生死大事)인 것입니다.

생사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으니, 숨을 들여 쉬고 내쉬는 것은 소생사(小生死)요, 잠들고 잠깨는 것은 중생사(中生死)며, 나고 죽는 것은 대생사(大生死)입니다.

우리 중생은 숨 들여 쉴 때와 내쉴 때 생각이 다르고, 또한 잠드는 것도 모르고 잠깨는 것도 모르며, 태어날 때 어디서 왔는지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니, 술에 취해서 살다가 꿈속에서 죽는 '취생몽사(醉生夢死)' 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천성(千聖)의 궤도(軌道)인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을 부지런히 닦아야 합니다.

고인(古人)께서 말씀하시기를, 계(戒)는 그릇됨을 마고 악을 그치게 하여 삼악도(三惡道)를 면하게 하며, 정(定)은 진리와 하나 되어 산란함을 거두어들여 육욕(六欲)에서 벗어나게 하며, 혜(慧)는 법(法)을 알기를 공(空)으로 보아 묘하게 생사를 벗어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마음자리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계(自性戒)이고, 마음자리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정(自性定)이며, 마음자리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혜(自性慧)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대중들은 계정혜를 바탕으로 공안을 참구하면 머지않아 견성해서 생사를 해탈할 것입니다.

(하략)

달마가 일조주장자한 까닭은?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태고총림 방장

(상략)

형주(衡主) 육왕산(育王山)의 홍통선사(弘通禪師)에게 어느 납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선사(禪師)의 가풍(家風)입니까?"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온몸에 닷푼의 값어치도 없느니라"

납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사께서는 너무도 가난하십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시설(施設, 총림대중을 지도하고 이끄는 것)하시겠습니까?"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집안의 형편대로 따르리니 나로서도 별수 있겠는가?"

총림대중 여러분! 달마(達磨)가 서래(西來)하여 수휴척리(手携隻履)하고 일조주장자(一條 拄杖子)한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조고사(六朝古寺)의 조계가풍(曹溪家風)이 날로 쇠미(衰微)하니 조주(趙州)의 삼봉(三棒)이 어디를 향해 가야합니까?

태고의 법손이여, 출가납자여, 선암의 대중이여 각성 또 각성하시오. 생각해보면 막급(莫急)하고 또 막급합니다. 인무원견(人無遠見)이면 필유근우(必有近憂)입니다.(사람이 멀리 보는 눈이 없으면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근심이 생긴다)

(중략)

분별시비는 집착의 원인이며 참법(寂然)을 가로막는 마구니입니다.

총림대중 여러분은 금년 하안거 기간동안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진일보(進一步)하는 절박(切迫)한 심정으로 모두가 몸을 던져 주춧돌을 다시 세우고 기둥과 대들보를 올려 육조(六朝)의 활인가풍(活人家風)을 되살리는데 노력합시다.

(하략)

봉 축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비구니회 창립 및 임원 취임법요식

증 명 : 종 정 붕 해 대종사
총무원장 지 공 종 사

- 다 음 -

1)일 시 : 2007년 6월 12일(음 4 . 27) 화요일 오전 11시
2)장 소 : 대구 법성사(대구 동구 능성동 47-1)
3)복 장 : 스님은 가사장삼 /법사는 법사복
4)준비사항 : 당일 오전 10시 40분까지 입장완료
5)연 락 처 : 총무원 (02)998-8161,2
법성사 (053)986-8088

비구니 회 장 : 법 광
부회장 : 정 률
고 문 : 혜 신 지부장 : 보 현
총무국 : 지 현 교무국 : 자 혜
호법국 : 선 광 포교국 : 지 완
섭외국 : 천 도 사업국 : 성 수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 (http://ilbung.org)
전화 :(02)998-8161,2 서울 강북구 수유 5동 440-27/ 엄지빌딩 4층

‘활구법어’ 살림살이 든든한 밑천

학림사 오등선원 하안거 결제

이른 봄 춘설이 다녀간 가지 끝에서 눈을 뜬 잎들이 어느새 산과 들을 푸르게 물들였다. 시절인연을 따라 잎들이 피고 지듯 수행의 시계도 멈춤이 없다. 오히려 그 멈춤 없는 시간에 채찍을 가해 간절한 구도심을 불태우려는 납자와 재가불자들이 한 도량에서 하안거에 들었다.

계룡산 자락에 아늑하게 자리한 학림사 오등선원의 하안거 결제 풍경은 꽃이 피고 잎이 자라듯 조용하고 자연스러웠다. 5월 31일 오전 10시부터 보름 법회를 겸해 열린 결제법회는 정갈하고 엄숙했다. 방부를 들인 스님 10여명과 재가불자 30여명이 발소리마저 조심하며 법당으로 들어서면서 법회는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결제법회의 하이라이트는 조실 스님의 법어. 촌각을 다투어 자성을 내증하라는 노파심절로 수행자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활구법어가 한 철 살림살이의 든든한 밑천이 되는 것이다. 열어젖힌 문 밖에서는 계룡산의 푸른 정기가 들어오고 법좌에 오른 조실 대원 스님의 입에서는 각고정진으로 일대사를 해결하라는 독려의 법문이 쏟아졌다.

정오에 법회가 끝나자 대중들의 눈빛이 달랐다. 스님들은 오등선원에서 재가자들은 시민선방에서 7월 보름까지 석 달 동안 참선과 포행, 소참법문 등으로 짜여진 일과에 따라 ‘생사대사’를 해결하기 위한 정진에 들어갔다.

공주/글=임연태 기자 · 사진=고영배기자


학림사 오등선원 결제 법회.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 결제 법어

법상에 올라 묵연히 앉았다가 주장자를 세 번 치고 들어 보이시고 말씀하기를

아시겠습니까?

즉하(卽下)에 알아 얻었다고 할지라도 들여우(野狐)의 정(精)을 면치 못함이요 만약에 알아 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늘과 땅만큼 거리가 멀며, 또 알고 알지 못함을 총히 모두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은 얻고 반은 얻지 못한 것이니 설사 여기에서 한 물건도 없다고 할지라도 옳지 못함이라. 그러면 필경에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가?

조금 있다가 주장자를 들어서 한번 치고 이르시되

여인두상호일월(女人頭上壺日月)
농부확두기진풍(農夫鑊頭起塵風)이로다.

여인의 머리 위 유리 항아리의 해와 달이요
농부의 괭이 머리에는 진풍을 일으킴이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생의 가장 중대한 일을 해결하셨습니다. 중대한 일은 곧 모든 중생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6년 동안의 수행 끝에 고통을 해결하시고 49년 동안 중생에게 고통을 해결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외에 역대의 조사스님도 역시 고통을 없애고 최고의 깨달음의 열반적정락(涅槃寂靜樂)을 직설(直說)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큰 업적을 남기신 부처님과 조사스님을 한마디로 평가하신 스님이 있습니다. 그 분은 바로 덕산(德山) 스님이라는 분인데 덕산 스님이 하는 말이,

“이 속에 있어서는 부처님도 없고 법이라는 것도 없음이라. 달마는 이 늙은 비린내 나는 사람이요, 십지보살은 똥망태기를 짊어진 놈이로다. 등각(等覺)과 묘각(妙覺)은 파계한 범부요, 보리열반은 당나귀 매는 말뚝이로다. 부처님이 설법하신 팔만사천의 법문은 귀신의 몸에 난 종기 고름을 닦아낸 휴지조각이요, 사과삼현과 초심십지는 옛무덤을 지키는 귀신이니 자기를 구하여 얻을 수 없음이로다. 부처님도 또한 늙은 똥막대기니라.”

여기에 대하여 운문언(雲門偃)이라는 선사가 “부처를 찬양하고 조사를 칭찬한 것은 덕산 노인이라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장산원(蔣山元)이라는 스님이 상당(上堂)하여 “덕산 노화상이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하고, 최상승의 법을 비방했으니 바로 혀를 빼서 밭을 가는 지옥에 들어가서 나올 기약이 없을 것이다. 설사 삼세제불이라도 또한 능히 이 사람은 지옥을 면하게 하지 못함이니 도리어 저 덕산 노인을 구해낼 자가 대중 가운데 있느냐? 있은 즉은 그대 신통에 맡길 것이요 없을진댄 천봉(天峰)이 한 개의 눈도 귀도 코도 없는 놈으로 하여금 또한 저의 성명을 구해 갈 것이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주장자를 내리치고 방장실로 돌아갔다.

한 분은 덕산 스님이 불조를 칭찬했다고 했고 한 스님은 말하기를 덕산 스님이 죄를 지어서 발설지옥에 들어갔다고 했으니 한분은 칭찬을 했고 한 분은 비방을 했다고 하니 어느 것이 옳은가. 덕산스님이 불조를 칭찬한 것이냐 비방한 것이냐. 오늘 결제대중은 한번 판단해 볼지니라.

대중이 말이 없자 선사께서 말씀하시되,

위 두 선사는 덕산을 그렇게 평했지만 금일 산승은 그렇지 않노라.

퇴비상감호(堆肥上甘瓜) 천강류백월(千江流白月)
의천수골로(衣穿瘦骨露) 옥파간성면(屋破看星眼)

퇴비 위에 단 참외요
천강에 밝은 달이로다
떨어진 옷에 살이 야위니 뼈만 드러나고
집을 파하니 누워서 별을 보고 잠자도다.

과거에 어떤 수좌 둘이서 설봉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설봉스님이 수좌 둘과 마주쳐서 묻기를 “무엇인고?” 그러니까 수좌 스님 둘이 다시 설봉스님에게 “무엇인고?”하고 되물었습니다. 설봉 스님이 아무 말 없이 방장실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수좌 둘이 암두 스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니 암두 스님이 묻기를 “어디에서 왔느냐?” 수좌가 대답하기를 “설봉스님을 친견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 설봉이 무어라고 하던고?” “첫마디에 ‘무엇인고?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인고?’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설봉스님이 무어라고 하던고?” “말없이 방장실로 돌아갔습니다.”라고 말하니 암두 스님 말씀이 “아뿔싸, 그 설봉이 말후구(末後句)를 몰랐구나. 말후구를 알았다면 천하인이 그를 어찌하지 못하였을 것을.” 말후구를 이르지 못했다하니 수좌 둘이 다시 묻기를 “말후구가 무엇입니까?” 암두 스님이 “그래, 진작에 묻지 않고. 내가 말후구를 말하여 주겠노라. 말후구란 동조생(同條生)이나 부동사(不同死)라 한가지로 낳지만 한가지로 죽지는 않느니라.”라고 말하고 “다못 말후구는 이것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상방이라는 스님이 말하기를 “나는 그렇지 않다. 암두스님은 ‘한가지로 나고 한가지로 죽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나는 ‘한가지로 나고 한가지로 죽는다.’고 말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선사의 말이 서로 다르니 어떻게 판별해야 옳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판별할 수 있으면 분명한 안목이 열렸다고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는 이 일을 해 마친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을 하였지만 말후구를 제대로 이르지 못하였도다.

어떤 것이 말후구인고?

막언불법무다자(莫言佛法無多子)
불시고심인부지(不是苦心人不知)

불법이 많다고 말하지 마라.
이 괴로운 마음이 아니면 사람이 알지 못한다.
-할,

주장자를 세 번 친후에 하좌하시다.

세계불교 법왕청
초 대 법 왕

일붕 서경보 존자 열반 11주기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평화 통일 성취를 기원하시고 온 중생을 제도하신 일붕존자

귀의 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존하의 법체청안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저희들의 대스승이시며 세계불교법왕청 설립 초대법왕을 역임하시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을 창종하신 일붕 서경보존자의 열반 11주기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무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시: 불기 2551(2007)년 6월 23일
(음 5.9)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의령 봉황산 일붕사(一鵬寺)
◆ 연락 및 문의처
1)서울총무원 : 전화 (02) 998-8161,2
전송 (02) 998-8384
2)의령 일붕사 : 전화 (055) 572-7777
3)문도회 : 전화 (054)633-1138
4)각교구종무원 및 일붕관계단체
홈페이지 : http://ilbung.org

▶ 일붕 존자 열반 11주기 추모대제 봉행위원회 ◀

◎증 명 : 붕해 대종사, 무찰대종사, 혜륭대종사
◎고 문 : 각종단 종정, 대덕 큰스님, 금봉(장로원장)
도기(문도회장), 명종(장로부의장), 청송, 원각,
원경, 송은, 수암등 장로위원 ,동봉, 혜천
무공,법운, 원광, 한화란(금강선원총재),
찰스메르시에카(미국IAEUP총재),
원의범(일붕삼장대학원장),
◎지도위원장 : 혜운(일붕사 주지))
◎지 도 위 원 : 이무성,김진궐, 김덕수, 송월성, 박혜강,
장삼준,최성기, 김창락, 남강수
◎봉 행 위 원 장 : 지공(총무원장)
◎봉행부위원장 : 경원(종회부의장)
법광(전국비구니회 회장)
서병렬(문도회사무총장),
김인덕(법사단부이사장)
◎추 진 위 원 장 : 화엄(중앙종회의장)
◎추진부위원장 : 해동(선거관리위원장) 도안(종회사무처장)
최혜숙(수도사회장) 권기태(일붕사 반야회장)
정금조(일붕사 지장회장) 배맹자(일붕사 약사회장)
◎기 획 위 원 장 : 용암(호계원장)
◎집 행 위 원 장 : 원각(교육원장)
◎진 행 위 원 장 : 법성(감사원장)
◎동 원 위 원 장 : 정수(포교원장)
◎경 호 위 원 장 : 정철(세계평화불교연맹이사장)
◎각교구동원위원장 : 응천(서울교구)/대우(부산교구)/석담(대구교구)/
유정(인천교구)/용주(대전교구)/도현(울산교구)/광은(경기남부)/
도혜(경기북부)/보해(강원동부)/동청(강원서부)/정수(경남교구)/
해동(경북교구)/혜성(전남교구)/석성(전북교구)/영명(충남교구)/
경운(제주교구)/충북교구(총무원직할)
◎분 과 위 원 장 : 총무분과 - 유정(총무부장대행)/의전분과 - 지언(교무부장)/
섭외분과 - 법해 (교육부장)/경호분과 - 법령(규정부장)
봉사분과 - 영우(사회국장)

주최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 주관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일붕사 후원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이사회, 세계평화불교연맹, 전국 일붕문도회,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비구니회 , 현대불교신문사

일주문



지역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

현성정사 주지 현성 스님은 5월 28일 지역 어르신 150여 명을 초청해 국악공연과 다과 등으로 경로잔치를 베풀었다.



범어사서 분회 지도자 연수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도후 스님은 6월 3일 부산 범어사에서 부산, 울산, 경남지역 파라미타 분회간부 학생과 지도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자비의 탁발' 행사 기금 전달

부산 내원정사 주지 정련 스님은 5월 25일 부처님오신날 단기출가 동자승들이 모금한 320만원을 전국실종아동인권찾기협회에 전달했다.



탄허대종사 전국휘호대회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6월 8일 오전 11시 월정사 경내에서 탄허대종사 선서함양 전국휘호대회를 개최한다.(033)332-6661



봉원사 법당서 장학금 전달

원각회 상임법사 일운 스님은 5월 20일 신촌 봉원사 법당에서 대부고등학교 이수진 학생 외 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인터넷 저널' 공동대표 취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효림 스님은 최근 온라인매체 비평전문미디어 '인터넷 저널'의 공동대표 겸 발행인을 맡았다.



소년소녀 가장돕기 음악회

부산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은 6월 2일 혜원정사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제6회 혜원음악회를 개최하고 소년소녀 가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화엄사서 공불련 합동수계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성윤갑 회장은 6월 9~10일 구례 화엄사에서 제7차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한다.(02)739-1080



19회 서우철학상 수상자 선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형효 명예교수가 제19회 서우철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6월 8일 오후 5시 삼성화재빌딩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컬러디자인전문학교 학창 취임

불교여성개발원 이인자 前 원장(경기대 예술대학 명예교수)은 5월 24일자로 한국컬러디자인전문학교 학장에 취임했다.

"기초 다지고 새롭게 도약할 것"

창립 30돌 맞는 조계사 청년회 박희정 회장



서울 조계사 청년회가 창립 30돌을 맞았다. 사람 나이로 쳐도 그야말로 청년기다. 1977년 6월 4일 창립법회를 봉행한 뒤 일주일에 2번씩 정기법회를 진행해오며 결속력을 다져온 조계사 청년회.

창립 30주년 기념 '포교원장 혜총 스님 초청대법회 및 문화축제'가 열리기 이틀 전인 5월 31일 조계사에서 박희정(39 · 보련행 · 사진) 회장을 만났다.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인연이 돼 기쁘기도 하지만 부담감도 큽니다. 청년회가 이전보다 규모도 많이 줄었고 선후배간의 교류도 미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전의 위상을 찾았으면 합니다."

조계사 청년회는 30살을 맞으면서 수많은 회원들을 배출했다.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5000명 이상은 된다고 한다. 현재 불교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문도 있다.

초대회장은 충주 구부사 주지를 맡고 있는 혜원 스님이며, 화성 용주사 사회국장인 영산 스님도 청년회 출신이다. 정상옥 前 대한불교청년회 회장과 정우식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도 마찬가지.

조계사 청년회는 한국불교 중심인 조계사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강하다. 걸어온 길이 그것을 증명한다.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단 사태가 나 법당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스님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삭발도 했고요.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효순이 미선이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미 대사관 앞에서 3000배 릴레이 철야정진도 했습니다."

하지만 80~90년대에 비해 청년회 활동이 위축된 것도 사실이다. 비단 조계사 청년회만의 고민거리는 아니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임기가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모든 기초를 세우는 나이라는 뜻의 이립(而立). 조계사 청년회는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여전히 뛰고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글로 풀어낸 재소자들의 '눈물과 회한'

옥천 대성사 '길 누군가와 함께라면' 출판 기념 법회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가 지난해 전국 50여 교도소 및 구치소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 1회 전국 재소자 효 및 문학작품 공모전' 응모작들을 모은 책 <길 누군가와 함께라면> 출판 기념 법회가 5월 30일 청주시 용암동 매직프라자에서 열렸다.

이 책에는 영어(囹圄)의 몸이 된 뒤 느끼게 된 부모와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녹아 있는 편지, 시, 수필 등이 실려 있다.

기념 법회에는 보현사 주지 원봉 스님, 청주 불교방송 사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남동우 청주시의회 의장, 한철호 대전지방교정청장, 한용택 옥천군수,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 등 3백여명이 참석했으며 경과 보고, 변주연 충청매일 사장의 발간사, 축하 케이크 절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길 누군가와 함께라면>은 어린 시절 경계와 증오의 대상이었지만 끊임없이 친아버지 못지 않은 부정(父情)을 보여 준 새아버지에 대한 애끊는 정을 편지에 담은 대상작 '아버지, 내 아버지!'를 비롯해 최우수상작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 등 30여 편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혜철 스님은 "351편이 응모할 만큼 이번 공모전에 재소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며 "이 책을 통해 재소자들의 마음을 한번쯤 헤아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으며, 그들이 하루속히 사회로 나와 우리와 함께 동반자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5월 30일 열린 출판 기념 법회에는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한편 대성사는 7월 20일까지 '2회 전국 재소자 효 및 문학작품 공모전' 응모작을 전국의 교도(구치)소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당선작은 8월 1일 해당 교도(구치)소로 통보되며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 역시 책으로 출간될 계획이다. (043)732-5560

청주=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조철호 법사 이라크 파송 신고



이라크 아르빌 자이툰부대에 파송될 조철호 군법사(과학화훈련단 호국응봉사 주지)가 5월 30일 조계종 총무원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파송을 신고했다. 지관 스님은 이 자리에서 "자이툰 부대원들의 약 30% 정도가 불자인 것으로 안다"며 "포교 환경은 열악하지만 부대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눔회 나눔의 집 발마사지 봉사



서울 마르페스포메디 병원 족부클리닉팀 봉사단체인 나눔회는 5월 24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 할머니들에게 발마사지 봉사와 함께 기능성 신발 '닥터 포 닥터' 20여 컬레를 전달했다. 김만장 족부클리닉팀장은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며 "정기적으로 나눔의 집 봉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로아티아 외무장관 봉은사 방문



크로아티아의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외무장관 일행이 5월 25일 강남 봉은사(주지 명진)를 참배했다. 드라고 스탐북 주한 대사, 젤리코 벨라이 외교부 대변인, 베스나 클라이치 외교부 유라시아 국장 등이 수행원으로 참가했으며 대웅전과 영각, 칠성각 등 봉은사 경내를 둘러본 후 명진 스님과 차담을 나눴다.

"불교계 인재 양성에 앞장"

홍법대상 수상 윤용숙 불이회 명예회장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가피를 주신 부처님 전에 기쁨을 돌리고 싶습니다."

재단법인 불심홍법원이 6월 6일 제16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에서 수여하는 홍법대상을 받는 윤용숙 불이회 명예회장(71, 불교여성개발원 이사).

윤 회장은 "남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 공덕 닦는 것을 같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왔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교계 인재양성불사에 전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불교계에 삼보를 호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을 대신해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는 윤 회장은 "주시는 분들의 성의를 생각해 상은 고사하지 않았지만 상금 1000만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1959년 숙명여대 국문과를 졸업한 윤 회장은 인천박문여자고등학교 국어교사를 거쳐 1974년 불자 어머니 모임인 불이회를 창립했다.

불이회 초대회장을 맡아 불교발전을 위해 미개척 분야에서 힘쓰는 사람들을 발굴, 시상하고 후원해주는 불이상을 만들어 인재양성을 해왔다.

또 1992년 (재)보덕학회를 설립해 불교포교에 전념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매년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1994부터 사단법인 여성문제연구회 제5대 회장을 맡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나무아미타불! 한국불교의 전통(傳統)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자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 念佛萬日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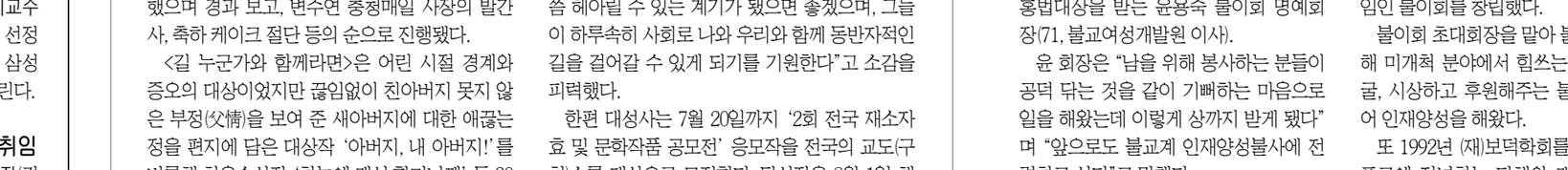
한국불교는 念佛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한국불교는 念佛로 대중화 해야 한다.
한국불교는 念佛로 중흥 해야 한다.
한국불교는 시민이 필요한 불교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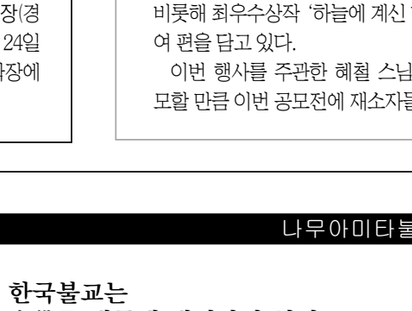
평생염불 나무아미타불

10차년도 2007년 여름성지대회는 건봉사 ·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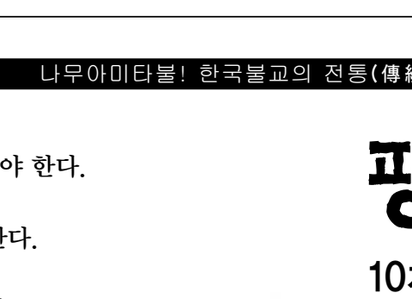
전국염불만일회에서는 1998년부터 염불 10대 성지를 찾아 금강산 건봉사, 전남 대원사, 설악산 백담사, 해남 미황사, 대구 팔공산 은해사, 제주도 법화사, 충남 덕숭산 수덕사, 경주 불국사를 순례하였고, 올해는 설악산 계곡 만해마을과 금강산 건봉사에서 개최합니다.

제1차(건봉사) 제2차(건봉사) 제3차(대원사) 제4차(백담사) 제5차(미황사) 제6차(은해사) 제7차(법화사) 제8차(수덕사) 제9차(불국사)





금강산 건봉사 등공대



백담사 만해마을 전경

◆일 시 : 2007년 7월 29일 ~ 7월 31일(2박 3일)
◆장 소 : 강원도 백담사 만해마을 · 건봉사
◆접 수 : 전화신청후 은행계좌입금 국민은행 023-21-0667-309 염불만일회 / 농 협 053-02-128104 염불만일회
◆동 참 비 : 개인직접 백담사 만해마을로 오실 분 7만원 · 서울에서 버스로 출발하실분 10만원
◆신청대상 :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문 의 : 02)732-1215~17 / FAX 732-1207

※ 평소 염불수행을 원하는 신규회원 - 가입안내 : 가입비 3만원(염불수첩제공).
◎ 차량과 숙식관계로 6월 30까지 1차 마감함.
◎ 전국염불만일회 백담사 만해마을 성지대회에 동참하실분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全國念佛萬日會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번지 동산불교회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통도로 · 철탑에 1000년 역사 비경 '와르르…'

■내포문화권 중심 가야산은

예로부터 많은 문화유적을 간직한 명산 가야산은 충청남도 서북부에 돌출된 태안반도의 동쪽을 남북으로 달리면서 동쪽으로는 예당평야지와 서쪽으로는 서산 · 태안지역으로 나누는 곳에 위치한 내포문화권 중심에 있는 산이다. 그래서 가야산은 백제시대 때부터 중국과 사신왕래, 유학, 무역을 통하는 길로서 금강 하구와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장소였다.

특히 가야산은 불교와 인연이 깊다. 가야라는 말은 코끼리를 뜻하는 말이고 상왕은 코끼리의 왕으로 흰 코끼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부인의 태에 들어온 부처님의 상징이다.

가야산은 '백제의 미소'로 유명한 '서산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을 비롯해 보원사지(사적 316호) · 백암사지 등 100여개의 폐사지와 보덕사 · 개심사 · 일락사 · 문수사 · 보원사 등 현존 사찰이 있는 불교유적의 보고이다.

'백제의 미소 길' 명명식 현장

가야산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관통도로, 송전철탑, 골프장 건설로 신음하고 있다.

충청남도가 450억원의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는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남연군묘에서 시작해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보원사지에 폭 7~10m, 길이 10.059km에 이르는 '가야산 순환도로'와 '고압전선철탑' 건설계획을 잡고 있는 것.

5월 25일 가야산 남연군묘앞. 환경운동가, 지역주민, 불자 등 300여명이 가야산 오르는 산길에 '백제의 미소 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길의 숨소리와 문화유산을 보고 느끼고 지키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다.

'백제의 미소 길' 명명식에서 가야산연대 집행위원장 정범 스님(보원사 주지)은 "이 산은 차가 다니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어이없는 탁상행정으로 1000년 역사와 비경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길을 '백제의 미소 길'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산을 지키는 의미로 새로운 도로가 예정된 가야산 자락에 부부장승을 세웠다.

신랑 장승은 머리에 백제의 5층 석탑을 의미하는 관을 쓰고 '천하 대장군' 대신 '백제의 미소 길'이라는 문구가 쓰여졌다. 각시 장승은 '백제의 문화를 밝히라'는 뜻에서 족두리에 검은 해가 그려졌다.

장승을 깎은 방유석(48 · 예산군)씨는 "가야산에 순환도로가 생긴다는 말에 기막혀 장승을 만들게 됐다"며 "현재까지 밝혀진 80여 곳의 사지(寺址)에 장승을 세워 이 산이 불교 성산임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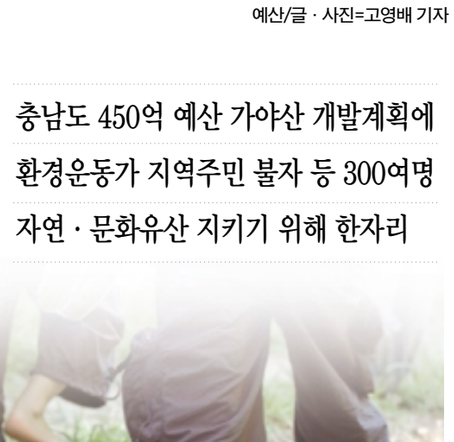
1부 행사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모두 맨발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평소에 맨발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산길을 걷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며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마가 스님은 가야산을 오르는 중에 참가자들에게 "가야산과 나와 남을 느끼기 위해 서로 손을 잡고 조용히 한발 한발 나아가라"며 말하고 "자연을 지키고 남을 위하길 원한다면 성 안내는 얼굴을 공양구로 삼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와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라"고 조언했다.

산행 중에는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한 사람은 길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동참한 모녀는 "눈이 안보여 불안하다기보다 눈이 안 보이니까 다른 감각들이 더 예민해져 바람소리 물소리 가야산의 향기를 더 많이 느끼게 돼서 좋다"며 팔짱을 끼고 호흡을 맞췄다.

가야산 개발과 개발 저지 운동에 대해 수업 시간에 알게 돼 참가했다는 강선영 학생(공주대 지역사회개발학과)은 "맨발로 가야산을 오르는 것은 힘들기도 했지만 가야산의 느낌을 알게 돼 기쁘다"며 "이 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예산/글 · 사진=고영배 기자


가야산을 지키기 위한 장승을 이운하는 참가자들.

충남도 450억 예산 가야산 개발계획에 환경운동가 지역주민 불자 등 300여명 자연 · 문화유산 지키기 위해 한자리



영원한 자유를 찾아서

명상 그 푸른 눈의 지혜



불교 비빠사나와 주요 요가 명상법을 혼자서 쉽게 수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식사상연구회 고목 지음
도서출판 밀양

〈머리글 중에서〉

'형상'과 '이름'에 집착함이여
그 거짓됨을 알지 못한채
오로지 밖으로만 구하여
탐진치는 더욱 강렬해지고
신구의(身口意) 3업은 더욱 거친 모습으로
감각과 말초(末梢)의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을 좇아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더욱 흉악해진다
참되지 못한 망령됨과
순수하지 못한 혼탁함으로
중생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게 되어
아! 의타기성(依他起性)은 실종되고
원성실성(圓成實性)은 매몰되도다.

인류는 2분법적 지식과 局所科學에 의지하여 일로 번영을 추구해 왔으나 끝내 '안'과 '밖', '정신'과 '물질' 양면에 걸쳐 共滅的 재앙을 목전에 초래하고 말았다.

〈과연 末法現代는 그 무엇으로 살길을 찾을 것인가?〉

– 慧眼을 열어주는 책들 –

■ 新 유식학 (보정판)
'마음'에 관한 모든 것, 그 신비하고 복잡한 마음의 세계를 완벽하게 파헤친다.
₩ 12,000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아가는 철학적 사유와 禪……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되는가?
₩ 14,000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 金剛經 最上乘解 근간
언어문자를 쓰되 그것을 넘어서는 최상승의 해설
末法時代 현대문명이 당면하고 있는 온갖 모순과 해악에 대한 명쾌한 해답.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구입문의
– 유명서점 · 불교서점
– 총판 : (02) 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 (055) 353-6142, 010-2356-6142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72> 성문과 보살

수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깊은 산속에서 고요히 앉아 선정에 들어 있는 수행자의 모습을 연상한다. 번잡한 세상을 떠나 숲 속에 홀로 앉아 한가롭고 고요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수행자의 생활은 생각만 해도 아름답다. 그러나 '산속에 홀로 정진하는 수행자'라는 틀을 만들어 그 안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참된 수행이라 할 수 없다. 가만히 앉아 마음을 닦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요한 마음에 집착하는 것은 중생의 또 다른 시비분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모르고 부처님의 말씀만 따라 수행하는 사람들을 성문이라 부른다. 얼핏 보면 고귀한 수행자인 듯 하나 불법을 모르기에 수행에 진전이 없다. <선가귀감> 72장에서 말한다.

聲聞 宴坐林中 被魔王捉 菩薩 遊戱世間 外魔不覓.

숲 속에 가만히 앉아 있는 성문은 마왕에게 붙잡히고, 세간에 노니는 보살은 외도나 마군이 보지를 못한다.

'연좌(宴坐)'는 끄달림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이니,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안정된 마음으로 좌선하는 것을 말한다. 성문은 세상의 시끄러움을 피하여 고요한 곳에서 홀로 앉아 선정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상의 시끄러움을 피하고 고요한 경계에만 집착하는 한, 이 집착은 중생의 또 다른 시비분별이므로 이 시비분별이야말로 중생을 번거롭게 만드는 마왕이 된다. 숲 속에서 고요히 앉아 공부하는 것을 전부로 알고 그것을 즐기고 있던 사리불에게, 유마 거사는 이것은 잘못된 수행이라고 지적하며 <유마경>에서 말한다.

"사리불이시여, 반드시 앉아 있는 것만이 끄달림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 '연좌(宴坐)'가 아닙니다. '연좌'란 무엇이겠습니까? 생사를 거듭하는 미혹의 세계라도 경계에 집착하여 몸이나 마음의 흔들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편안한 '연좌'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길을 버리지 않고서도 세속적인 범부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으로 갇히어 정적에 잠기는 것도 아니고 밖을 향하여 어지러워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삿된 견해에 흔들리지 않고 온갖 수행을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번뇌를 끊어내지 않고서도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편안한 '연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올바른 좌선을 할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도 그 공부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舍利弗 不必是坐 爲宴坐也 夫宴坐者 不於三界 現身意 是爲宴坐 不起滅定 而現諸威儀 是爲宴坐 不捨道法 而現凡夫事 是爲宴坐 心不住內 亦不在外 是爲宴坐 於諸見不動 而修行三十七道品 是爲宴坐 不斷煩惱 而入涅槃 是爲宴坐 若能如是坐者 佛所印可]"

좋고 나쁨 분별하는 것은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
모든 경계 집착 떠나 무심해져야 진정한 수행자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모든 집착을 떠나서 거침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수행자를 우리는 보살이라 부른다. 보살은 범어인 보리살타(菩提薩陀)를 줄인 말이다. 뜻으로 번역하면 '각유정(覺有情)'이라고 한다. '보리'는 '각(覺)'의 뜻이 있고 '살타'는 '유정(有情)' 곧 중생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보살은 위로는 지혜로써 무상보리(無上菩提)를 구하고 밑으로는 자비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육바라밀행(六波羅蜜行)을 실천한다. 지혜를 기르는 자리행(自利行)과 자비심을 기르는 이타행(利他行)을 함께 오롯하게 실천하여 그 힘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 불과(佛果)를 성취하니, 보살은 가만히 앉아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용맹스럽게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자신의 공부를 이루기 위해 세상의 삶과 떨어져 사는 성문과 연각의 경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고요한 산속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세간에 노닐면서도 지혜를 닦고 자비를 실천하며 수행하는 사람이다. 자신만을 위한 깨달음은 있을 수 없으며 깨달음의 성취도 바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원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깨달음의 세계는 환상도 허구도 아니다. 자리이타를 실천하는 삶 속에 내재하고 있는 현실의 향기이며 여운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聲聞 取靜爲行故 心動 心動則 鬼見也. 菩薩 性自空寂故 無迹 無迹則 外魔不見. 此合論二乘菩薩.

성문은 고요한 경계를 취하여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을 수행으로 삼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니, 마음이 움직이면 귀신이 보게 된다. 보살은 그 성품이 본디 비어서 고요하므로 그 마음에 자취가 없으니, 자취가 없다면 외도와 마군들도 볼 수 없다. 여기서는 이승과 보살을 함께 말해 놓았다.

고요한 경계를 취한다는 것은 아직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니 경계가 남아 있어 시비분별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요, 마음이 움직이면 아무리 미세한 것이라도 갈등이 없을 수 없으니 그 틈을 타 귀신에게 홀리기 쉽다. 그러나 대승 보살은 그 성품이 본디 비어서 고요하므로 움직일 마음이 없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므로 시비분별 하는 마음의 자취가 있을 수 없다. 자취가 없으니 외도와 마군들이 찾을 수 없고, 그러므로 마구니에게 홀릴 일이 없는 것이다. 모든 경계에서 집착을 떠나 무심해져야 진짜 보살이요 참된 수행자가 되는 것이다. 육조 스님이 <육조단경>에서 말한다.

"선지식들이여, 도란 모름지기 막힘없이 흘러가야 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막히게 되는가?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도는 막힘없이 흘러간다. 마음이 법에 머무르면 이를 일러 스스로 법에 묶인 것이라고 한다.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은 공부라고 주장하면, 이는 숲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공부로 알고 즐기던 사리불이 유마 거사의 호된 꾸짖음을 받는 경우와도 같을 것이다. 선지식들이여, 어떤 사람은 앉아서 마음의 고요를 보되 일어나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그것으로 공부를 삼는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몰라서 말에 집착하여 잘못된 생각을 낸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큰 잘못인줄 알아야 한다.[善知識 道須流通 何以却滯. 心不住法 道卽通流 心若住法 名爲自縛. 若言 坐不動是 只如舍利弗 宴坐林中 却被維摩詰訶 善知識 又有人教坐 看心觀靜 不動不起 從此置功. 迷人不會 便執成顚 如此者衆. 如是相教 故知大錯]"

서산 스님은 게송으로 말한다.

三月懶遊花下路 一家愁閉雨中門.

산들 바람 꽃길에서 오락가락 노니는데 어느 집은 빗속에서 문을 닫고 근심걱정.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불이문(不二門)

사찰을 찾는 이들을 가장 먼저 반기는 문은 일주문이다.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 불이문(不二門)으로 이어지는 문들은 일심에서부터 무한한 깨달음의 과정을 산문의 배치로 보여준다.

일주문에서 출발한 해탈을 추구하는 수행자가 천왕문을 지나 수미산 정상에 오르면 도리천이 기다리고 있다. 이 도리천을 지나면 해탈의 경지를 의미하는 불이문이 있다. 수미산 정상에 불이문을 세워서 번뇌와 깨달음의 세계를 구별하는 것이다.

사찰 입구에서 본당에 들어서는 마지막 문인 불이문은 진리는 둘이 아니라는 뜻에서 유래했다. 불이문을 통과해야만 진리의 세계인 불국토에 들어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한다. 불이의 뜻을 알게 되면 해탈할 수 있으므로 해탈문(解脫門)이라고도 한다.

불이문은 둘이 아닌 진리로서 모든 번뇌를 벗어나 해탈을 이루어 부처가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불이(不二)란 둘이 아닌 경지, 즉 나와 네가 둘이 아니요, 생사가 둘이 아니요, 생사와 열반, 번뇌와 보리, 세간과 출세간, 선과 악, 색과 공 등 상대적인 것들이 둘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불교의 중도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불이문을 들어서면 불자는 해탈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다. 불자라면 사찰을 찾을 때마다 일주문에서 발심해 불이문에 이르러 깨닫겠다는 발원을 가져보자.

강지연 기자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14>



침묵

상담(相談)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서로 이야기 한다'는 뜻이다. 즉 '대화'가 상담의 유일한 도구며 수단이다. 그런데 상담 장면에 침묵도 있다. 대화를 전제로 하는 상담에 침묵이라니, 언뜻 보아서는 아이러니컬하다. 그러나 실제 상담에서 침묵은 달변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침묵은 상담자와 내담자 중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상담자는 질문과 반영, 명료화 등의 반응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기 생각과 감정, 행동 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담자가 말을 멈출 때마다 즉각 언어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적절한 침묵을 지킴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이 한 표현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고, 통찰에 이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준다. 따라서 상담자가 의도적으로 조율하는 침묵은 상담이 잘 진전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특별한 대화기법의 하나다.

부처님은 대답할 가치 없는 질문에는 침묵 일관
의문이 얼마나 무익한지 일깨우고 연기법칙 설

내담자가 침묵을 지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상담 초기에 일어나는 침묵은 대개 상담 관계에 대해 두렵게 느끼거나 부정적일 때 일어난다. 또한 상담자에게 적대감을 갖거나 저항 때문에 침묵하기도 한다. 내담자가 할 말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침묵이 일어난다. 어떤 때는 내담자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싶지만 적절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 침묵한다.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어떤 확인을 바라거나 해석을 해주길 원해서 침묵하기도 한다. 때로 내담자 스스로 한 얘기에 대해 생각하느라 침묵하기도 하고, 이전에 표현했던 감정 상태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마음을 추스르느라 말이 없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내담자의 침묵은 다양하므로 각 경우에 따라 침묵을 깨는 게 좋을지 지속시키는 게 좋을지, 상담자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도 현대의 상담자처럼 의도적인 침묵을 지키기도 하였다. 이를 불교에서는 사치기(捨置記) 또는 무기(無記)라고 한다. 초기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궁극적 실체는 무엇이며, 인간 존재의 근원과 종말은 어떠한가?" 또는 "세계는 영원한가, 무상한가? 유한한가, 무한한가? 영혼과 육체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같은 질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때로는 그러한 의문이 얼마나 무익한가를 일깨워 주고 연기(緣起)의 법칙을 설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기도 했다. 부처님께서 우주의 근원 또는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러한 의문에 매달리는 것이 인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까닭이었다. 또한 그에 대해 답하면 오히려 잘못된 견해나 의혹이 점점 더 커지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탄하 삼성선사 자서전
呑河三省禪師 自敍傳

53일간의 단식참회로 양심이 곧 불성임을 깨닫지만
몸은 불구가 된 삼성스님의
초인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이야기.

모든 위선과 구습에 거침없는 사자후를 하여 괴각승으로 불렸던
한 선사의 파란만장했던 삶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된다.
삶과 수행의 생생한 현장 기록인 **만행일기**와 **무문관 수행일기**는 수행자의
솔직한 자기 고백이자 체험담이다.

운주사 최만희 편저/신국판/304쪽/10,000원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6가 25-1 청송빌딩 3층 전화 02)926-8361 영업 02)3672-7181~5

동학사 강원 비구니 스님들이 은근슬쩍 풀어놓는 출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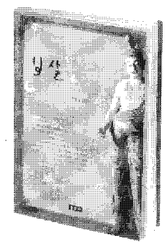
진중하면서도 발랄한 새내기 스님들의 마음자리와 출가생활에 대한 성찰

구법의 길을 향한 출가와 강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불허의 에피소드들, 수행의 동반자가 된 도반 이야기와 출가 뒤에 남겨진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 은사스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 등이 비구니 스님들 특유의 감성으로 담백하고 풋풋하게 그려져 있다.

사랑 속 이야기

동학사 편집실 | 국판 | 240쪽 | 값 9,000원

보살_유럽과 아시아 문화를 한 몸에 담다



실크로드와 중국을 건너 우리에게 온 보살의 문화여행기!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기만 한 보살상에는 어떤 역사가 투영되어 있고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일까? 보살은 어떻게 탄생했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보살상에는 어떤 민족의 어떤 문화가 영향을 끼쳤는가? 보살의 모습, 보관, 지물, 천의, 장식물 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우리나라 보살상만의 특징은 무엇인가?

최영순 지음 | 국판변형 | 184쪽 | 값 7,500원 www.buddhabook.co.kr 운주사

“망상 일으키는 그 자리가 부처와 조사의 불성입니다”

밀운 스님 (봉선사 회주)

봉선사 일주문을 들어서자 가늘게 내리던 빗줄기가 점점 거세어진다. 연잎위로 다투어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들린다. 몇 백 년의 세월을 이어 온 고목나무 위로 비가 내린다. 모든 사물이 비에 젖어 처연하게만 느껴지는 풍경이다. 밀운 스님이 주석하시는 피우정(避雨亭) 앞에서 겨우 사선으로 내리치는 빗발을 피할 수 있었다.

밀운 스님의 거처는 수행자의 거처답게 앉은뱅이책상과 다탁만이 놓여있다. 먼저 조계종 원로의원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렸다. 행초서로 쓴 액자가 하나 걸려 있기에 뜻을 알고 싶어 하니 직접 지으신 한시(漢詩)라면서 읽어주셨다.

“무량공안 불조망어(無量供案佛祖妄語) 중생망상 불조본성 (衆生妄想佛祖本性)이라. 부처와 조사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요, 중생이 일으킨 망상이 바로 부처와 조사의 본성이다는 뜻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연꽃을 든 그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고, 가섭존자가 연꽃을 보고 웃었는데 그 웃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이 왜 연꽃을 들었는지를 볼 줄 알아야 하고, 가섭존자가 왜 웃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려고 합니다. 부처다 중생이다 하지만 망상 일으키는 그 마음자리가 바로 부처와 조사의 본성입니다. 본래 우리 본성은 청정한데 오염된 한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망상인 것이라. 사람들은 우리 마음이 본래는 청정한데 번뇌 망상에 가려져 있다고 하는데,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 망상도 다 청정한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생이 망상을 일으키기 전 그것이 바로 ‘나’이고 이것이 바로 자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와 조사들의 거짓말을 알아차릴 수 있는지 여쭈었더니,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지 누가 가르쳐 주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깨달음은 문자와 언어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선가에서는 말한다. 하지만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무언가를 읽어내고 알아차리는 것에 익숙하기에 선가의 가르침이 어렵기만 하다.

“부처란 깨달았을 때 부처인 것이지, 깨닫지 않은 것을 부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 동안 설산에서 고행하신 후 견성하였기 때문에 부처인 것이지, 깨닫지 못했다면 부처라고 했을까요?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도 부처 너도 부처, 개도 부처 소도 부처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깨닫지 못했으면 다 중생인 것이지. 단 불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다 부처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지요. 초목이나 바다 속 어류에도 불성이 있으며, 그 불성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혜능 선사는 <육조단경>에서 ‘미혹하면 부처가 중생이요,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니라. 어리석으면 부처가 중생이요 지혜로우면 중생이 부처이니라. 마음이 험악하면 부처가 중생이요 마음이 평정하면 중생이 부처’라고 하였듯이 밀운 스님의 말씀 또한 이와 같은 의미이리라.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마음이 평정한지 번뇌가 들끓는지에 따라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된다는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가르침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일이다.

“사람과 동물과 어류와 초목의 불성이 왜 같은가 하면, 가령 내 몸에 들어있는 물이나 초목이 품고 있는 물이나 물고기의 몸에 있는 물은 그 성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그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자성이 불변하다는 것은 물이 지니고 있는 성질, 불이 지니고 있는 성질 등 그 자성의 경지는 변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반야심경에서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허공계에는 많은 원소로 꽉 차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체내의 원소 125개만을 분석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8만4000의 번뇌가 있다고 설한 것은 바로 우리 몸에 8만4000의 원소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원소는 불변의 경지입니다. 인연에 따라 어떤 형태로 뭉쳐진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밀운 스님은 “우리 몸의 구성 원소는 크게 해서 오온이지만 쪼개고 쪼개 보면 8만4000원소입니다. 오온(五蘊)을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이라 합니다만, 나는 지수화풍의 (地水火風意) 라고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라는 말씀과 함께 “다른 사람이 공부한 것을 별 의심 없이 검증 없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시각으로 경전이나 사물을

경전은 부처님 마음 전하는 길
불성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중생’
새로운 눈으로 사물 볼 줄 알아야

새롭게 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합니다”는 말을 덧붙였다. 불자들이 어떻게 수행하면 좋은지 말씀해주시기를 간청하자, 스님은 예전에 지었다는 시 한수로 답하였다.

“부목사시 기피우정(負木捨柴寄避雨亭) 불관풍뢰 개안수면(不關風雷開眼睡眠)이라. 부목이 번뇌 망상을 다 버리고 피우정에서 비를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우정이란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다 피우정이 되는 것이지요. 지구에 살다보니 태풍과 뇌성번개가 몰아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시기와 질투이니 그것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없이 피고 지는 한 송이 꽃에도 말을 얹고 생각을 얹어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 하는 것이 중생심인데, 스님의 가르침대로 살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엄살을 부렸다.

“힘든 가운데 버려야 버리는 것이지, 쉬운데서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지요. 복잡한 것을 놓아야 놓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하거나 미워한다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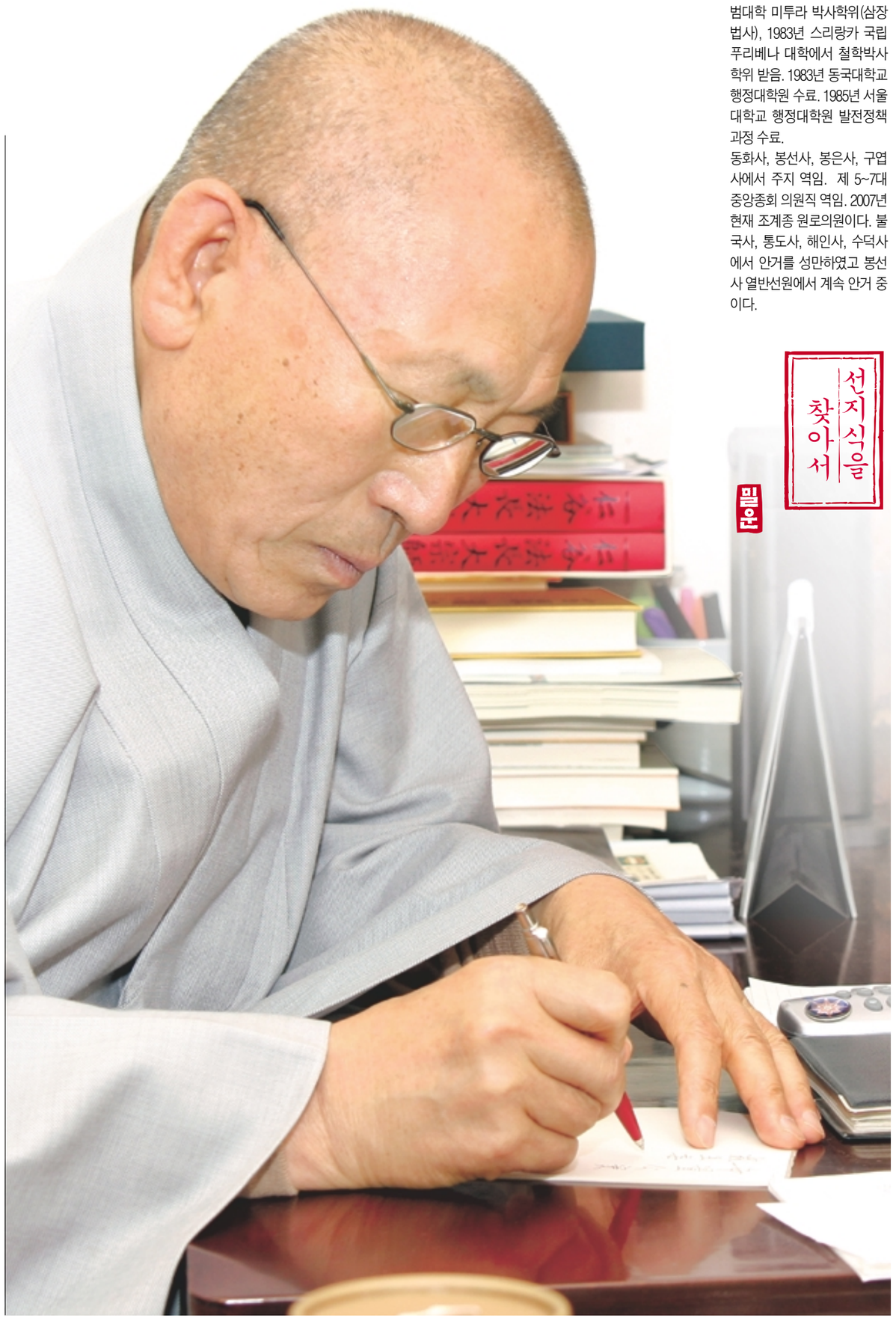
밀운 스님은 안거철이 따로 없고 봉선사 열반선원에서 365일 안거인 것이다. 올해 세수 75세인 밀운 스님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고 안광이 빛났다. 선승에게서 느낄 수 있는 면모이다.

조금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활짝 핀 보랏빛 매발톱꽃잎 위로 세차게 빗물이 떨어진다. 하지만 매발톱꽃은 세찬 빗줄기를 죽비인양 초연하게 맞고 있다. 이 비가 그치면 매발톱꽃은 견성이라도 하려나. 우산을 펴 들고 우주 공간 속에 나만의 피우정을 만들었다.

글 · 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논설위원)



밀운 스님은 1967년 비로사(毘盧寺)와 봉선사에서 교과 수료. 1982년 스리랑카 승가사범대학 미투라 박사학위(삼장법사), 1983년 스리랑카 국립 푸리베나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 받음. 1983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1985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발전정책 과정 수료.
동화사, 봉선사, 봉은사, 구엽사에서 주지 역임. 제 5~7대 중앙종회 의원직 역임. 2007년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이다. 불국사, 통도사, 해인사, 수덕사에서 안거를 성만하였고 봉선사 열반선원에서 계속 안거 중이다.





[SK '행복은 쉽다' 캠퍼인]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 한비야

한비야씨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세계 어디든 48시간이내에 달려가는
긴급구호팀장이기 때문도, 청소년들의 필독서가 될 만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이 글과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 나눔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눔과 사뭇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나눔은
뭔가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혹은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비야라는 사람이 평범한 누군가의 딸이고
언니이고 친구이듯, 나눔도 평범한 우리들 모두가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더 많이 들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행복한 나눔 이야기를...

행복은 쉽다!

OK! SK



고즈넉한 암자에 '수행 향기' 가득

영천 서운암 시민선방 참여 불자들, 경행·좌선 등 여래선 수행 삼매경

부처님오신날 며칠 뒤인 5월 26일, 팔공산 은해사 경내는 시원한 계곡물을 따라 고즈넉한 산사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은해사를 거쳐 목적지인 서운암 가는 길은 맑은 계곡과 숲이 우거져 심호흡과 산림욕(山林浴) 하기에 더없이 좋은 길이다.

특히 암자 주변의 대나무 숲은 그지없이 청량해 세속의 찌든 때를 쓸어내는 것만 같다. '상서로운 구름'이란 뜻의 서운암(瑞雲庵)에 도착하니 아담한 법당과 요사채, 산신각, 꽃과 대나무, 작은 탑이 어우러진 절 마당이 여래청정선(如來淸淨禪)의 가풍을 말없이 보여주는 듯했다.

저녁 공양을 마친 뒤 서운암에는 인근의 영천을 비롯해 김천, 구미, 포항, 대구 등 각지에서 올라온 수행자들이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절 마당에 있는 두 탑을 중심으로 돌면서 경행(經行)을 시작한다.

수행자들은 왼발을 천천히 옮겨 놓으며 '왼발, 앞으로, 내려놓음'이라고 염송하고, 또 오른발을 천천히 옮겨 놓을 때 '오른발, 앞으로, 내려놓음'이라 염송하며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변화의 점진적 현상을 알아차리며 천천히 걷는다.

이날 처음 서운암 시민선방에 입방한 불자들에게는 서운암 암주이자 대구 여래선원 원장인 법산 스님이 직접 동작 하나 하나를 시범 보여 주면서 경행시의 주의사항을 일러준다.

"첫째 평상시의 걸음걸이대로 걸어야 하고, 둘째 가장 먼저 바닥과 닿는 발바닥(보통 발뒤꿈치) 부분의 느낌에 마음을 모아 알아차려야 하고, 셋째 바닥에 닿는 부분을 가능한대로 포커스를 작게 해서 미세한 느낌까지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밀밀하게 발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정확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수행이 익숙해지면 수행자는 몸의 움직임이나 생각들이 고요하게 되고 정숙해지며, 중생심도 점차 정화된다. 경행은 마치 자동차가





서운암에서 좌선에 몰두하고 있는 불자들. 법문과 점검으로 불자들을 지도하는 법산 스님(위).

운행되면서 다음에 사용할 기동력을 충전하듯이 행주좌와 어묵동정에서 쉼 없는 수행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초 수행법이라 한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된 경행은 저녁 8시부터 2시간의 좌선으로 이어진다. 경행이 발의 움직임에 마음을 집중해서 바르게 알아차리는 수행이라면, 좌선은 자연스런 호흡에 따라 배의 일어나고 사라짐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하는 수행이다.

좌선시에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나를 형성하고 있는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 요소와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 등의 보편적인 특성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즉 배의 팽창과 수축의 운동성은 바람의 요소, 배의 유동성은 물의 요소, 배의 딱딱함이나 부드러움은 흙의 요소, 배의 뜨겁고 차가움은 불의 요소, 배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반복하는 것은 무상의 특성, 호흡에 따르는 불만족은 고의 특성, 호흡의 실체가 없음은 무아의 특성에 해당된다.

이어, 밤 10시부터 법산 스님의 법문이 이어진다. 1주일간의 수행을 점검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 뒤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방향을 잡아주는 이날 법문의 주제는 '업(業)의 특성'이었다.

"사람은 의도적으로 행동한 업의 주인이고 상속자이며, 업은 그가 태어날 모태이자 친구이며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업이 사람을 높거나 낮게, 그리고 거룩하거나 천박하게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아란 실재하지 않지만 물질과 비물질의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운동의 저변에 잠재된 업력의 흐름 때문에 생사윤회는 끝이 없습니다."

법산 스님은 '고통이나 그 조건(업)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해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의 노력과 체험을 통해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작업인 수행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특히 행주좌와 어묵동정에서 바른 노력, 마음 집중, 마음 챙김으로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되, '싫다, 좋다' 하는 분별의식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사량·분별심이 약화되면 될수록 욕망의 사슬도 느슨해지고 행동반경도 그만큼 자유스러워져, 탐진치(貪瞋痴) 삼독(三毒)에서 벗어나 무한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문이 끝나자 대중은 자리를 옮겨 지대방에서 11시부터 1시간 동안 차를 마시며 법산 스님과 자유로운 수행 문답을 통해 점검을 받는다. 물론 수행자들은 수시로 얼굴을 마주하거나 전화, 메일 등을 통해서도 스님과 1대 1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

팔순이 가까운 벽암(79 · 경북 영천) 거사로부터 20대의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스님의 편안하면서도 세심한 지도아래 여래선(如來禪)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래선이란 간화선과 조사선이 성립되기 이전, 달마 대사로부터 5조 홍인 대사까지 전해진 <능가경> 위주의 달마선(達摩禪)과 같다.

즉 달마어록에 "마음을 보는 한가지로 모든 행동을 다스린다"는 '관심일법 총섭제행(觀心一法 總攝諸行)'이란 구절의 관심법(觀心法)이라 할 수 있다. 간화(看話)니 묵조(默照)니 지관(止觀)이니 하며 구분하지만, 어떤 수행법이든 관법(觀法)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부처님 수행법이기 때문이다.

법산 스님의 여래선이 전혀 이국적이지 않은 정통 선의 향훈을 발산하고 있는 것은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제방 선원과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등지에서 온몸으로 체득한 경험이 뼛속 깊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거해 스님과 함께 1세대 여래선 수행자인 스님은 최근 <위빠사나 수행법 33일>을 펴낸 것을 비롯해 <빈손도 내려놔라><중도선><그대들도 나처럼 이 길로 오라> 등의 저서를 펴내 여래선의 대중화를 발원하고 있다.

대구 도심에서 여래선원을 오랫동안 운영해 오다 지난 3월 1일 서운암에 시민선방을 개설한 것은 산사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하는 정진의 효과와 고요한 수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선방을 개설한 지 석 달 만에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수행 붐이 일어나고 있는 서운암의 모습을 볼 때, 수행위주의 사찰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가능성을 엿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 (054)335-7926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hanmail.net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 용성 스님(3)

고암 스님, 스님의 가풍은 무엇입니까?
용성 선사, 탁,탁,탁! (주장자를 내리치며) 너의 가풍은 무엇이냐?
고암 스님, 탁,탁,탁! (주장자를 내리치다)

용성(龍城, 1864~1940) 선사가 제자인 고암(古庵, 1899~1988) 스님에게 물었다.

"조주 무자(無字)의 10종병(十種病)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만 칼날 위의 길을 갈 뿐입니다."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연꽃을 들어 보인 뜻은 무엇인가?"

"사자굴 속에 다른 짐승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육조 스님이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 하였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하늘은 높고 땅은 두텁습니다."

그리고는 고암 스님이 여쭈었다. "스님의 가풍은 무엇입니까?"

용성 선사는 주장자를 세 번 내리치며 반문하였다.

"너의 가풍은 무엇이냐?" 고암 스님도 주장자를 세 번 내리쳤다.

무자 십종병이란 '조주 무자' 화두를 참구함에 있어서 가장 주의하여야 할 병통 열 가지를 말한다. 이는 조주 무자 화두가 모든 화두의 대표격이므로, 결국 이것은 화두 참구에 있어서의 열 가지 병통을 말한 것이라 해도 무리가 없다. 그 내용은 전적(典籍)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유(有)와 무(無)의 알음알이를 짓지 말라. ②'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참으로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③도리(道理)로써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④의식으로 생각하거나 비교 · 분석하지도 말라. ⑤눈썹을 치켜올리고 눈을 깜박이는 데서(불법의 지혜작용에서) 캐내려고 하지도 말라. ⑥문자나 말에서 살아갈 방도를 찾지도 말라. ⑦마음이 편안하다고 일없는 경지에만 안주하는 무사선(無事禪)에 빠져도 안 된다. ⑧화두를 들어 일으킨 곳을 향하여 알려 하지 말라. ⑨문자로써 이끌어 증명하지 말라. ⑩어리석음을 가져다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라 등이 그것이다.

주장자 세 번 내리치는 지혜 전한 바 없이 가풍(家風) 전달

고암 스님은 이러한 무자 10종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화두 일념 속에서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늘 '또렷또렷하고 고요고요하게(惺惺寂寂)' 깨어있다고 답한다. 세존의 '염화미소(拈華微笑)' 공안에 대해서는 영산회상에는 법왕(法王)인 사자의 혈족들만 살고 있어서, 세존이 꽃을 드는 순간 곧바로 가섭이 이심전심으로 알아차린 것이라고 대답한다. 또 육조 스님의 '비풍비번(非風非幡)' 공안에 대해서는 '하늘은 높고 땅은 두텁다'는 말과 같이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가 마음(目擊道存 觸目菩提)'임을 밝히고 있다. 이어 용성 스님과 고암 스님은 사자의 후손답게 똑같이 주장자를 세 번 내리치는 지혜 작용을 통해 가풍(家風)을 전한 바 없이 전하고 있다.

용성 스님의 질문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또박또박 말대답하고 있는 고암 스님은, 그 스승의 그 제자답게 마침내 대선지식이 된다.

스님은 혜월, 만공, 용성, 한암 스님 등 대선사의 회상에서 25 하안거를 성만한 후 1938년 용성 스님으로부터 전법게를 받았다.

그 후 1967년 조계종 3대 종정에 추대됐으며 1970년 해인총림 2대 방장, 72년 4대 종정, 78년 6대종정, 80년 용성문장에 취임하여 불조(佛祖)와 스승의 은혜를 갚았다.

김성우 객원기자

수행게시판

●**봉은선원 입방자 모집**=서울 강남 봉은사 봉은선원은 매달 선방 입방자를 모집한다. 선원 개방시간은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신규 신청자는 선감 스님의 면담 후 입방여부가 결정된다. (02)3218-4827

●**염화미소 선수련회**=강화 연등국제선원은 6월 29일~7월 20일 '염화미소 선 수련회'를 연다. 영국인 출신 센넨 스님이 입승 스님으로 참여하며 하루 10시간 동안 좌선, 경행하는 정진 프로그램이다. (032)937-7033

●**위빠사나 기초과정**=한국위빠사나선원은 6월 11일~9월 19일 매주 월 · 수요일 오후 2시~5시 30분 위빠사나 기초과정을 개강한다. 이종숙 강사의 지도로 수행이론 50분, 경행 30분, 좌선60분, 면담 60분의 순서로 진행. (02)512-5258

●**고엔까 위빠사나 10일 코스**=한국위빠사나운영위원회(Dhammakorea)는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다보수련원에서 고엔까 위빠사나 명상 19차 코스(6월 10~21일), 20차 코스(6월 24일~7월 5일)를 진행한다. (018)335-9882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얼굴 대신 마음 가꾸니 행복이 절로…”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⑯ 외모보다 강한 마음의 힘

못생긴 얼굴 비관 부모님 원망
:
절에 다니며 내면 수행에 정진
:
자원봉사 활동하며 행복 찾아

못생긴 이유

“봉사가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제가 얼굴이 워낙 못났잖아요. 저 같이 모자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게 좋아요.” 장애우 센터에서 자원봉사 하는 L씨가 웃으며 말한다. L씨는 어릴 때 자신이 못생겼다는 사실을 비관하고 다른 아이들만큼만, 평균만큼만 예뻤으면 하고 바랐다. 못나게 나아주신 부모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반항적이 되었다.

그러다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면서 서서히 생각이 바뀌었다. 특히 <삼세인과경> 등 전생과 업보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다. 현실의 어떤 문제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으며 전생에 해 놓은 업보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 때부터 L씨는 ‘내가 이렇게 못나게 태어난 것은 전생에 못난 사람들을 비웃었거나 잘난 척했기 때문인 거야’라고 믿게 되었다. 무엇보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스님과 도반들을 접하면서 마음의 힘이 훨씬 중요하다고 배우게 되었다.

아름다운 마음의 힘

거울을 볼 때는 얼굴보다 마음의 아름다움에 신경쓰라는 말씀을 떠올렸다.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지자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지어졌다. 매일 기도를 하고 참회하며 다른 사람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친구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고 매사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얼굴이 너무 못나서 시집가기 어렵겠다’는 놀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실한 마음을 인정하신 아는 어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저처럼 어떤 면이 부족한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다 보니 이제 삶의 낙이 되었어요. 남편이나 아이들에게도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요.”

가장 감사한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하여 너그럽게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자리하게 된 것이다.

봉사센터의 사람들도 ‘우리 보살님, 보살님’하면서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제일 먼저 그를 찾게 되었다. 잘 생긴 봉사자들보다도 오히려 훨씬 인기 있는 자신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과연 정말 사람들이 찾는 것은 외모보다 진실한 마음이구나’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L씨는 마음의 중요성, 마음의 아름다움을 실감하고 열심히 기도정진하게 되었다. 화장을 덜하고 화장품 값도 봉사하는데 더 보태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보는 사람마다 더 예뻐졌다고 한다.

그는 은근히 신이 나고 있다고 한다. 마음을 비울수록 아름답다는 부처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사실 저, 성형수술이라도 할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이제 보니 바로 성형수술 할 것은 제 마음이었어요!”

보살의 마음 닦기

얼짱, 몸짱이라는 말이 유행하며 사회에서는 외모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하며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늙게 된다.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다. 참회하고 나누며 봉사하는 보살의 마음, 차별하지 않고 서로 믿어주고 위하는 참된 불자의 내적인 아름다움은 그 어떤 외모에도 비할 수 없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커다란 희망이다. 타고난 얼굴이나 신체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마음은 스스로의 결심과 노력에 의해서 누구나 얼마든지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 자격, 조건, 능력에 상관없이 무한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보살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보다 아름답게 변해 보면 어떨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지탱해준 인연 (하)

주보문심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이렇게 남편이 불법에 눈을 떠가면서 정진하고 있을 무렵, 저는 그 전에 중단된 불사를 다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다시 불사에 동참하게 됐는데, 그 불사는 불교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진행된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남편도 불교복지에 쓰이는 일이라 승낙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여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90% 다 된 사업이 몇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중단되고, 지루한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부처님 일을 한다는 마음에 집까지 처분해 사업을 도왔는데 그 사람들은 부처님 일을 한다는 마음이 아니었나봅니다. 그런 그들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 때부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일로 인해 폭음하는 날이 늘어갔고, 급기야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망가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선 화병이라고 했지만 병원진단결과 후두암 2기말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선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급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사회활동은 중단되고, 외로운 투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남편은 다시 불법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공부를 했기 때문일까요? 한때의 방황을 마치고 남편은 마음을 돌려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매일매일 좌선을 하며 주인공에 모든 것을 관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좌선하고 있던 중 비몽사몽간에 꽃비가 내리더니 화관을 쓴 관세음보살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나타나시고, 잠시 후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목에서 무엇을 떼면서 “아직 갈 때가 안 됐군”하면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몇 년 후에야 남편에게 들어서 알 수 있었죠. 차츰 목소리가 나오고 점점 몸이 회복되어 5년 후에는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림: 문병성

불사 중단·남편 후두암 판정 시련
경전공부에 정진하며 역경 이겨내

그러나 저는 그 사업이 중단된 후유증으로 10년이 넘는 세월을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고 있던 가게도 처분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제 신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비록 그전같이 선원에는 가지 못했지만, <금강경> 독송과 <천수경>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도 게을리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주인공에 맡겼습니다. 언젠가 이 역경에서 벗어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점심시간 후 휴식시간에는 근처에 있는 절의 법당에서 부처님께 참회하며 하루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스스로 위안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개발하던 곳을 시에서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뉴스를 들었다고 남편이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일은 생각하기도 싫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남은 여생을 불법에 귀의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불법공부도 더 많이 하고, 몸의 건강을 회복하여 인도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 첫째 소원이라고 말이죠.

지난해에는 불교방송 다보원에서 진행한 ‘100일 법문’ 법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100분 큰스님들의 훌륭한 법문을 듣고, 저 자신이 한층 더 성숙한 느낌이 듭니다. 방송으로만 듣던 큰스님들의 경전공부도 계속하고 있지요. 저는 요즘 매일 새벽 5시 불교방송의 새벽예불 기도를 시작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경전공부 시간에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경전공부를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백팔참회문을 시작으로 <법화경> <금강경> <원각경>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매일 스물 한 번씩 독송합니다. 매주 금요일 다보원에서 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49독’ 기도 정진도 빠지지 않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법당에 앉아 살아온 지난날들을 돌아보며 “내가 불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떠했을까”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에 비유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제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았습니다. 저를 불법에 눈 뜨게 한 여러 스승님들. 그분들 중에는 저에게 너무나 힘든 시련을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불교의 인연법을 잘 알기에 모두 다 제 탓으로, 그리고 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큰 시련들이 있었기에 더욱 돈독한 불자로 거듭날 수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합니다. 부처님의 무한한 가피력에 항상 감사하며 더욱더 열심히 수행하여 전생과 금생의 모든 업을 소멸하고 내생에는 좀 더 나은 삶을 받을 것을 발원하며, 오늘도 제 자신을 채찍질 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끝〉

산 앵 게 시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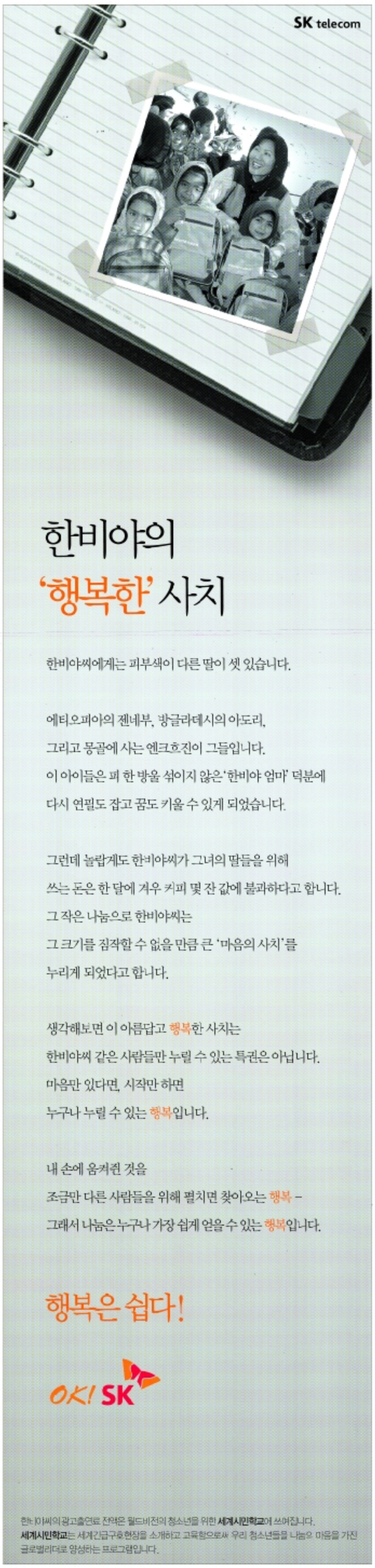
● **봉정암 사찰 순례=**서울 법장사는 6월 5~6일 설악산 봉정암으로 성지 순례를 떠난다. 오전 6시 법장사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한편 5월 31일 첫 강의를 시작한 영산불교학교 야간 경전반(금강경)은 9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강의한다. (02)971-0303

● **지광 스님 출판 사인회=**서울 능인선원 주지 지광 스님은 〈정진, 행복을 부르는 힘〉을 펴내고 6월 한달 사인회를 개최한다. 3일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시작된 사인회는 9일 오후 3시 강남 교보문고, 10일 오후 3시 종로 영풍문고, 16일 오후 3시 강남 영풍문고, 24일 오후 3시 분당 교보문고, 30일 오후 3시 부산 영광도서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02)577-5800

● **한마음선원 산악회 산행=** 안양 한마음선원 산악회가 6월 10일 경북 문경 희양산 등반에 나선다. 산악회 정회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날 등반은 10일 오전 7시 선원 앞에서 출발한다. 회비는 2만원. 등산 배낭, 방풍우의, 모자 등 개인물품을 챙겨야 한다. (016)202-8842

● **미황사 ‘참사람의 향기’=**해남 미황사가 참 나를 찾아가는 7박 8일간의 출가수행 ‘참사람의 향기’를 6월 16~23일 7박 8일 동안 진행된다. 14~65세인 일반인 또는 학생이 참가 대상. 30명이 함께 출가수행을 할 수 있다. 참선, 묵언, 오후불식, 수행문답, 수행체계 법문, 다도 등 다양한 불가의 수행 정진법을 체험할 수 있다. 동창금은 35만원. (061)535-2706

●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불교영어 강좌 개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가 6월 2일~7월 21일 불교교리 영어강좌를 개설 운영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진해오디는 불교영어강좌는 영어를 통해 불교를 바르게 배우고, 사찰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불교교리 및 사찰안내를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적이다. 과정을 이수하면 한국불교대학 불교영어 강좌 수료증을 교부하며, 조계종 국제포교사 자격고시 추천서도 발급해준다.
강의는 예불문(Homage to the Three Jewels Chanting), 〈천수경(Thousand Hands Sutra)〉, 사찰건축(Architecture of Korean Temples), 벽화(Wall Paintings), 템플스테이(Temple Stay) 등이다. (053)474-8228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부산 공덕원에서는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주 놀토를 맞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체험 내용은 문화답사, 박물관체험, 생태체험, 템플스테이, 영화관람 등 매주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했다. 참가비 전액무료. (051)625-2253

인천 용유도에서는
6월 23일 캠프나라 엄마기자단이 주관하는 '갯벌나라 체험학습'이 진행된다. 참가비 없이 진행되는 이번 행사로 갯벌체험으로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갯벌 생태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www.campnara.com)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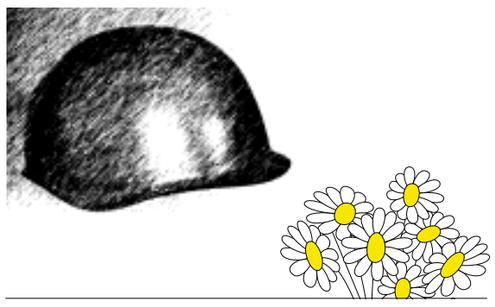
서울 북촌문화센터에서는
시민 60가족을 대상으로 쫀득 쫀쫀이 수리취떡 만들어 먹기, 차마시기 등 단오 행사를 한다. 예약은 전화(017-767-6411 남선희 강사)와 홈페이지(www.seoul.go.kr)로 가능하다.

서울 코엑스에서는
6월 14일~16일 '2007 인천국제악기전시회'가 열린다. 악기와 주변 음향기기, 소품류 등이 모두 전시되며 130개 업체의 참여가 있을 예정이다. 홈페이지(www.musickorea21.com)에서 자세한 일정과 행사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02)3432-4553

전북 무주에서는
6월 9일~17일 '2007 무주 반딧불축제'가 열린다. '반딧불 빛으로 하나 되는 세상-반딧불이의 사랑이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시작되는 이번 행사에는 각종 문화마당, 환경행사, 체험교실 등이 마련되어있다. 홈페이지(www.firefly.or.kr)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 (063) 320-2669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6월 6일~9월 26일까지 '빛의 화가 모네전'이 계속된다. 이번 전시는 20여 점에 달하는 '수련'연작과 지베르니 정원의 풍경을 그린 작품들이 전시의 중심축을 이룬다. 이들 작품 가운데 길이 3미터의 초대형 작품 두 점과 2미터 크기의 수련 작품들이 집중 전시된다. (02)2124-8800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경건 · 진지하게'

보람이(서울 망원동 • 15)는 학교에서 돌아와 인터넷에 접속했다. 학교에서 내준 숙제가 영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다. 보람이가 문자판에 친 글자는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 '호국보훈의 달' 글짓기 숙제를 내줬는데 왜 이런 것을 해야 하나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학교에서 들어봤고, 어떤 의미인지는 대략 알 것 같은데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보람이 같은 아이들에게 '호국보훈의 달'은 글짓기나 포스터처럼 귀찮은 숙제를 만들어 내는 달일 것이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된 것은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날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날은 6월 6일과 25일. 6일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애국선열 · 국군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1956년 제정됐다. 25일은 민족 분단의 이유가 된 1950년 '한국전쟁' 시작일이다.

또 하나는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기념일인 6월 10일이다.

호국보훈의 달, 조금은 진지하게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되새겨 보는 것이 좋을 때다. 어린이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다.

□ 꽃 한 송이 놓고 가요~

'보훈의 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국립서울현충원(02-815-0625)과 국립대전현충원(042-822-0026)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묘비에 꽃 한 송이라도 바치는 것은 어떨까.

국립서울현충원에 갈 때는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예약하는 편이 좋다. 15인 이상 단체일 경우, 현충선양관에서 상영하는 '우리들의 전쟁', '50년만의 편지' 등과 같은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때문이다. 또 양쪽 국립현충원의 경우 수시로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참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달부터 '하늘나라로 보내는 꽃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6월 10일까지 우체국쇼핑(mall.epost.kr)과 함께 하는 현충일 1000송이 헌화 운동을 펼치는 것. 하늘나라로 보내는 꽃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호국영령들의 묘소에 현충일 또는 고인의 기일에 맞춰 헌화해 주는 서비스이다.

□ 보훈 행사 참여해요

국가에서는 국가보훈처(www.mpva.go.kr)를 두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또 각 지역 보훈청과 보훈 민간단체에서도 지정 현충시설 탐방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서울 전쟁기념관(warmemo.co.kr)에서도 호국보훈의 달 행사가 한창이다. 6월 6일과 25일 무료개방하기로 정한 전쟁기념관에서는 함정, 항공기, 전차, 장갑차 등의 내부를 공개, 관람객들이 이들 전시물에 직접 들어가 앉아보고 만져볼 수 있게 했다.

군부대가 많이 있는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비목문화제(www.bimok.com)'를 6월 6일~10일 시행, 추모공연과 잠전용사 초청 강연회, 백일장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다. 또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는 6월 8일~14일까지 '나라사랑 태극기 선양행사'를 연다. 태극기 변천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 평소 제대로 몰랐던 우리 국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자.

□ 인터넷 공연 도서 등으로 다양하게~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이용해볼까? 민족의 아픔을 알았다면 과거와 현재의 북한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unibook.unikorea.go.kr)에서는 북한 교과서와 일반도서는 물론 영화도 열람할 수 있다. 학생증을 가지고 방문해보자.

6 · 10민주화운동이 궁금해? 6 · 10은 아직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민중 민주화운동이다. 6월항쟁인터넷기념관(www.610.or.kr)을 통해 자세한 내용과 사진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큰들문화예술센터는 6월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공연 '6월, 꽃은 피었습니다'를 전국 순회공연하고 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www.onekoreaa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 사진=김강진 객원기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 본 원에서는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여 집중(3개월 속성) 개인지도 합니다.
◈ 불교의식을 모르는 초심자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합니다. (스님포교사. 재가불자 법사교육)
◈ 교육과정
● 일상 상용반 : 도량석 조석종성
● 예 경 편 : 상단예불, 각단예불 (미타.명부.관음전 등)
● 불 공 편 :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공(관음.지장,신중청 등)
● 재 의 식 : 천도재 49재 예수재 점안의식 시다림
<바라춤>: 요잡바라, 관욕바라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법고무
<나비춤>: 사방요신, 다게 도량게 운심게
● 시식과정 :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 법사과정 : 경전을 문법과 전문적인 한문공부로 경전을 배웁니다.
◈ 개강일자 : 2007년 6월 5일
(범패반 : 화요일 오후 3시. 상용반 : 화요일 오후 5시)
◈ 강 의 일 : 매주 화(목)요일 오후 3~5시, 5~7시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및 신청서 접수
대한불교대학 범패 연구원 수림사
서울시 종로구(종로5가 3번 출구) 연건동 190-30
☎ 02)764-6060. 011-9769-8868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행화
사계절 단화 ■ 소재특징 : 초극세사, 방수원단 망사 단화
지압식 깔창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 가격 : 7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초극세사 발볼조절가능 건강슬리퍼 바이오실리콘 쪼극(메사(방수원단) 풍산동 99%
• 가격 : 5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 회색
지압깔창 풍산동 99% • 가격 : 10,000원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단위) • 색상 : 진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네이버(NAVER) 주소창에 한글 '만행화'를 치세요!!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섣달 : 음력으로 한해의 맨 마지막 날을 섣달그믐이라고 합니다. 음력 12월을 '설이 드는 달'이라고 해서 섣달이라고 하죠. 지금은 음력 1월 1일에 설을 쇠지만, 옛날에는 음력 12월 1일에 설을 쇠었다는군요. 그 달의 마지막 날을 그믐이라고 하고요.
'결혼식 날짜는 해를 넘기지 않으려고 섣달로 정했다.'
'말굽 소리와 말 울음소리는 맵고 찬 섣달 찬바람을 끊는다.' (박종화, <임진왜란>)

맞장구 : 풍물놀이를 할 때 둘이 마주서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치는 장구를 맞장구라고 합니다. 맞장구를 치려면 서로 호흡이 맞아야 틀리지 않고 잘 치겠지요. 그래서 남의 말에 동조하여 같은 말을 하거나 부추기는 것을 맞장구라고 한답니다.

우듬지 : 나무의 꼭대기 줄기를 우듬지라고 하지요.
얼핏얼핏 고개를 들어 상수리나무의 우듬지 위로 뾰조록이 모습을 내민 산정을 올려다보곤 하였다.(문순태, <타오르는 강>)

자리끼 :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잠자리의 머리맡에 준비하여 두는 물이에요.
'방 안에는 모기장이 쳐져 있었고 머리맡에는 아내가 늘 준비해 두던 자리끼도 없었다.' (김원일, 노을)
'어째 일찍 일어나서 자리끼도 내오고 요강도 치우지 못하느냐.' (한설야, <탑>)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대도시의 부패 고독…어린이 눈으로 추상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릴케作 '말테의 수기'

<말테의 수기>를 읽고 고뇌하는 정신과 예술적 응시의 세계를 그려 나간 빈틈없는 묘사문장에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글을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늘 필독서로 권하던 릴케의 <말테의 수기>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예민한 감성의 글이 매력적으로 읽히곤 하지요.

<말테의 수기>는 1902년 릴케가 '로댕 연구'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파리에 도착했는데 대도시의 암울함을 몸소 보고, 경험하면서 파리의 생활에 절망과 고독을 느끼게 되고 29세부터 쓰게 되어 6년 뒤인 1910년에 출간했습니다. 말테 라우리치 브리게란 소년을 소설의 주인공을 창조하였지만 "말테는 나의 정신적 위기에서 태어난 인물이다"라고 릴케 자신이 말했듯이 릴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29세란 젊은 나이의 말테에게 죽음에 대한 관찰이 어떠했는지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를 매우 잘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파리라는 도시가 비록 프랑스의 대도시라고 해도 늘 음과 양이 공존하는 법이죠. 파리 안에서의 빈곤함. 릴케는 주로 주변 자연풍경이나 사물 등을 통한 묘사와 심리, 정신 표현 등을 말테의 수기에서 잘 표현해내고 있지요.

쓸쓸한 아파트의 밀실에서 고독한 밤을 지새우는 시인 말테는 그의 눈에 비치고 귀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일들을 기록해 간다. 그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행려병자, 일부의 모습, 빈사의 환자를 싣고 경적을 요란하게 울리며 달리는 구급차 등등이다. 현란한 대도시의 이면에 숨은 빈곤과 부패와 고독이 집요하게 그의 눈을 사로잡는다.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이 도시로 모이는 모양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도리어 여기서는

예민한 감성의 글 매력적
글 쓰려는 친구들 필독서

모두가 죽어가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대도시의 비참과 부패, 고독과 죽음의 그림자의 응시에서, 수기는 말테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으로 돌려진다.

수기의 제2부는 그가 독서에서 얻은 많은 '사랑하는 여자들'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그들의 사랑은 고독한 인간끼리 고독을 지양하기 위한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벌써 지상의 남성들에게는 수용할 능력이 없을 만큼 깊고 큰 사랑의 과잉이요 그 비극이다. 그리고 이 수기는 '방탕아', 즉 어디까지나 타인으로부터의 사랑을 거부하고 오로지 신의 사랑만을 구하려는 남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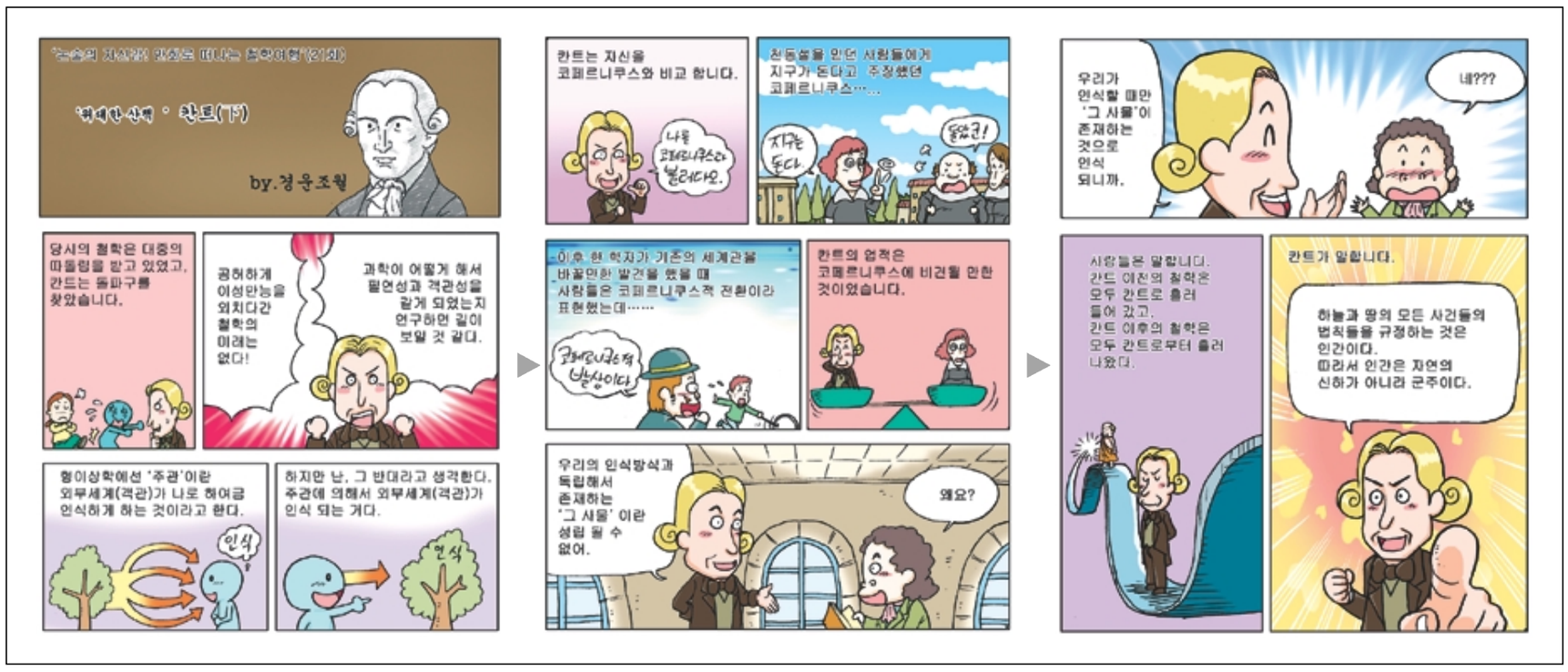
이 <말테의 수기>는 일단 소설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화려한 줄거리의 전개도 없으며 특이한 인물이나 사건의 설정도 없어요. 있는 것은 다만 보고 생각함으로써 서서히 응고하고 결실해 가는 시인의 자화상뿐 그것도 대상을 응시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묘사되어 가는 것이죠.

그는 대도시의 비참과 부패, 빈곤과 고독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말기적인 눈으로 그것을 응시하지요. 여기에서는 지시하고 응시하는 것이 그의 실존을 지탱하는 것이죠. 안일과 타성으로 둔화되고 마비돼 버린 눈에는 무의미하게 비치는 물상이나 사람들의 영위도 그 본성을 드러내지요.

말테는 일상생활에서 안주하여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어른들의 호위를 알아차리는 민감한 어린이의 눈을 자기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추상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 현상 배후에 대한 투시, 비참이나 부패의 응시에는 생의 부정적인 측면을 투철하게 응시함으로써 생의 긍정적인 측면, 즉 사랑에의 접근이 지녀져 있던 것이죠.

사랑에 대한 가능성이 낮게 깔려 있다고 해야 하겠지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랑은 일상생활 속에서 둔화된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들'의 '무상의 사랑'이라고 할 만한 초월적인 사랑이지요. 이 사랑의 성찰을 넘어선 말테의 영혼은 방탕아의 해석에서 보여주는 신으로부터의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닐까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술만 드시면 폭력적으로 변해요

저희 아빠는 술을 많이 드십니다. 문제는 술만 드시면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엄마도 저도 지쳤어요. 차라리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ID:예민한중3)

미움 키우지 말고 진정으로 아껴주세요

주정뱅이 아빠를 둔 자녀들은 아빠를 보며 맹세를 합니다. 딸이라면 "난 커서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지 않을거야"라고 하지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어찌 사나 찾아가보면 주정뱅이 남편과 사는 경우가 많답니다. 아빠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게지요. 그래서 술 안 마시는 남성을 보면 낯설고, 내가 그런 과분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용기를 잃는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정말 미워해서 그 사람과 달라지고 싶다면 '미움'으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사실 내 안의 그 모습을 싫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내 마음은 자꾸만 그 쪽으로 끌려갑니다. 이래서 업(業)이라고 하고 윤회(輪回)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놓아주고 다른 사람을 아껴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술 마시는 아빠 모습이 싫다면, 정말로 내가 아빠와 달라지고 싶다면 미움을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에 단 한 번씩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얼굴을 그려봅니다. 잘 살펴보면 지금 얼굴이 웃고 있는지 찡그리고 있는지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자신을 타일러갑니다.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사람들은 너를 참 좋아하고 나도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미웠던 아빠도 이해하고 아껴줄 수 있게 되지요. 그렇게 되어야 자기 스스로 술 안 마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서울 옥천암 중고등부 지도법사 운산 스님)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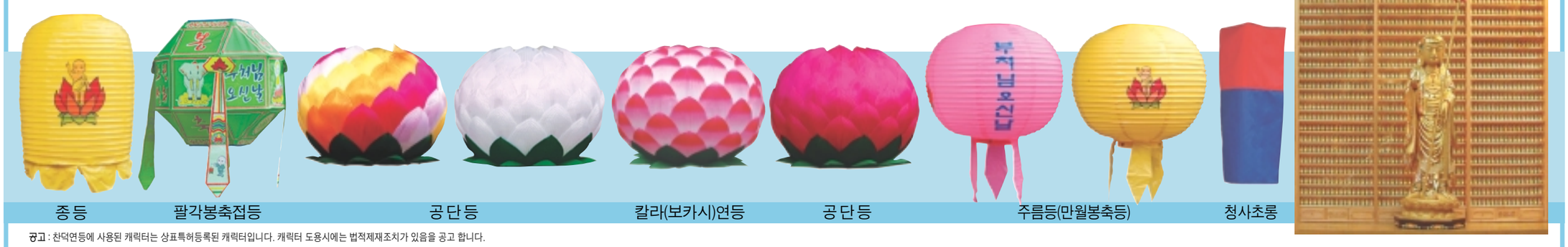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종 등 팔각봉축접등 공 단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 단 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청사초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선문답'으로 풀어보는 선사들의 삶

잣나무는 언제 부처가 되나 문윤정 지음 · 정병례 그림 | 바움 펴냄 | 1만원



뜬금없는 질문을 하거나 어이없는 대답을 할 때 "선문답 하나?"는 힐난을 받게 된다. 선문답(禪問答)이란 게 원래 그렇게 뜬금없고 어이없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선문답은 선수행을 통해 깨달은 '그 무엇'을 묻는 것이기도 하고 깨달음의 인연을 만들어 주기 위해 '그 무엇'을 던져 주는 것이기도 하다. 묻고 답하는 행위 자체가 간절한 수행이고 깨달음의 활로를 여는 모티브다. 그래서 선문답은 철저하게 살아 있는 정신의 표현이다.

중국 선불교를 풍미한 수많은 선사들의 삶도 선문답으로 장엄되었다. '어록'으로 전해지는 선사들의 수행단면들은 깨달음을 향한 열정이 시와 때를 초월해 일상 그자체로 녹아 있었음을 보여 준다.

선사들의 일상 언어, 그 선문답들의 깊이에 흠뻑 빠져드는 것은 행복한 일이 분명하다. 그러나 어록들을 읽기 위해서는 어지간한 '공부 이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쉽게 읽고 선문답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나침반'이 나왔다. 수필가 문윤정(사진)씨가 선사들의 선문답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그 고갱이를 우리 일상의 경험을 통해 이해 할 수 있도록 '결들임 말'을 단 <잣나무는 언제 부처가 되나>를 펴냈다.

간결한 선문답은 고암 정병례 화백의 전각으로 다시 묘사되어 읽고 보고 느끼는 재미를 한꺼번에 준다. '선사들의 재치'와 '선사들의 지혜'로 나뉘어 소개된 선문답들은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한 치도 벗어 날 수 없다는 엄연한 가르침을 전해 준다. 한 꼭지를 소개한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선문답

혜충 국사에게 한 사람이 물었다.
"스님께서 백애산에 계실 적에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그러자 국사께서 동자를 불러 세우고 손으로 정수리를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또렷또렷할 때엔 또렷또렷하고, 역력할 때에는 역력하게 하라. 이후로 다시는 남에게 속지 말라."

지은이의 결들임

유선방송의 수많은 채널들, 그리고 넘치는 광고들, 우리의 의식은 이러한 것에 조금씩 중독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행복의 가치가 달라야 할텐데, 자신도 모르게 획일화된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흥(永興) 스님은 누구?

1947년 경북 울진에서 태어난 스님은 21세에 망월사서 춘성 선사의 벽력같은 할(喝)에 언하대오(言下大悟)하고, 24세에 처음 자수용삼매에 들었다. 45세에 서옹 대종사로부터 전법게(傳法偈)를 받은 스님은 진천 불뢰산 토굴에서 수좌와 재가 수행자를 지도하며 보림하고 있다. 법명은 성명(性明), 법호는 후제(後濟)이다.

해와 달을 띄우고 산과 물을 펼친다 김성우 엮음 |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 3000원

선문답은 옛 선지식들이 수행자들을 깨닫게 하는 언행과 행동이다. 그 행 자체에는 깊은 진리와 지혜가 응결돼 있어 말끝에 단박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긴 여운이 남는다.

그래서 이런 선문답은 수행자의 이정표가 됨은 물론, 일반인들이 살아가는데 곧잘 좌우명으로도 사용된다.

이 책은 평생을 제방선원에서 선수행을 해온 영흥 스님이 경봉, 전강, 춘성, 혜암, 서옹, 향곡, 성수, 숭산 스님 등 근현대 30여 선지식과의 95회 법거량을 통해 불법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깨달음의 삶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영흥 스님에게 깨달음의 기연을 준 '욕쟁이 도인' 춘성 스님과 통도사 극락선원 조실 경봉 스님과의 수차례에 걸친 선문답,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서옹 대종사와 그 시자(侍者)였던 영흥 스님과의 일상 속 선문답 등은 살활(殺活)이 자재한 선기(禪機)가 물씬 느껴진다.

영흥 스님의 선문답에는 콩떡과 팥떡, 풀잎과 돌멩이, 해와 달 등 토속적인 한국형 선구가 다양하게 등장한다.

심지어는 전통 민요인 '쾌지나 칭칭나네' 등의 사설이 등장할 정도로 신명나는 문답들이 많다.

영흥 스님은 행자 시절, 취침 전 서옹 스님에게 불려갔다. 서옹 스님은 영흥 스님을 보자마자 물었다.

"요즈음 행자생활은 어떠한고?"

"집집마다 해와 달을 띄우고 쾌지나 칭칭나네입니다."

"요즈음 시자생활은 어떠한고?"

"거리마다 해와 달을 굴리며 쾌지나 칭칭나네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달픈 행자 시절이지만, 영흥 스님은 날마다 '쾌지나 칭칭나는' 좋은 날이라고 말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흥이 절로 날 정도로 '안심입명'한 수행 생활임을 토속적인 격외어로 표현한 것이다.

이 책은 현대 고승들과의 불꽃 튀는 법거량과 함께 영흥 스님의 오도(悟道) 체험 등 구도기가 1인칭 화법으로 서술돼 있다.

아울러 참선 입문자나 재가 수행자들이 선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스님의 선법문과 선시도 수록해 놓아 초심자들에게도 이해의 부담이 덜 느껴질 것 같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고대사와 현대문화에 대한 통찰



유역 제2호
솔출판사 펴냄 | 1만8천원

몽골의 드넓은 평원과 유목민의 전통을 고스란히 유지하며 살고 있는 몽골리안들의 일상. 지난해 11월 입적한 관조 스님의 사진을 통해 몽골을 만나면 가슴이 서늘해 진다.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불교 유적의 아름다움을 만날 때는 가슴이 뭉클해지고 우리나라의 솟대문화 현장을 탐방한 기사를 읽으면 삶의 근원에 대한 사색을 하게 된다.

작년 창간 이후 두 번째로 발간된 <유역> 제2호는 고대사와 현대문화의 유역들을 심층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김열규 선생(서강대 명예교수)의 권두 에세이 '웃음이 없는 사회여, 많이 웃으시오'로 문을 연 <유역> 제2호는 강우방 교수의 세계미술사와 한국 중국 중앙아시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전문가들의 혜안과 현장답사로 소개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잔잔한 일상 같은 스님의 詩語



금세 아문 상처는 더 가려워라
변윤 지음 | 조선문화사 펴냄 | 1만원

'참 억새는 찬찬한 햇빛 속 서릿바람 머리에 인대로 행객 하는 고행승처럼 자신의 심신을 비울대로 비운 줄도 몰랐다.' (억새풀 中)

시인 변윤 스님(천불선원장 주지)이 시집을 출간했다. 세 번째다. 스님의 시는 주로 산문체가 많다. 스님의 수필 같은 글 속에 토속적이고 정감 있는 시어들이 간간히 박혀 있다. 주제들도 주로 '눈 오는 날' '오월의 소묘' '적막강산' '가을비' 등 계절과 일상생활의 소회들이다. 그래서 시(詩)지만 읽기가 편하다. 마치 <법구경>을 읽는 것처럼 편안히 가슴에 와닿게 한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2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3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4	바랑 속 이야기	동학사편집실	운주사
5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6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7	염불수행입문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8	오대산 노스님의 그 다음 이야기	과경	불광
9	안거	봉문	법보신문사
10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성철	장경각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국부카르마 문의:080-999-1080
농협 177483-51-071977(예금주:천소현)

괄사요법이란?

괄사라는 것은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으로, 기구를 사용해서 시술자의 손으로 환자의 체표에 어떤 역학적, 기예적 자극을 주어서 환자의 몸속에 나타나는 부조화나 불균형을 조절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괄사로 피부에 반복해서 긁어주면 피부 아래의 조직이 자연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어 혈관과 신경세포, 임파선, 땀샘 등의 부위에 피하 출혈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 속에 있던 어혈은 열이 나면서 풀리게 되고 또 이렇게 피하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어혈은 풀리면서 사기가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멍이 심하게 들 수도 있으나 이것은 사가 빠져 나오는 것으로 며칠 지나면 사라진다. 병이 호전되어 갈수록 멍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기혈수비법중에서-



화제의 신간

저자: 남산스님
변형신국판
컬러/ 값 10,000원

괄 사 요 법



물소뿔 괄사
10cmX7cm(15,000원)
물소뿔로 제작된 괄사는 수공으로 직접 만들어 부작용이 없다.
관절염과 비만, 변비, 뱃살, 혈액순환, 당뇨병, 고혈압, 잔주름 제거에 괄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45도 각도로 긁어주면 된다.
또한 긁은 자리에 붉은 피멍이 드는 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나쁜 사가 나오는 것으로 며칠이 지나면 사라진다.
매일 30회씩 괄사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긁어주면 된다.

특별할인 행사 물소뿔 괄사 5개 구입시 1개 추가 증정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낱개) 1만원
※사찰 및 단체 다량구매시 특별할인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전화 02)2004-8219 [국민은행] 006-25-0023-989 (주)현대불교신문사

삶과 죽음을 하나로 묶는 장엄한 의식

영산재 보존회 6월 6일
'제19회 영산재 시연회 개최'

유네스코 등재위원 간부들 참여 예정
세계문화유산 등록 위한 중요한 행사

영산재보존회는 6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촌 봉원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 19회 영산재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매년 단오절(음력 5월 5일)에 시행돼 왔으나 이번에는 주한 외교사절 등을 초청해 현충일에 시연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영산재는 원래 3일동안 의식이 진행이 되지만 이날은 축약된 행사로 선보인다. 이번 시연회는 시련, 대령, 신중작법, 시식, 화청, 봉청, 식단작법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련은 영혼을 모셔오는 의식, 대령은 모셔온 영혼을 접대하고 부처님에게 나아갈 준비를 하는 의식, 관욕은 영혼이 불법을 듣기 전에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는 의식, 산중작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의식이다.

상단권공은 부처님에게 공양드리고 법문을 듣고 영산재를 올리게 된 이유를 부처님께 알리는 의식, 시식은 영혼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의식, 화청은 죽은 영혼이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의식, 봉송은 영혼을 돌려보내는 의식, 식단작법은 모든 의식을 마치고 참석한 대중이 모여 공양을 하는 의식이다.

주한 외교사절 등 초청 현충일날 시연
괘불 모시고 거령산 짓소리 이운 선봬
십대왕 이운 운수중단 특별히 재현

특히 이번 시연회에서는 88년 이후 처음으로 만월전에서 괘불을 모시고 내려와 거령산 짓소리로 이운하는 의식을 보여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또한 명부전에서 지장보살을 위시해 십대왕을 이운하는 운수중단도 특별히 재현된다. 이때 운수중단 의식에는 국립국악원의 3현6각의 능개타령이 연주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영산재 보존회 회장 환우 스님(봉원사 주지)은 "이번 행사에는 프랑스와 일본, 몽골 등 5개국에서 문화예술국 간부들이 다수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들은 모두 유네스코 등재위원들인 만큼 이번 영산재 시연은 영산재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해 중요한 행사"라고 말했다.

영산재 보존회 총재 구해 스님(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은 "영산재가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종교의식이라는 점을 내세우기 보다는 세계 어느나라 무용계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다양한 춤사위를 삽입시켜 시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행사는 그런점에서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일운 옥천범음대학 학장 스님도 "원래는 범음대 학생들이 졸업을 해야 영산재 시연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 이번 행사에는 의식의 일부인 작법과 소리 등을 보존회 회원 스님들과 함께 참여해 보여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일기자



불교의식 범패승에 대한 계보

삼국시대의 법회 의식에 기록은 진평왕 15년(613년) 황룡사 백고좌(百高座) 설치기록만이 전하며, 범패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三國遺事)} 경상도 하동 쌍계사(雙溪寺)에 있는 진감국사(眞監國師) 대공탑비문(大空塔碑文)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지만 범패 계보에 대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조선시대는 숭유억불정책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의식 자료가 남아 있고 이 가운데 1748년 영조 4년 대휘화상 작성한 <범음종보>에 범패 계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있다.

1대 국융(國融 : 세종 1418년-1450년 때 활약) => 2대 응준(應俊) => 3대 혜운(惠雲) => 4대 천휘(天輝) => 5대 연청(演淸) => 6대 상환(尙還 : 임진왜란1592년 이후 활약) => 7대 설호(雪湖) => 8대 운계당법민(雲溪堂法敏 : 효종 1650년-1659년 때 활약) => 9대 혜감(惠鑑) => 10대 순영(순暎) · 유민(兪敏) · 채청(采淸)-(봉암사), 찬오(贊悟)-(남평, 불회사), 성각(性覺)-(능선 첨불사, 개천사), 축찰(竺察)-(해남, 대흥사), 대휘(大輝)-(장릉, 보림사), 이진(怡眞) · 풍식방-(순천, 선암사), 각선(覺禪)-(구례, 화엄사), 도인(道忍)-(순천, 대광사), 연기(演機)-(고흥, 금탑사) => 11대 계환(戒還) => 12대 홍해(洪海)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범패는 1973년 11월 5일 박송암(1915~2000), 김운공(1907~1984), 장벽응(1909~2000) 스님 등 세 명이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로 최초로 지정됐다.
그 후 1987년 11월 11일 범패, 장엄, 작법무부분 이일응(1920~2003) 스님 등이 문화재로 지정돼 체계적인 계보가 형성됐다.



큰 괘불을 모시고 시연되는 나비춤.





영산재의 각 의식은 생사가 둘이아닌 화해와 평등의 가르침을 담은 공양이다.



영산재란?

영산재(靈山齋)란 지금으로부터 불기(佛紀) 약 2600년전 인도 영취산(靈鷲山)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중생(衆生)이 모인 가운데 법화경(法華經)을 설(說)하실 때의 그 모습을 재현화한 불교의식이다.
영산재(靈山齋)는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함께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영산재(靈山齋)는 공연이 아닌 장엄한 실재의 불교의식임을 알고 삶과 죽음으로 갈라진 우리 모두가 불법 가운데 하나가 되어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하고 이로써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이 성취되기를 염원하며 부처님전에 행하는 최대 최고의 장엄한 불교의식이다.
또한 이 영산재(靈山齋)는 의식의 절차가 각종 전통문화의 요소를 내포한 음악적, 무용적 요소와 더불어 연극적 요소의 효과를 나타나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봉원사(奉元寺) 영산재보존회(靈山齋保存會)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음악적, 무용적 요소란 의식 진행중에 범음(梵音)과 화청(和唱)등이 음악적 효과를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불교 음악에 맞춰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을 추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3현6각(三鉉六角), 호적, 취타 등의 각종 악기가 동원돼 함께 연주한다.

▲ 영산재보존회 연혁

▲이월하스님-1875년 출생~1950년 11월 11일 작고 (세수75세, 법납 60세) 근세기 범음범패에 중흥기여
▲1969년-옥천범음회 최초설립
▲1973년 11월 5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
범패부분 : 김명호(운공스님) 1982년 음.10월10일 작고
박희덕(송암스님) 2000년 2월 1일 작고
장태남(벽응스님) 2000년 3월 25일 작고
▲1987년 11월 7일-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단체지정
▲1987년 11월 11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
장엄부분 : 정순정(지광스님) 1996년 2월 21일 작고
작법부분 : 이재호(일응스님) 2003년 5월 11일 작고
▲2005년 11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
범패부분 : 김인식(구해스님)
▲1988년 ~ 2005년-매년 영산재 시연(총 17회)
▲ 2006년 1월 영산재 보존회 회원현황
-보유자 1명: 김구해 스님 (영산재보존회 총재)
-전수교육조교 3명:마일운 스님(옥천범음대학장) 이기봉 스님(영산재 연수원장) 오송강 스님(옥천범음대학부학장)
-교육보조자 3명: 이경암 이원명, 한동희
-이수자 32명:박고산 김능화 조인각 김효성 최원허 윤해월 이운봉 조현성 김법현 김월타 방보명 권종일 이호산 김미산 김태허 김와룡 송법우 박법안 이정오 김현준 김현수 장청봉 조혜산 조효광 오보운 박처명 변춘광 류화산 심지허 한해사 신주혜 김선혜
-전수생 59명-노혜공 스님 외 58명
-준회원 150명-김정명 스님 외 149명
-총계 : 248명
연수원장 : 이기봉 스님
연수부원장 : 최원허, 김효천(법현) 스님

-정기교육
#대상자 : 이수자/ 기간 : 약1주일 내외, 연 1,2회 실시
#대상자 : 전수자/기간 : 약1주일 내외, 연 1,2회 실시

-해외교육
#대상자 : 영산재보존회원/기간 : 년 1회 실시

<국내 공연실적>
1985년 9월 9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영산재 공연
1988년 8월 25일 서울 올림픽대회 성화봉송기념 법회
1993년 5월 10일 세계불교도협회 초청 영산재 시연
2000년 9월 10일 서울마당놀이 영산재 시연
2001년 4월 26일~27일 국립국악원 50주년 기념초청 영산공연
2001년 11월 5일 삼청각 개관기념 공연
2002년 5월 30일~6월 28일 2002 한일월드컵 성공개최 영산대재
2002년 10월 4일~10월 13일 2002 부산아시안게임 성공개최 영산대재
2003년 4월 6일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49일 영산대재
2003년 8월 17일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기원 영산재
2003년 11월 4일 국립극장(달오름) 기념초청 니르바나 공연
2003년 1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전수생인정서 수여
2004년 6월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단체지정기념 영산재 시연

<해외 공연실적>
1996년 8월 7일 캐나다 토론토 시티TV 방송초청 영산재시연(1주일)
1997년 9월 8일 대만 타이페이 세계불교 영산재시연(대만 국립문화관)
1997년 9월 21일 한국문화예술원(독일 함부르크) 장소 : 파브릭 무적할레
1999년 8월 7일~16일 스페인대사관 초청 99스페인민족축제 불교음악 및 무용. 음악출연(스페인 오렌세이)
2000년 5월 14일 국제교류재산 불교음악 불교무용 공개세미나 공연, 하와이 대학, 글리브랜스 미국박물관 공연
2000년 5월 22일~6월 5일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무용의 5000년(미국 카네기메인홀)
2000년 7월 12일~19일 스페인 카디스 초청 국제무용페스티벌 참가 불교음악 불교무용
2000년 7월 20일~28일 스페인 씨드와리알 제19회 국제무용페스티벌
2000년 8월 15일 아프리카 수단 대사관 초청공연 불교음악 불교무용 출연
2001년 7월 2일 오스트리아 초청공연(ORF)
2001년 7월 6일~8일 벨기에 초청공연
2001년 7월 23일 스웨덴 국제민속축제 초청공연
2001년 7월 28일 일본 동경국립극장 영산공연
2001년 9월 6일 독일 뒤셀도르프 박물관 초청공연
2002년 1월 15일 대만(국가 희극원) 초청공연
2003년 4월 23일 뉴욕 Japan 소사이어티 초청 영산공연
2003년 12월 10일~15일 독일 베르린 세계문화의 집 종교음악축제 영산공연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9. 선종의 사구게(4)

6조의 남종 돈오선은 중국 불교를 넘어 정치, 문화, 예술 전 분야를 뒤덮고 우리나라, 일본, 서구에 미쳐 전 세계화되고 있다. 찬란한 당대의 5종(임제종, 운문종, 위앙종, 조동종, 법안종)과 송대에 이르러 다시 임제종이 양기, 황룡 2파로 나뉘어져 드디어 '중국 불교는 선에 있다'는 말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법계는 신라시대에 도의, 범일 등에 의해 전해져온 마조선이 보조 지눌에 이르러 크게 선풍이 진작되고, 고려 말엽 양기파와 신라로부터 내려오는 법맥을 아우른, 태고 보우와 나옹 혜근에 뿌리를 둔 조계종이 한국 불교의 주종을 이룬다.

물론 6조 이후에 정립된 게송이지만 이 사구게야 말로 육조혜능의 말씀인 <육조단경>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인 동시에 선의 황금시기에 다각도로 전개된 5가7종의 종지가 되고 우리나라 조계종의 근본이 된다.

문자를 세우지 않고 不立文字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하니 敎外別傳
사람의 마음을 곧 바로 가리키니 直指人心
자성을 보고 부처를 이룬다 見性成佛

자성은 말·글을 초월한 절대절명의 가치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보면 스스로 道 깨쳐"
혜능사상 전세계 정치·문화계에 큰 영향

모든 법은 모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기의 마음에 진여 본성을 단박 나타내지 못할까? <보살계경>에 '나의 본래 근원이 자성이 맑고 깨끗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보면(識心見性) 스스로 부처의 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곧 확연히 깨쳐서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는 것입니다.(<돈황본단경>17 견성)

위 말씀은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보면 부처이고 본래 마음(진심)을 도로 찾는 것이라 명백히 선언한다. 혜능에게는 자성이야말로 절대절명의 것이다. 자성은 시간과 공간의 저 쪽에 있으며, 우리의 말과 글이 표현할 수 있는 일체의 속성을 초월한다. 우리의 언어는 단지 현상세계와 사물과 사물이 끝없이 대립하고 융화하는 사이에 가유해 있을 따름이다. 가유해 있는 흔적을 우리는 자성 위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뿐이다.

우리가 <단경>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함이 없는 무위적인 초월 사상이다. 자성을 돈오함으로 오는 자유로움 이것은 노장적(老莊的)이나, 마지막 고요에 빠지지 말고 고요에서 오는 환희에 안존하지 말고 혜능은 저자거리로 돌아오라고 소리친다. 이것이야말로 실사구시의 공맹사상인 인간 중심적 사유의 맛이 한껏 드러나는 대문이다. 일체의 불경과 선어록은 우리를 위하여 설하여졌고 우리의 자성, 곧 불성 위에 건립되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혜능은 일체만물에 대한 집착이 없어져 무집착이 되었을 때, 이 무집착에 집착하는 위험을 위하여 말한다. 흔히 공에 빠지는 것을 8마계에 빠진다고 말한다. 고요와 적적에 쌓여 혼자의 환희를 즐기는 것을 말한다. 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그 이후 혜능의 후손들은 "백척의 낭떠러지에서 한 발 내디뎌라, 십만세계가 모두 부처님의 진짜 몸임을 알게 되리라"는 멋진 선어로 경책을 하지만, 그는 더욱 친절하고 인간적인 말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대들의 마음이 이미 선과 악의에서 벗어났다면, 깎은 듯한 공허에 떨어지지 말도록, 앞과 뒤가 끊기는 고요를 지키며 즐기는 경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대들은 오르지 학문을 넓히고 많은 견문을 쌓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의 본심을 깨달아, 모든 깨달은 이의 근본 이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사귐에 있어서 화합이 자연 이루어지고 나와 남이라는 생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보리에 이르러,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진심을 깨달을 것입니다.(<육조단경> 제5 '전향참회')

혜능의 가르침은 그와 그의 사상을 잇는 선사들에 의하여 더욱 심화되고 실증되어졌으며, 이윽고 실생활, 문화, 문학, 사상, 정치 전반이 막대한 그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의 사상계를 강타하고 있다.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❾ 송이잿불구이

사찰음식을 연구한지 어언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사찰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국내 7대 종단 대표자 모임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 대표회장 최근덕 성균관장)에서 5월 5~8일 평양을 방문, 광법사와 보현사 등을 참배했습니다. 출가 후 스님들에게 북한의 사찰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배운 터라, 언젠가 꼭 북한 사찰을 방문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생긴 것이지요. 그간 스님들께 보고 배운 북쪽 사찰음식을 소개하고 싶었지만, 가보지도 못한 사찰의 음식을 공개하는 것이 꺼려졌는데 이번 북한 방문으로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북한 사찰 음식 국수종류 많아
양념 덜 사용해 간 심심한 편

보현사에 도착했을 때 북쪽 스님네 분이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법당에 들어 서울에서 가져간 한과를 부처님께 올리고 예불을 드렸습니다. 보현사 주지스님 법명은 청운이고, 스물일곱에 출가해 지금은 세납 일흔 둘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보현사에서만 주석하셨다는 스님에게 소싯적에 노스님께 들었던 북쪽 사찰음식을 말했더니, "그때는 그런 음식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스님들 생활 방식이 옛날과 달라 그렇게 해먹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북한 사찰의 음식 재료는 남한 사찰과 많이 다릅니다. 북한 사찰에서는 국수종류를 많이 먹었고 밥을 해도 옥수수, 감자, 수수, 콩, 고염 등을 섞어서 지었습니다. 음식을 발효해서 먹는 방법도 남쪽과는 많이 다르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음식에 양념을 덜 사용하고 간도 심심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 노스님께 듣고 배운 북한 사찰음식을 소개할까 합니다.



송이잿불구이

재료 : 송이버섯, 무, 호박, 마, 호박잎, 소금, 참기름

만드는 법
① 무의 윗부분을 자르고 속을 파낸다.
② 마는 강판에 갈고 송이, 호박은 깍둑썰기로 썬 다음 소금으로 간을 한다.
③ 재료를 무 속에 가득 채운 다음 무 자른 뚜껑을 덮어서 대꼬챙이로 꿰어서 고정시킨다.
④ 무를 호박잎으로 3겹 정도 싼 다음 잿불에 파묻고 하룻밤을 재운다.
⑤ 아침에 꺼내서 호박잎을 걷어내고 길게 반으로 썬 후 다시 반달썰기로 썰고 참기름을 넣은 소금에 찍어 먹는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❾

길은 당나귀를 타고
이은봉 | 실천문학사 | 6000원





인간의 다섯가지 욕망, 그 허무함에 대하여

이은봉은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1983년 <삶의 문학>에 평론을 발표하고, 1984년 창작과비평사에서 발간한 공동시집에 '좋은 세상' 등 몇 편의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은봉은 시집 후기에서 "골짜기와 봉우리 사이를 허겁지겁 쫓겨 다니며 살고 있다. 거머리들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어지러운 정글 속, 길을 알고 앞으로 나가본 적이 별로 없다."고 한다. 살아가기 힘든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은유하고 있다.

생존경쟁이 치열한 '정글' 속에 내던져졌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그는 "조용한 마을로 건너가려는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그 '조용한 마을'에 당도하려면 '욕망의 과잉'을 잠재워야 하리라. 그래서 그는 욕망에게 선을 하라고 다그친다.

저고리 벗어라 브래지어 끈 풀어라
앵두알처럼 상큼한 네 입술 깨물어,
메밀묵처럼 쫄깃한 네 젖밥 물어뜯어,
아슬아슬한 소름끼치는 긴장,
너도 맛보아야 하리

속치마 벗어라 팬티 끈 풀어라
포도알처럼 촉촉한 네 젖꼭지로 하여,
아궁이 속처럼 검붉은 네 자궁으로 하여,
신음하는, 몸부림치는 기쁨, 너도 맛보아야 하리

욕망이여 더러는 너도 지져우리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싶으리
쪼그라드는 사타구니 굽어보고 싶을 때, 있으리
콧물 훌쩍이며 살비듬처럼
떨어져 내리고 싶을 때, 있으리

끌내 고개 숙이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박달나무 지팡이여 꼬부라진 지팡이
끌에 매달려 대롱거리는 말간 눈물이여
너도 이젠 문드러져가고 있구나
조용히 닭아가고 있구나

욕망이여 너도 그만 禪좀 하거라
눈 감고 한 소식 좀 하거라 더러는 너도
부처님 가운데토막이고 싶을 때, 있으리
그렇구나 네 가슴 속, 치솟는 사랑 좀 보아라
땅 속 깊이, 우쩍우쩍 뿌리내리고 있구나.
– '욕망이여 너도 그만 禪좀 하거라' 전문

인용한 위 시는 1, 2연에서 외적 욕망의 기표들인 브래지어, 입술, 귓밥, 속치마, 팬티, 젖꼭지, 자궁 등의 명사와 벗어라, 풀어라, 상큼한, 쫄깃한, 벗어라, 촉촉한, 신음하는, 몸부림치는 등 동사나 형용사 등 용언을 통해 육체적 욕망의 요지경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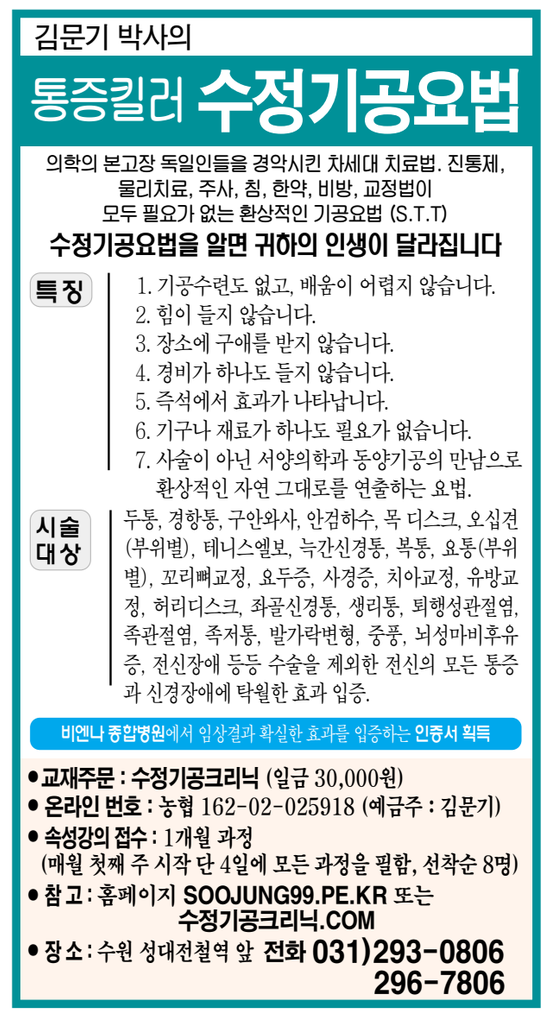
그러나 3, 4연에서는 육체적 욕망의 부질없음을 노소한 육체의 심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5연에서 화자는 '욕망'에게 "너도 그만 禪좀 하거라"고 다그친다. 욕망은 애착에 의하여 생기며, 우리의 생활은 그 욕망에 기초하여 유지된다. 사실 욕망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 다섯 가지의 욕망인 성욕, 식욕, 수면욕, 명예욕, 재물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이러한 욕망은 색, 성, 향, 미, 촉의 오경(五境)에 집착하여 일어나는 욕망이다. 이 다섯 가지 욕망에게 화자가 禪좀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 시와 같이 화자가 직접 가부좌를 틀고 앉아 세상을 바라보기도 한다.

딱딱한 철근 콘크리트 벽 뚫어 만든 구멍,
대가리 처박고 산 지 십 수년,
마침내 구멍 빠져나와, 지평선 시원한 산언덕,
보리수나무 아래, 가부좌 틀고 앉아 척, 하니
세상 바라본다

바라보며 눈 감는다 눈 감으면 어지러워라
압력밥솥 뒤집어쓴 채,
닭 내장 속살이 지저분한 또 하나의 구멍,
헤매고 있을 뿐!
아수라장 한 가운데.
히쭉히쭉 떠 흐르고 있을 뿐!
대가리 푹 처박은 채. – '구멍' 전문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문의 : TEL 02)2004-8214~6, 02) 732-1522 , FAX 02)737-0696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금강경, 원각경, 참선지도
승속관계없이 견성의 실체
매주 토요일 2시 법문
지도법사 : 적파명등 합장
행자 및 동자 모집
문의 : 055)972-3843
011-9393-4965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지리산 삼화선원

秘法 전수

뭇 광고에 정해보면 생각과 다르지요
이곳에 오시면 속지 않을 겁니다
1. 삼혼칠백의 작용법(천도)
2. 달마 사연 장중 도법(윤회)
3. 도인 침술법(귀신병)
4. 빙의 제령법(정신병, 체면학)
5. 기공법(레이키, 약손)
*초종파, 스님 누구나 배워 보세요(보시료 약간)
055)573-7832
010-3189-3525
경남 의령 해용사 -법 경-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대불정능엄신주 독송 지도
토요일 철야기도
영가천도, 우리말 천수경
▷상담 환영◁
꿈바위 불교교육원
016-787-3977

육임 수강생 모집

사주를 보지 않아도 찾아온 목적을 알 수 있는
육임에 비술인 초급반과 백법반을 수시모집합니다.
육임에는 백법이라는 100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동영상과 직강을 동시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가능 ●사무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문의: 02)793-7333 www.saju79.com

역학 속성지도

매화역수 주역 명리학 성명학
실제감정위주로 가르쳐 드리고
문서 기증함
(출장개인지도가능)
도성암 점법스님
010-7443-3060

역학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지방인 숙식제공)
051)818-2358
010-5345-2358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 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퇴마 영혼을 치유합니다

빙의 · 신끼 · 무병 · 정신질환 ·
우울증 · 두통 · 알콜중독 · 만성질환
조상이나 타인 영가를 특별한 기(氣)
천도재로 병명없이 몸이 아프고,
가정불화, 우환 등 병고치유함
055)261-1230
011-586-6091
*청정 비구승입니다. 수행도량 불사나 보시하실 분

청암 달마원

달마도 정진 20년 청암법사
친필 달마도를 불사에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51)202-8770
www.달마.kr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 49재 · 점안식

범음범패 바라 작법무 태평소
살풀이 지전무 극락무 회심곡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010-4870-8359
범음범패 무형문화재 9호 전수자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6년)

역 학 강 의

명리 · 육효
적천수천미
한 문 원 서
051)523-8425
※통화중이면 지방 강의중 입니다
010-3667-8425

불교전통의식대학 개원

과목 : 천수바라 · 작법무 · 천도의식 염불
집전 교육강의
(사찰행사 : 49제 · 점안 · 구병시식)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금정마을
대한불교 원광사
주지 : 삼광스님 학장 : 무상스님
051)558-8830~1
010-3928-0006

동양철학 작명학 배우실 분

◆ 3개월 완성
◆ 기초에서 완성까지
◆ 저렴한 비용
◆ 수강자 편한 시간선택
유심 동양철학 연구원
상담 전화 011-711-5072

정법수행도량에서 기도스님(부전)이 필요한 사찰은 전화주십시오

010-4520-6787
054)433-6315

행자스님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무원에서는
전통종단의 맥을 이어갈 예비스님 및
사미승을 모집합니다
※가족적인 분위기, 자율적인 교육, 1인1실
055)381-1199
011-590-119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성남
011-9854-9810

법회를 주관하실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031)407-0298
010-6328-395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야간으로 복지학과,
유아교육 공부하실분 환영합니다
011-9583-4633
054)272-4633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월보시금 100만원
052)275-0829 울산

도심속 조용한 비구 사찰입니다 기도정진할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9755-8988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02)359-7766
02)353-300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의왕시
031)459-3108

조용한 암자에서 생활하실 성실하고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과 처사님을 모십니다

055)863-4143
011-392-6885

비구니 부전스님 법당보살 모십니다

031)533-8815
011-258-999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인천시 강화군)
011-9554-3568

천일기도하실 스님 모십니다

기도하시면서 공양주
하실분 모십니다
033)661-5878
016-350-1193

부전자리 원합니다

(비구승)
054)743-1008

도심사찰에서

열반때까지 운영하며
함께 할 비구, 비구니,
행자, 처사, 보살님을
초대합니다
011-9906-0366

기도스님 모십니다

(오랫동안 같이 수행하실 분만)
011-538-1529

남해바다 근접한 조용한 산사

무보시로 기도수행하며
지내실 비구니 스님
이나 공양주보살님
▷위치 : 전남 고흥
010-2511-1188

법납40년, 세납 60된 비구입니다 평생기도만 했습니다 노전자리 구합니다

019-590-3558

종무원 구함

PC가능하고 숙식도
가능한 40세 이하 (女)
▷경기도 이천
011-415-5558

명산에서 1년간 기도하실 스님 모십니다

011-696-8500

현대생활속에 몸과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과 함께 하는
민간 대체요법 연구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 각종 지병(고혈압, 당뇨, 암, 비만, 위장병, 신경통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분끼리 동병상린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일상생활속에 대체 식이요법으로 자연속에서 상주하며 연구하고 치유하는 모임체를 갖고자 합니다.
· 민간 대체요법, 특히 각기 체질에 따른 식이요법 연구에 평생을 헌신하신 거사께서 상주하여 지도하고 계십니다.
경기도 양주시 감악산 율림선원
031)867-1801~2/016-703-6648

행자(예비스님)모집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수행 ·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행자문의 : 010-2488-8228
▶ 신입생 주 · 야간반 모집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제한 없음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직강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854-0196
019-369-045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하양)
017-803-020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공주 계룡산)
042)822-860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영가천도 기도도량
(경기 일산)
031)901-1954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문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49재 · 천도재 · 불상점안 집전

(바라 · 작법무 · 회심곡 · 합창단 · 살풀이)
아! 알았도다. 내가 곧 탐 · 진 · 치
이 몸이 삼독인 것을...
영산회상 의식 포교단(홈페이지:www.천도재.kr)
행사문의 051)557-1130 / 011-482-2091

예불기도 부전스님 구합니다

(노장스님 환영)
011-840-4355 / 051)334-3009 부산

동참자 및 인수할 분

1. 사찰(노인요양원 및 추모사업 진행중)
대구근교 30~40분, 대지 약 700평, 건70평
인수가 4억5천(융6700만)
2. 솔밭, 수목장 추모공원부지 2만평(평당12만)
대구 20여분 거리, 절을 운영할 분을 모십니다
053)471-3123 / 017-501-2315 (주)유한복지

선 · 기공 전수 받으실 분

사찰운영에서 방편이 없으신 분 100% 활용할 수 있음
◆기간 : 주 3회 3개월
(스님, 법사, 선 ·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일반인도 가능)
※ 금번 생활불교 선 · 기공 연합종회에서는 종도 및 간부스님을 모십니다.(간부스님은 특별 혜택이 있음)
사)생활불교 선 · 기공 연합종회 총무원
053)754-0082 / 011-549-8130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속독 · 한자 · 독서(논술) 강사과정모집

창업, 취업, 보람찬 교육자의 길
교육도 품격이 있습니다

◆ 속독 · 한자 · 독서(논술) 교육을 한꺼번에 습득
◆ 효과가 검정된 발명특허원 획기적인 영재교육
◆ 전문교수법 완료, 초보자도 능력있는 강사 될 수 있음
◆ 각 학교 특기적성교육, 공부방, 교습소, 학원 등 강사 절대 부족
◆ **등록기간** : 2007년 6월 6일부터 선착순 50명
◆ **교육기간** : **일요일반** - 6월 24일~ 9월 2일
오후 4시~7시(주1회, 11주)
월요일반 - 6월 25일~ 9월 3일(주1회, 11주)
아침반-10시~12시, 저녁반-7시~9시
◆ **수 강 료** : 60만원 ◆ **지원자격** : 본 교육에 관심 있는 분
◆ **입금안내** : 신한은행 308-01-179614 (경기대 사회교육원)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 (02)390-5260~2
문의 : 담당교수 016-595-1137

부산 · 영남지역 교육
동아대 사회교육원 ☎(051)240-8452~6
문의 : 담당교수연구실(051)243-1137, 016-595-1137
(교육일 : 금요일반, 토요일반)

동서양식 레이키(靈氣)가 왜 화제인가?

동서양식 「레이키(靈氣 · Reiki)」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고 생활의 각 방면에 氣에너지를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이키는 이미 전세계 50~60개 나라에 널리 보급돼 있지만 우리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에서 전수해 드리는 동서양식 레이키는 여러가지의 레이키 기법을 융합한 것이어서 아주 쓸모가 많습니다.

1.동서양식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기간 2~3일, 교육비 70만원**
▶단체교육 : **교육기간 2일(매월 1회 · 토,일요일)**
교육비 55만원

2.카루나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시간 4~5시간 정도, 교육비 3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야 배울 수 있습니다.

3.지도자 소개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운영자인 저(박희준)는 번역가 · 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7년 이후 외국에서 여러가지 레이키를 배워온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 입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현대생활레이키)
자매홈페이지 :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지장간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 못 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 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전화해도 받지 않을 경우는 상담 중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TEL 02) 2004-8214~6 / 02)732-1522 (直) · FAX 02) 737-0696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22평 외 33평
● 요사 : 130평
● 부지 : 1000평 (600평 국유지)
● 가액 : 15억

● 위치 : 경남 마산지역
● 법당 : 30평
● 명부전 및 요사 : 300평
● 부지 : 1200평 외 1500평
● 가액 : 18억(급매가격임) 꼭 필요한분 직접상담요

● 위치 : 충남 당진
● 법당 · 요사 : 140평
● 부지 : 9,500평
● 가액 : 13억5천
● 무속인 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경춘국도 (서울에서 약 50분거리)
● 부지:2,000평
● 건물 5동(조립식 포함)
● 가액: 16억
● 특징: 야외법당, 진신사리탑(전망좋음)
033)261-5285
010-2871-528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덕읍 (읍에서 11Km)
● 부지 560평 중 대지 198평
● 법당, 요사채, 주지실, 일주문(방2)
● 최저가(가액은 상담 후 결정)
● 꼭 필요한분만 연락요망
016-9677-341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명륜 2동 부근 1층 법당 30평, 삼존불, 2층 요사채 20평
● 대지 71평, 마당에 주차 가능, 정원있음 지하철 역 5분, 버스 1분거리
● 가액 : 1억 8천만원
051)555-8516
010-8550-844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창원시내
● 평수 : 90평 (4층 건물중 3층
● 방3, 사무실1, 주방, 화장실2, 샤워실1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4천만원
010-4877-59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부지 : 400평
● 법당 : 36평 목조
● 요사 : 90평
● 가액 : 8억 5천

● 위치 : 서울 산속
● 부지 : 500평 국유
● 법당 : 25평
● 요사 : 60평
● 가액 : 5억5천

전국 사찰 · 포교당 · 부전스님 · 공양주 소개합니다
사무실이 독립문역 1번출구 150m로 이전하였습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립공원 내)
● 대지 : 208평(조경완결)
● 법당 목조건물 20평, 산신각 4평(신건물)
● 황토방 한옥건물 15평 1동, 요사채 30평(신건물)
● 각방 욕조완결, 지하수, 마당에 연못있음
● 절앞에 큰 저수지가 있어 물좋고 경치좋음
● 급 양도 및 전세
011-575-039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명륜 2동 부근 1층 법당 30평, 삼존불, 2층 요사채 20평
● 대지 71평, 마당에 주차 가능, 정원있음 지하철 역 5분, 버스 1분거리
● 가액 : 1억 8천만원
051)555-8516
010-8550-8440

포 교 원 안 내
신축 불사관계로 급 안내함
● 위치: 경기도 안성시 2층 건물
● 법당 10평, 방 2개, 주방 및 화장실
● 옥상 20평 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특징: 시외 및 고속버스터미널 앞 철학하시는 스님, 법사님, 보살님 최고 위치
017-297-4097
043)211-0579

포교원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중심
● 대지 80평 한옥 임법당 20평
● 요사채 스라브 15평
● 양도가 : 1억1천만원 (전세도 가능함)
● 주인보살 직접
● 절충가능
010-9311-6788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부산 바닷가
● 부지 : 130평 (시유지 포함)
● 법당 목조 25평
● 주변경관, 바다전망 최고 120년 전통사찰
● 가액 : 3억2천

● 위치 : 삼랑진역 10분거리
● 부지 : 33,000평 (관리지역 7,000평)
● 법당 : 목조 15평, 요사채2동 120년 전통고찰 정남향 산세 빼어남
● 가액 : 4억

※부산시내 및 암자 토굴 소액 7천~30억까지 다량확보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61

소백산자락 바로 지을 수 있는 명당터
● 위치 : 소백산 자락(영주에서 부석사 중간), 산 270m 고지 높이
● 평수 : 독립구역 5,300평 (관리지역). 명당산세
● 차량진입로 포장(주차장 포함) 및 전기 인입 완료
● 4개 면 평지 토목공사 완료 ● 아늑하고 경치가 좋음
● 인근에 승마장 및 온천개발지, 숯가마 체험장 등 있음
016-573-2032 (원하시는분만 연락요)

토 굴 안 내
● 위치 : 하동 악양
● 건물 : 신축, 황토기와집
● 특징 : 마을과 떨어져 있으며 앞에 조그만한 개울
● 부지 : 대지포함 약 670평
● 가액 : 1억7천만원
010-9304-2322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밀양 IC에서 10분 거리)
● 대지 235평, 목조 기와지붕, 단층 법당(35.10평방미터) 조립식 지붕, 단층 요사채 (67.145평방미터)
● 산신각 용왕당 사찰내부에 있음. 도로 시멘트 포장,
● 사찰 내부 주차 10여대 가능
● 가액 : 2억3천만원(꼭 필요한분만 연락요망)
010-6782-2916
054)373-291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백용사
● 법당, 칠성각, 산신각, 용왕당, 요사채
● 부지 : 약3600평
● 가액 : 7억5천만원
055)353-0611
016-422-0611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 하동
● 부지 790평, 법당 25평
● 요사채2동,창고,주차시설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 별장용 명당 각종채소밭 있음, 관상용 양어장
● 가액:2억
010-3138-4897

포교당안내
저렴한 포교당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위치 : 부산 감전시장 사거리(유동인구 많음)
● 5층 중 2층, 실평수 50평 방4개, 살림가능
● 법당 : 동불, 아미타삼존불 4자3치, 소불 1000불 7치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 사정상 반값도 안되는 가격으로 보시함
051)311-3340
016-560-7237

사찰 별장 안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중심가)
● 대지 : 175평(주차장 100평 별도 사용)
● 법당 : 30평
● 요사채 : 현대식(2층 건물)
● 특징 : 전망좋고 편리한 도심중심가. 산에 위치
● 가액 : 3억 5천만원
016-510-345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 평수 : 28평
● 대지 : 1,100평
● 교통편리, 최고의 명당
● 가액 : 8억 7천만원
010-7795-88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 (마산, 대구, 창원 인접)
● 평수 : 1400평
● 법당, 칠성각, 용왕당(연못), 요사채 총 100평 이상
● 가액 : 3억5천만원
※꼭 필요한분만 연락바랍니다
010-2592-152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시 남구
● 1층:법당,공양간,상담실 2층:큰방3,작은방1,
● 마당넓음, 위치최고 시설 깨끗
● 보증금 : 1천만원/월70만원 시설비 600만원
010-5201-7499

사찰 토굴 안내
● 위치: 경주보문단지에서 5분거리
● 대지 144평, 전,답 평수 290평 법당 10평, 건물 4동(양호) 전체사용평수(하천부지포함) 약1,000평
● 특징: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경내앞 하천에 1급수 물이 흐르고 있음
● 가액 : 2억 1천만원
010-6345-7557

포 교 당 안 내
대구 경북 도청옆 포교의 중심지
● 대도로옆, 신축건물 90평 A/V有
● 아미타 삼존불, 신중, 삼성 탱화 사천왕, 500인등 있음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최신식시설, 냉난방완비, 무선앰프
● 보증금 2000만원, 월 12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모든 시설 완비 (전세로 전용가능)
연락처 011-820-4617

제주 단독주택(급)안내
● 위치 : 제주시 애월읍 (해수욕장 5분거리)
● 대지 : 51평(멀리 바다가 보임)
● 건물 : 원룸식 1동(깨끗함)
● 마당에 텃밭있고 차량 2대 주차가능
● 가액 : 4천3백만원(절충가능)
※사정상 시세이하 계산함
064)399-5617
010-6215-878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 대지 180평, 건물(슬라브건물) 아래층47평,2층47평,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10평.
● 법당완벽 설비, 석축 조경 완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 5천5백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밀양시 무안(표충 비각 근교) 국도변 위치,밀양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약 200평
● 요사채 60평(적벽슬라브)1동
● 법당 20평(아미타불,삼존불)1동
● 최고급 시설, 태양열, 단독지하수 사찰비품 및 전자제품 일절
● 가액 : 2억 1천만원 (은행융자 7,000만원 포함)
010-5883-5005

사 찰 안 내
● 위치:충남 금산군 남이면
● 법당30평,스님방 1개 요사채(슬라브) 35평 대지 630평
● 미륵불 한분 모셔져있음
● 가액 : 상담 후 결정
041)754-5751
010-6754-3438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해남군 해남읍 근교
● 목조법당 4채, 부속건물 5채,
● 가액 : 보신 후 결정
010-3163-4747
061)537-4848

포 교 당 안 내
● 위치: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 중 2층 45평
● 삼존불, 각단탱화, 산신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4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031)405-4181
010-6321-1639

운영이 어려운 사찰이나 포교원을 원합니다
(법납 40년, 세수 60세)
연락주시면 무보시로 큰 원력세우겠습니다
010-3131-1094

사찰(토굴 · 임법당) 안내
● 위치:경남 합천군 율곡면 (2차선 도로변 버스정류장 인접)
● 현사찰 임법당, 토굴로도 적합 법당시설 완비, 교통편리
● 현 사찰로 스님이 운영중
● 대지 300평, 건물 약25평
● 가액 : 5천5백만원
011-891-7301

포 교 당 안 내
● 위치:속초 중앙동
● 건물 60평
● 내부시설 황토, 좌욕시설 완비
● 환자 치료하실 스님이나 역학을 보실 스님이면 아주 적합한 곳임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54)383-9972

포 교 원 안 내
● 위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 (대중교통 편리)
● 건물 1,2층(각60평) 법당완비 1층 : 법당(약40평), 산신각, 용왕당 2층 : 종무실, 요사채
● 월세(1,2층 포함) : 110만원
● 총인수금 : 2천3백만원(비품포함)
010-3534-3872

사 찰 안 내
● 위치:전남 장흥
● 법당 20평, 대지 350평 (실 사용 600평 이상)
● 요사채,삼성각,공양실,선방
● 총 건물 5동, 전체 기와단청
● 거대 바위산 밑 위치
● 가액 : 1억8천만원 (절충가능)
016-9660-1348

경주(慶州)명당터
● 자라형국, 배산임수, 회룡터 남향 보문단지 감포간 중간국도변 한수원 본사 이전지역 입구 맥반석 지하수 (마르지 않는 샘물)
● 대지 530평(건축허가 필 60평)
● 가액 : 1억3천만원 (사찰 별장 팬션적지)
011-9517-8526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 (통도사 부근)
● 총평수 : 104평
● 건물 : 26평
● 가액 : 7천만원
011-884-776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원주 문막읍 시내버스 정류장 앞
● 법당 : 25평(2층) 방2, 주방, 샤워장. 시설비 500만원
● 보증금300만원,월25만원
● 특징:사람 내왕이 많은 중심지 역학하시는분에게 최적지
033)731-9277
011-9483-9221

사 찰 안 내
● 위치:경북구미시
● 대지:800평
● 법당 24평, 요사채 45평 법당, 요사채 집기 일체
● 요사채 에어컨 설치, 심야전기보일러
● 하천부지사용, 주차장 완비
● 가액:2억 5천만원
016-818-3088

사찰(급)안내
● 위치:전남 진도군읍 염장리 래접산하
● 대지 : 2500평,법당 : 약 45평
● 삼존불, 탱화시설, 산신각 완비 요사채 : 약50평, 방4
● 가액 : 2억8천만원
● 상담 후 가격절충 가능
061)544-0484
011-9928-0005

포 교 원 안 내
● 위치:부산 금정구 동현중 앞 4층 건물중 1층(25평)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20만원 시설비 : 2천만원
051)512-3203
010-7549-1021

암 자 안 내
● 위치: 칠곡군 약목면 (구미시 근접)
● 임법당, 연꽃연못, 넓은정원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1년 300만원
017-813-9126

포교당 안 내
● 위치:충남 아산시(시내 요지)
● 2층 건물중 2층
● 평수 : 약40여평 방2, 욕실,거실, 주방 법당 시설완비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700만원
010-6374-0034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약사사
● 법 명 : 법련 ● 속 명 : 심성희
● 주 소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1동 1080-4번지

본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31일

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사찰(급)안내
● 위치:부산
● 대지:60평, 법당 30평, 요사 30평
● 사정상 급매함
● 가액:1억 7천만원 (절충가능,은행융자 3천5백만원포함)
011-9543-0226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 대지 247평, 건평 70평 (현대식 건물, 기역자형)
● 교통편리, 산좌수려
● 가액 : 1억 7천만원 (절충가능)
011-9430-114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용호동
● 2층, 30평,
● 보증금 2,000만원 월40만원(절충가능) 시설비 답사후 결정,
● 시설완벽
016-9508-9633

사 찰 안 내
● 위치:양산시 원동 (불사한지 한달된 신축사찰)
● 법당 1동 26평, 요사1동(2층) 20평
● 산세수려, 기도도량, 연못조경완벽
● 가액 : 2억2천만원
※스님 건강상 급 안내함
055)372-0123

암 자 안 내
● 위치: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 평수:1,300평
● 흙집 있음, 조경시설 되어있음
● 가액 : 2억8천만원
011-9917-7039

사 찰 안 내
● 위치:경북 구미시 산외면 (구미IC에서 10분거리)
● 부지 : 550평 중 대지 300평 (국유림내 실 사용 650평)
● 건축 : 요사채 40평 (요사채의 일부 임시법당 사용중)
● 법당지 토목공사 완료
● 특징 : 산세수려, 교통편리 기도처 및 노후스님 별장지로도 적합
● 가액 : 1억9천5백만원
010-2333-3638

사찰(급)안내
멋진 전통사찰 임대
● 김해시내, 대지 730평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식당 일절구비 올 수리, 너무 깨끗합니다
● 전세2억(절충가능)
● 즉시법회가능, 몸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011-869-8608

사찰(급)안내
● 위치: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 법당 : 20평, 요사채 : 65평
● 신축 신도회관 : 65평
● 대지 : 1,000평
※서천가는 21번 국도에서 인접
● 가액 : 3억원(절충가능) (스님 병환으로 급 안내함)
041)934-2134
010-4734-2134
010-4844-9779

임 법 당 안 내
● 위치:강원도 동해시 중심가
● 법당,방2,거실,주방,화장실 창고2,텃밭,주차공간 많음
● 삼존불,지장보살 옥불, 천수관음보살
● 보증금 2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집기일체 1천만원
011-402-166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시 수영 팔도시장 근처
● 3층 건물에 2층, 평수43평
● 오존불, 후불 칠성 산신탱화,방2 주방, 화장실, 세면실
● 보증금 : 500만원 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51)518-7721

만다라 그리며 근심·걱정 '싹'

만다라로 마음 치료해요 "만다라 미술치료는 환자의 무의식을 이끌어내 심리를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만다라 미술치료의 세계적 권위자인 수전 핀처(66)가 5월 23일 대한임상미술치료학회의 '만다라를 통한 미술치료'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베스트웨스턴 강남호텔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는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해 만다라 미술치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수전 핀처는 이날 "만다라에 그린 상징, 문양, 색깔 등은 그 사람의 무의식에 가려져 있던 심리, 불안 등 정신적 상태와 육체적인 건강을 반영한다"며 "한국에서도 나름의 상징체계를 갖춘 만다라 미술치료가 발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음악·미술·연극 등 다양한 예술치료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미술치료의 한 방식인 만다라 심리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다. 만다라 심리치료란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이뤄지는지를 살펴본다.



규칙적인 호흡 통해 내적 충만 체험
산만하고 집중력 약한 어린이에 효과
색 형태 보다 기분에 주의 기울여야
내면의 메시지를 그림으로 표현해야

■ 만다라란?

만다라(曼荼羅, Mandala)는 원(圓)·중심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다. 만다(manda)는 본질 또는 정수를, 라(la)는 소유 혹은 성취를 뜻하는 것으로 '본질을 깨닫다' '정수를 얻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흔히 '만다라'라고 하면 티베트 불교의 만다라 불화(佛畵)를 떠올리는데, 이때 만다라는 깨달음의 심상(心象)을 시각 형식으로 나타낸 그림을 일컫는다.

만다라의 주된 형태인 원은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과 주변 환경의 모든 곳에 존재하며, 만다라 형태는 동서양 문화권에서 초월적이고 정신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티베트의 만다라 불화와 태극형태, 기독교 성화에 표현되는 예수와 성인의 후광 등이 만다라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한편 나바호 인디언들은 모래만다라를 만듦으로써 상처와 병을 치유하기도 한다.

■ 만다라 미술치료

만다라 미술치료는 고요한 환경에서 원 안에 다양한 형태와 무늬를 그리고 색칠하고, 이를 통해 정신적·신체적 치유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1960년대 스위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C. G. Jung)이 심층심리학적 입장에서 만다라를 이해했다. 그는 스스로 만다라를 그림으로써 자기를 발견하는 체험을 한 후 환자들에게 적용해 그들의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려고 했다. 국내에는 약 10여 년 전에 소개돼 심리연구소나 복지시설 등에서 심리치료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만다라 심리치료 연구가들은 만다라를 그리는 동안 일상의 근심이나 걱정을 잊고 편안하게 몰입하게 되며, 또한 호흡이 규칙적으로 이뤄져 정신상태가 균형을 이뤄 내적 충만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여주 교수(원광대 미술치료학과)는 "만다라를 그리거나 만다라를 보고 명상에 잠김으로써 자기 감정을 알아내거나 수용하게 된다"며 "삶에서 어려움과 위기를 겪는 시기에 만다라를 그림으로써 자신을 발견하고 자아치료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평소 산만하고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어른들에게 만다라 미술치료를 적용한 결과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강박 증세나 거식증, 폭식증,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만다라 미술치료를 받을 경우 분열된 인성을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으며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만다라 미술치료는 그림 문양이 있는 만다라를 색칠하는 방법과 직접 만다라를 창작하여 그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초급자들은 문양이 그려져 있는 원에 색칠을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만다라를 표현하는데 익숙해지면 직접 원을 그리고 그 안에 문양을 그린다.

만다라 미술치료에 필요한 준비물은 종이와 단단한 밑판, 문양그림과 자, 연필, 색연필, 물감 등.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주변을 정돈하고 마음은 편안하게 갖는다. 매트나 담요 위에 누워 숨을 깊게 들이 쉬며 호흡이 규칙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집 근처 공원이나 숲길을 걸으며 자연의 소리와 느낌을 만끽한 후 집으로 돌아와 그 느낌을 만다라로 그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림을 그릴 때는 자신이 쓰는 색이나 형태 등의 상징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신의 직관과 현재의 기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그림을 잘 그렸는지를 평가하거나 색채가 갖는 상징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만다라 미술치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미술치료사는 상담자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가고 어떤 색과 도구를 사용하는지 등을 관찰해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통 1장의 만다라를 완성하는 데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개인차가 있으므로 시간이 좀 더 걸리거나 몇 차례에 걸쳐 완성해도 상관없다. 여러 명이 함께 그릴 때는 대화를 가급적 삼가고 조용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림을 다 그린 후에는 서로 그림에 대한 느낌이나 그릴 동안 느꼈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해도 좋다. 단, 만다라 그림에 대해 옳다 그르다 하는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완성된 만다라는 가까운 곳에 걸어두고 감상하거나 차곡차곡 모아 두면 자신의 그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여수령 기자

참고문헌: <만다라를 통한 미술치료>(학지사, 1998) <만다라와 미술치료>(학지사, 2001), <만다라를 통한 내적치유>(해와달을그리는사람들, 2006) <미술치료의 실제 만다라>(미진사, 2007)



38. 차 박물관

박물관 마다 다실 마련 茶道 체험 기회 제공
당시 차 문화 한 눈에…다도 생활화에 큰 기여

차는 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화로 전 세계 수십억 사람들이 기호에 따라 즐기고, 마시는 방법도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일본은 일상적인 차와 다도(茶道)가 공존하는 곳이다. 길거리나 휴게소 어디에서든 자판기에서 골라서 차를 마실 수 있다. 음식점에서는 주로 생수보다는 차가 나온다. 호텔에서도 차는 서비스로 객실마다 비치되어 있다.

이렇게 일상화된 차 문화 속에서 그들 전통 다도(茶道)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다도는 학원과 학교에서 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정신문화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각 기념관과 박물관에서는 다실을 마련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이 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차(御茶)를 담았던 차 단지.

일본 최대의 차생산지인 시즈오카의 마키노하라 대 다원(牧之原大茶園)으로 둘러싸인 차의 고향(お茶の郷)은 다도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정원 안의 다실은 센노리큐(千利休), 후루타 오리베(古田織部)를 잇는 챠노유(茶の湯의 정통을 계승하고 확립시킨 다이묘 다인(大名茶人) 코보리 엔슈(小堀遠州, 1579~1647)가 세운 건물과 정원을 복원한 것이다.

박물관 안에는 국내외에서 수집한 차나 찻그릇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일본 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차가 소개되고 있다. 현지의 맛있는 시마다차(島田茶), 카나야차(金谷茶)는 물론 옥로(玉露), 현미차(玄米茶), 호지차(ほうじ茶), 번차(番茶) 등 일본차가 모여 있으며 유명한 과자나 특산품, 그리고 외국의 차, 찻그릇 등도 소개되고 있다.

교토부 우지(宇治) 칸바야시 기념관(上林記念館)은 에도시대의 어용차사(御用茶師) 칸바야시가(上林家)의 주거지를 이용해서 개관한 차 기념관이다. 당시에 우지하시(宇治橋) 거리에 우지차사(宇治茶師)의 집이 10채 있었는데 여러 번 차 단지를 보내던 곳이다. 기념관 안에는 센노리큐(千利休), 코보리 엔슈(小堀遠州)에 관한 고문서와 차 도구를 비롯하여 오래된 다호, 차를 만들 때 필요한 도구 등을 전시해놓고 있다. 우지차사(宇治茶師) 칸바야시(上林) 가문의 권세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도쿠가와 삼대 장군 이에미츠(家光)의 시대에 막부에서 즐기던 차가 우지로부터 제일 먼저 만들어진 신선한 차가 진상되었다. 이때 어차(御茶) 운반 행렬인 오차쓰보도츄(御茶壺道中)가 있었다. 간에이(觀永) 10년(1633)에 제도화되어 케이오(慶應) 2년(1866)까지 매년 거르지 않고 어차 진상은 계속되었다.

수백 수십 개에 달하는 차 단지에 최고급의 전차(碾茶)를 채워 토카이도(東海道), 나카센도우(中山道), 코슈 카이도(甲州街道)를 왕래한 오차쓰보도츄는 대단한 권위가 있는 것이었다. 어떤 행렬도 오차쓰보도츄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행렬과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먼 길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차 단지(茶壺)에 얽힌 유행한 동요도 있다. '단지에 쫓겨 문을 팍, 빠지면 다시 열어라'라는 노래 가사는 서민은 이 행렬을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 단지가 오면 집의 문을 닫고 지나가면 다시 열고 한숨 돌렸다'고 하는 의미이다.

이밖에도 지역의 특징을 살린 많은 박물관이 있어 그 당시의 사회와 차 문화를 잘 알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차 기념관과 박물관의 전통적인 다실은 다도를 지금까지 일상적인 생활 문화 속에 자리잡게 했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성수철학원을 입력하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일시불은 135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카드결제 가능함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열목어 서식지.


주목.


노루삼.


정암사 수마노탑.


멧팔랑나비.


쥐오줌풀.

폐광서 쏟아지는 붉은 빛 폐갱수 수질 오염 주범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79) 태백산 정암사


산작약.

그동안 사찰숲을 찾아다니면서 새삼 느낀 것은 옛 수행자들이 나무와 숲에 대해 깊은 이해와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삼국시대부터 여러 나라를 드나들면서 은행나무를 비롯하여 배롱나무, 파초, 불두화, 차나무 등 우리 풍토에 맞는 나무들을 들여와 숲의 다양성을 이루어놓았다.

옛 수행자들의 숲사랑 흔적은 현존하는 노거수의 삽목설화(揷木說話)에도 남아있다. 정선 정암사의 주목 설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삽목설화로, 신라 자장율사가 짚고 다니다가 꽂아두었다고 전한다.

정암사는 자장율사가 말년에 창건한 마지막 적멸보궁이다. <삼국유사>의 창건설화에 따르면 율사가 갈반지에서 문수보살을 만나지 못하자 큰 구렁이가 나무 밑에 똬리를 틀고 있는 자리에 석남원(오늘의 정암사)을 짓고 문수보살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남루한 거사로 변장한 문수보살이 칡 삼태기에 죽은 강아지를 메고 찾아왔으나 자장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자, 문수보살이 "아상(我相)을 가진 자가 어찌 나를 볼 수 있겠는가"하고 사라져버렸다. 뒤늦게 자초지종을 듣고 뒤쫓아 갔으나 끝내 문수보살을 만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자진하고 말았다.

영월을 지나 사북 고한으로 들어서면 정암사 앞을 지나온 지장천(地藏川)과 만난다. 지장천은 예전에 열목어와 어름치가 오르내리던 맑고 찬 하천이었으나, 1970년대에 이 지역에 대규모 탄광개발이 진행되면서 순식간에 탁류가 되고 말았다.

자장율사가 문수보살과 만나기로 했던 갈반지(葛蟠地=갈래) 삼거리를 지나 산모롱이를 돌아서면 오른쪽 산 중턱에 공룡 같은 삼척탄좌 폐광이 가로 막는다. 이 폐광에서 아무런 정화과정 없이 하루에 2000톤씩 붉은 폐갱수가 쏟아져 나온다.

정선군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지장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화한다고 하지만, 폐갱수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외형만 자연형으로 복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삼척탄좌를 지나면 지장천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물이 갑자기 맑아진다. 돌과 바위들도 원래의 희멀건 색깔을 회복하고 있다. 상류 쪽에 동원탄좌에서 붉은 폐갱수가 나오고 있지만, 3킬로미터를 내려오는 동안 크고 작은 골짝물이 유입되면서 희석되었을 뿐이다.

지장천 자갈바닥에 나도냉이들이 군락을 이루며 노란꽃을 피우고 있다. 삼척탄좌 아래쪽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 산제비나비와 멧팔랑나비도 눈에 띈다.

함백산은 태백산과 이웃해 있지만, 엄연히 다른 산이다. 조선 중기에 나온 <산경표>에도 태백산 위쪽에 함백산[大朴山]이 따로 있다. 다른 적멸보궁이 그렇듯이 정암사도 함백산 첩첩산중에 자리하고 있어서 형국이 좁다. 사방을 막은 산들도 경사가 만만찮아 대찰이 들어설 자리는 애당초 아니다.

정암사는 은대봉 남서사면과 중함백 북서사면이 만들어낸 계곡에 자리하고 있다. 계곡에 따로 가진 이름이 없는 듯해서 '정암골'이라고 이름 붙여보았다. 이 정암골 계류가 정암사의 불-보살 공간을 상징적으로 양분하고 있다. 계류 오른쪽으로는 적멸보궁과 수마노탑이 자리하는 부처님의 공간이며, 왼쪽으로는 관음전과 섬성각 등이 있는 보살의 공간이다. 엄밀히 나누면 보궁과 탑은 중함백 줄기이고, 보살공간은 은대봉 줄기이다.

적멸보궁 구역으로 건너가는 극락교 아래로 정암골 계류가 흐르고 있다. 이 계류 일대가 천연기념물 제73호인 열목어 서식지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두 뼘 쯤 되는 열목어가 눈에 띄었으나, 루사와 매미 태풍 때 큰물에 떠내려가고 지금은 겨우 반 뼘 되는 작은 것들만 대여섯마리가 갈겨니와 어울려 놀고 있다.


삼척탄좌 폐광유출수로 붉게 물든 지장천

극락교 아래 계류는 1급수 냉수어종 열목어 서식지
보궁 처마 밑 산작약 적멸보궁에 어울리는 꽃공양

열목어는 연어과에 속하는 1급수 냉수어종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특정보호어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암사가 열목어 남방한계지이다.

극락교를 건너면 주목을 만난다. 율사의 지팡이였다는 전설을 근거로 하면 수령이 1천5백년이나 된다. 전설에 걸맞게 원래의 나무는 죽어서 외피만 남아있고, 그 속에서 나무가 새로 자라나 풍화된 외피를 뚫고 나뭇가지로 기지개 펴듯 양팔을 벌리고 있다. 더디 자라는 주목의 성품을 고려하면 새 나무라 해도 수령이 수 백 년은 되었음직하다.

적멸보궁의 입지는 정암골과 지장천을 쌍계(雙溪)로 두고 있다. 옛 건축양식을 보전하고 있는 고색창연한 적멸보궁은 단청이 퇴색되어 마치 백골집 같다. 보궁 일곽에는 율사의 주목 외에 노거수급의 전나무, 달피나무, 신갈나무 등이 있다. 개회나무도 담장가에 서 있다.

보궁 처마 아래 산작약이 꽃을 피웠다. 산작약은 함백산 같은 깊은 산에서나 볼 수 있는 초본이다. 70센티 안팎의 키에 잎이 어긋나고, 잎자루가 긴 것은 작약과 비슷하다. 붉은 줄기 끝에 꽃이 하나씩 피는데, 반쯤 벌어진 꽃은 천하지 않은 요염을 풍긴다.

사찰의 식생조경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울림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산작약은 적멸보궁에 딱 어울리는 꽃공양이다. 하지만, 마당에 깔아놓은 외래종 꽃잔디는 적멸보궁의 품격을 여지없이 떨어뜨리고 있다.

다시 극락교를 건너면 돌배나무 한 그루가 담장가에 서서 신부의 부케보다 더 눈부신 꽃들을 피우고 있다. 주위를 돌아보니 노린재나무, 귀룽나무, 병꽃나무들도 꽃을 피워 화답하고 있다.

다리 건너 수마노탑 가는 길은 절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기운이 있다. 눈맛이 좋은 전나무와 소나무와 잣나무들이 탑을 찾는 이들을 위해 사열하고 있다. 탑으로 오르는 지그재그 돌계단길 주변으로 박달나무를 비롯해 고로쇠나무, 신갈나무, 단풍나무, 산철쭉, 노박덩굴, 국수나무 등이 보인다.

수마노탑은 율사가 당나라에서 문수대성으로부터 불정골 사리를 얻어와 봉안한 탑으로, 화강암 지대석 위에 9미터 높이로 세운 모전석탑이다. 전체 탑신을 이루고 있는 석재는 마노석이 아니라 회록색을 띤 석회암이다. 석회암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물에 의해 화학적 용해를 잘 일으키는데, 탑신과 지대석에 뿌옇게 흘러내린 흔적이 석회암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탑을 내려오면 정암사의 상수원 골짜기 쪽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사립문이 나 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갖가지 초본들이 때마침 꽃을 피우고 있다. 깊은 산간에서나 볼 수 있는 노루삼을 비롯해 쥐오줌풀, 원추리, 미나리냉이, 산괴불주머니, 여로, 양지꽃, 민들레, 고비 등이 보인다. 계류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산자락에 금낭화, 얼레지, 중의무릇, 꿩의바람꽃, 처녀치마, 풀솜대, 구슬붕이, 발깨덩굴, 동의나물, 연령초, 홀아비꽃대 등이 자라고 있다.

노루삼은 숲그늘을 좋아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정암사 같은 산간 사찰에서나 볼 수 있다. 곧게 선 줄기에 톱니 달린 잎은 어긋나게 달린다. 5~6월이면 하얀 꽃이 줄기 끝에 피는데, 여러 개의 실 모양을 한 것은 수술이며, 암술을 가운데 하나 밖에 없다. 정암사의 지표종 초본으로 삼을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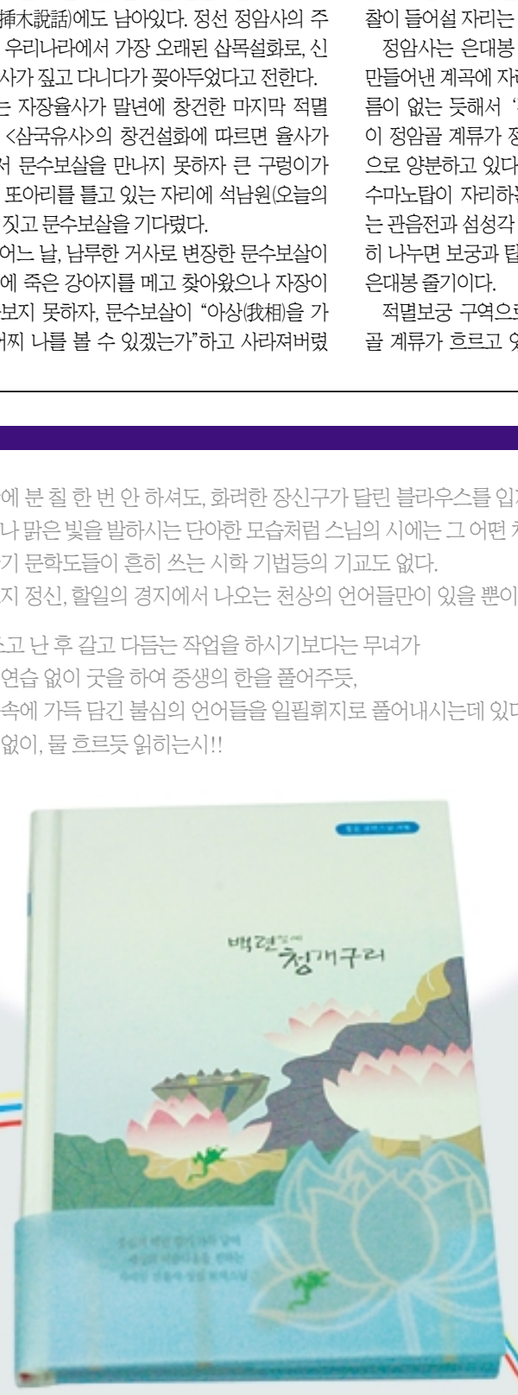
계류 주변에 쪽버들이 보인다. 쪽버들은 한국 원산으로, 도감에는 함백산보다 북쪽인 계방산 이북 산지의 계곡 주변에 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다. 높이는 20미터까지 자라고, 나뭇껍질은 회갈색이며 세로로 갈라진다. 성장 속도가 빠른 속성수이다.

경내를 돌아보고 일주문 밖으로 나오면 지장천 가에 쌓은 석축이 아름답다. 만항재로 오르는 지방도가 구렁이처럼 구비져 있다. 만항재는 해발 1341미터로 포장도로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개로 알려져 있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얼굴에 분 칠 한 번 안 하셔도, 화려한 장신구가 달린 블라우스를 입지 않으셔도,
언제나 맑은 빛을 발하시는 단아한 모습처럼 스님의 시에는 그 어떤 치장도 보이지 않는다.
습작기 문학도들이 흔히 쓰는 시학 기법등의 기교도 없다.
오로지 정신, 할일의 경지에서 나오는 천상의 언어들만이 있을 뿐이다.

다 쓰고 난 후 갈고 다듬는 작업을 하시기보다는 무녀가
예행연습 없이 굿을 하여 중생의 한을 풀어주듯,
가슴속에 가득 담긴 불심의 언어들을 일필휘지로 풀어내시는데 있다,
막힘없이, 물 흐르듯 읽히는시!!



백련잎에 청개구리

정심 보덕스님 詩集

천정무구의 부처님의 귀한 법문(백련)을
경청할때는 부처가 되었다가 돌아서면 중생되는
불자의 마음 자리(청개구리)를 시로 표현한
보덕스님의 명상시집.



물질만능주의에 찌들고, 지쳐가는 모든 중생의 마음의 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집을 꾸미게 되었다는 보덕스님, 지리산 함양에 위치한 견불사에 오늘도 한결같이 오가는 불자들에게 변함없는 메세지를 전한다.

정심보덕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본 / 119쪽 / 값 10,000원

판매처 055)962-3931 / Fax 055)962-3920 지리산 견불사(실상선원)



대행스님

우리 마음 밖에서는 내 자성불을 찾을 수가 없어!

어저께도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물질을 세우고, 내 몸뚱이라고 세우고, 말을 세우고, 이름을 세우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 참마음의 전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참마음의 전달이 속속히 될 수만 있다면 참으로 이렇게 좋은 법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법이 없건만 '어쩌면 이렇게 좋은 법을 모를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어저께 잠깐 일체 만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봤습니다. 모든 무정물이나 생물이나 또는 날짐승들이나 낮은 동물들은 다, 일 년에 지나가는 모든 것을 알고 생활을 하고, 또는 어떠한 무리가 닥쳐오는 것을 알고 지내고 있고, 기상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고, 갖가지로 모두 알고 지내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자유스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원인은, 바로 몸뚱이와 말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착을 떼버리지 못해서 일이 벌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떼버리라고 해서 쉽게 떼버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밖에서는 절대로 내 자성불을 찾을 수가 없으며, 자성불을 찾지 못한다면 일체 만물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전달을 못하고 또 일체 만물의 마음을 전달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는 데 얼마나 복잡다단하고 괴롭습니까? 한 가정에서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체 만물과 더불어 같이 응용하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때에 따라서 내 생각의 범위 내에서 내 생각만 해서 남 생각을 안 하고 남의 속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대로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또 내 생각의 차원에 따라서 옳다고 주장하고, 또 내가 아니면 이런 건 못한다고 하는 자만심, 이런 것 때문에 그르치는 겁니다, 모든 게. 벌레 하나도 허투루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운문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어느 날 대중을 모아놓고 "이 세상에 모든 게 왈가왈부하는데" 다시 말하면 '광활한데' 하는 소립니다. 그러니깐 복잡다단하다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종이 울리니 어째서 너희들은 칠조가사를 입느냐고 하셨답니다. 종소리를 듣고 어째 칠조가사를 입느냐는, 뭣 때문에 그 칠조가사를 입느냐 이런 말이죠. 거기에는 참 심중 깊은 의미가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대중들은 제각기 달리 들은 겁니다. 똑같이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심중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한마디 간단하게 하셨건만 그건 말씀이 아닌 말씀이겠지요.

가사에는 칠조가사, 구조가사, 오조가사가 있는데 최초로 가사를 두를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한 폭이면 한 폭, 두 폭이면 두 폭, 한 오락지면 한 오락지 이렇게 시주를 한 거니까, 오조는 조그만 오락지들 모아서 한 거고, 칠 폭을 얻으면 칠조로 하고 또 구 폭을 얻으면 구조로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중 깊이 들었겠죠. 우리가 그 뜻을 한번 음미해 본다면 대답을 가벼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예전에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또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듣는 마음이나 대답하는 마음이나, 마음과 마음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말로 전달을 한



그림 · 최주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전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 마음 밖에서는 부처를 찾을 수가 없거니와 마음 밖에서 나를 어떻게 찾으며, 마음 밖에서 어떻게 부처님의 배짱을 알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수천수만의 조사들의 그 배짱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씀 한마디, 의미 깊은 말씀 한마디를 내던졌건만 그것을 모른다면 내 소견만 소견이라고 하지, 남의 소견을 모르니까 그거는 바로 귀머거리와 똑같은 얘기죠.

예전에 내가 이런 말을 했죠? 어느 스님이 탁발을 하러 가서, 보리쌀 뜨물 한 그릇을, 가난한 집에서 바리때에 담아주는 거를 먹고서 너무 가엾어서 나무 한 짐을 해다 주러 갔노라고요. 나무 한 짐을 잔뜩 해가지고 내려오니까 은사 즉, 산 부처가 있다 하는 소리가 "이놈아, 어쩌면 그렇게 좁으냐?" 이거죠. 너는 어째 그렇게 좁으냐? 너의 몸뚱이를 등을 받쳐 놓는 등대라 한다면 네 등잔은 마음이니라. 그런데 마음으로 말하면 거기엔 또 기름도 있어야 하고 심지도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심지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냥으로 불을 당기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값에 못 가. 무주상 보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무를 한 짐 해 줘봤자야 한 번 태워버리면 그뿐일 것을, 그렇게 마음이 옹졸해서야 나무 한 짐 한 본의가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작대기로 정강이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나뭇짐째 그냥 데굴데굴 굴러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자 거기서 '아차!' 하고선 그 도리를 깨쳤다 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마디 들으면 가정에서나 도량에서나 자기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고, 자기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남의 차원에서는 좀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벌어지는 거죠. 내가 좀 더 그 도리를 이해를 하고 그 쪽 방면으로 한번 서보는, 잘못됐든지 잘됐든지 내가 서보는 그런 마음이 돼야 하고 그 마음이 됐다면 남들과 서로 마음과 마음이 전달을 하게 되는 자비심이 생겨서 가정도 조화를 이루고 또 생활 속에서 조화를 이루죠.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부부가 만나서 사는 데도 간단하게 생각이 되지마는 사람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가다 보면 그것이 너무도 복잡하고 다단합니다.

그러고도 생활에 의해서, 자기 인연에 의해서 천차만별로 자기한테 주어진 대로 생활을 하게 돼 있죠. 장사꾼은 장사를 하고 정치인이면 정치를 하고 말입니다, 뭐든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복잡다단하게, 내 몸도 복잡다단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폐허가 되면 또 한쪽이, 즉 말하자면 공장장이 폐업을 하고 파업을 일으킨다면 몸 전체가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도 복잡다단하고 모든 생명들이 내 몸 안에 형성이 돼서 한 사람의 선장으로서 마음을 먹게 돼 있으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다가 가정도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사회도 복잡다단합니다. 세계는 물론이거니와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전달한다, 마음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뜻은 우리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부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죠. 여섯 가지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를 비유를 한다면 등, 등대, 기름, 심지, 성냥, 사람이 움죽거려야 켭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가 다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너는 그것을 뭣 때문에 먹느냐?'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칠조를 뭣 때문에 입느냐? 종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너는 뭣 때문에 칠조를 입느냐?' 이런 것도 '밥을 다 해놓고 먹을 걸 차려놓고 너는 뭣 때문에 그걸 먹느냐?' 이런 거와 똑같은 문제죠. 너는 뭣 때문에 사느냐? 이런 것도 똑같은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 하나로 인해서, 이 말은 참 심사숙고하고 들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체가 없으면서 듣고 있고, 나도 체가 없는 마음이 지금 움죽거려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듣는 마음과 하는 마음이 둘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으니 마음 안에서 일체 만법의 활용을,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 주어진 데에 따라서, 자기 차원에 따라서 말입니다. 지금은 예전과 같이 등잔과 등대가 있는 게 아니고 코드만 가지면 되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발전이 됐다는 얘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여섯 가지 방편을 썼지마는 지금은 여섯 가지가 한 가지가 될 수 있고 한 가지가 여섯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섯 가지만 여섯 가지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한생각에, 코드 하나에 끼웠다 뺐다 할 수만 있다면 안에서 끼고 바깥에서 끼고 할 수 있다면, 안에서 끼면 바깥에서 벌써 환하게 비치는 거 아닙니까? 가설은 본래 돼 있는 거고. 우리 인간이 살아 있다 하면 벌써 이 세상 가설은 다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마음과 마음을 전달해서 즉, 끊임없는 예부터 지금 여기 나오기까지, 마음을 전달해서 이날까지 나온 것이지 마음을 전달해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예부터' 하는 소리는 억겁을 거슬러 올라가서 얘긴데, 그때서부터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고 마음을 계발하고 마음의 계발이 됨으로써 진화가 되고, 진화가 됨으로써 몸이 바뀌지고 바뀌짐으로써 옮겨놓고, 옮겨놓음으로써 우리는 예까지 온 것인데, 지금 옮겨진 몸만 몸인 줄 알고 있죠. 어저께 굼벵인 줄 모르고 오늘 매미인 줄만 아는 그러한 속좁은 마음이죠. 과거심도 현재심도 미래심도 한데 뭉쳐서, 일심(一心)도 고정된 게 없다는 걸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생수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자에는 전자대로 끊어지지 않고 예부터 오는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이 마음을 '예부터' 했단 말입니다. 옛 자리나 지금 자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돼가지고 일체 만물의 선장인 부처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왜 그렇게 폭이 넓지 못하고, 팔이 넓지 못하고 마음이 넓지 못해서 우주의 근본과 일체 만물의 근본을 한마음에 넣고 굴리지 못합니까? 물론 새들도 재잘거리고 입으로만 말을 하지, 도대체 마음으로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 말소리를 들을 수는 있죠. 그러나 듣는 것도 도가 아니라고 한 것은, 다섯 가지 오신통(五神通)이 도가 아니라고 한 것은, 듣고 보고 해도 내가 이것을 옮겨놓을 줄 모르고 자유자재 못한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보기만 하면 뭘 하고 듣기만 하면 뭘 합니까?

만약에 백 명이든 십만 명이든 딱 마주쳤을 때, 즉 말하자면 내 앞에 딱 다가왔을 때는 내가 급하니까 그것을 옮겨놓을 수밖에는 없는 거, 즉 말하자면 어떠한 폭풍이 왔을 때 '폭풍을 이쪽으로 조금 옮겨놓고 분배를 하면 여기도 무너지지 않고, 저기도 무너지지 않을 것을….' 할 때, 이것은 자기 자성의 근본적인 자비요, 바로 자비의 원력입니다. 무너지면 살려고 하기 이전에 내 몸뚱이도 그 몸뚱이도 모두가 다 중생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내 한마음이 그렇게 넓은 자비 원력이 있다면 폭풍이 올 것을 흩어지게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수백 명에 달하는 인명이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무너지는 걸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만이 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바로 잘못됐다 이겁니다. 잘못들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건 왜? 가는 것 잡지 말고 오는 것 막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살면서도 내 앞에 닥치는 거 남 일 보듯 그냥 돌아설 겁니까? 닥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스스로 나는 겁니다. '야, 이거 참 저녁거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은 스스로 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라 해서 하고 말라 해서 마는 게 아닙니

☞22면으로 계속

봉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축



불법 佛法은 의학이다

송담淞潭 지음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조실이시며
동국대학교 불교 역경원장이시고 (生佛)이신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 모두가(인간들에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와 같다고(찬탄 하시였다)

신국판 | 319쪽 | 값10,000원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 문의 – 법화사 | 02)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經典專門講座

한국평생대학 경전학부에서는 불교인구의 저변 확대와 자질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경전 전문강좌를 열고 있으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1. 모집시기 : 6월 · 12월 (지방 교육원에서 접수)
2. 수강자격 : 경전 가르침에 따라 수행 하실 분
3. 강좌과목 : ● 법화경 (불교 최고의 경전)
● 황제내경 (중국 고대의학 원전)
● 수행치유법 (심신수행, 생활의학)
4. 강좌일시 :
대 구 ▷ ① 화요일 오후 2시 – 4시 (평일반)
② 토요일 오후 2시 – 4시 (주말반)
부 산 ▷ ① 목요일 오후 2시 – 4시 (오후반)
② 목요일 저녁 7시 – 9시 (저녁반)
5. 강좌장소 :
대 구 ▷ 동대구역 옆 동대구 빌딩 3층
부 산 ▷ 부산역 옆 삼진빌딩 2층
6. 기타특전 :
● 수학증서 수여 (1년 단위)
● 부부함께 등록시 한명은 회비 면제
● 군.경.소방.교정직 근무자 회비 50% 할인
7. 문의전화 : 053)952-8711 / 017-501-8711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276-25번지

교육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韓國平生大學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다 놔버리고 오로지 자기 주인공에 맡겨 놓아야!

☞21면에서 계속

다. 스스로 나기 때문에 그걸 마다하지 않고 피해서 달아나가지 않습니다. 가정이 다 굶어죽어도 내가 귀찮다고 '에잇, 나나 먹으면 됐지.' 그러고 그냥 달아나가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마음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문제를 놓고 볼 때 날아다니는 새도, '음매 음매' 하고 우는 소도 심중 깊이 마음으로서 말을 했다면 그건 말이 아닌 마음입니다. 마음을 전달한 겁니다. 아마 운문 스님도 마음을 전달해서 말을 했는데 하나도 듣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걸 한 사람이라도 들었다면 정말이지 이것은 마음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보배를, 우리가 싱그럽게 공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는 언제나 나를 세우지 말고 남의 참견 하지 말고 주변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남을 탓을 하지 말고. '남이 이렇게 해서 이렇다.' 이러지 마세요. 남의 탓이 절대 없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놨을 때,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놨을 때는 스스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스스로 돌아갑니다. 완화되고 그것이 아주 스무드하게 돌아가는데, 말로 이게 틀리다 저게 틀리다, 이 사람이 틀리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이런다면 공부하는 거는 틀려버렸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만 벌어져가지고 싸움만 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부하는 데 심중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러한 관습적인 습을 몽땅 떼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끝으로 얘기해드릴 것은 우리는 지금 마음의 근본을 가지고 있으니 주변을 둘로 보지도 마시고, 원망하지도 마시고 모든 것을 나로 보세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말하는 거는 깨달은 대로의 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자비다, 이런 거 말입니다. 왜? 그건 무명을 치고 옷만 벗겼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욕이 아니라 자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답답하면 욕을 한마디 해놓고선 그 사람 마음의 근본을 건지려고 무척 애를 쓰는 그런 자비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런데 남의 속을 하나도 모르면서 자기 생각대로 막 해버리는 그런 습이, 여러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때는 그 습관이 나온다고 봅니다. 다른 때는 아무 일도 없다가도 급작스럽게 닥쳤을 때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닥칠 때에 한번 찔러보면 영락없이 예전의 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나 좋은 법이 돼서 한번, 어저께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일체 만법에 의해서 마음의 보배가 쓰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코드라면 큰 거를 쓰려면 큰 코드 하나에, 마음을 먹을 때 '나는 모터를 돌리겠다' 하고 코드를 꽂으면 모터가 돌아지고, '난 냄비에 찌개를 끓이겠다' 하고 코드를 꽂으면 찌개가 끓여지는 것이 바로 보배입니다. 이 세상에 우주의 섭리나 이 세계의 섭리나 나라의 섭리나 가정의 섭리나 복잡한 몸의 섭리나 모두 똑같이 행할 수 있는 그 자력이 여러분한테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여하니 부처니라' 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색에 끄달리지, 욕심에 끄달리지, 말에 끄달리지, 나에 끄달리지 모두 끄달리다 보니깐 아예 그냥 철통같이 막힌 겁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의해서 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용을 먼저 하는 것은 사법이고 정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법이든 사법이든 어떤 거를 막론하고 다 놔버려야 됩니다. 놔버리고서 자기가 한생각을, 한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냥 무심히 생각하면서 무심히 밥 먹고 똥 누고 잠자고 편리하게 살아나가듯이 큰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스스로의 자기 한생각에 좋게 돌아올 수 있는,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자비한 마음이 있걸랑은 내 안에다가 굴려놓으십시오!"**

그저 오다 가다가도 한생각 좋게 탁 내던질 때도 있고, 오다 가다가도 한생각을 좋게 내주기 위해서 한번 찔러볼 수도 있고, 오다 가다가도 한번 말을 푹 찔러서 남의 부아를 훌렁 뒤집어놨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어땠을까, 하는 것도 한 번 해봄으로써 거기에선 한마음의 도리에 큰 공덕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속이 뒤집어지지 않으면서도 속이 뒤집어지게 남한테 말을 해주는 거는 그것도 자비다 이겁니다. 그 왜? 모르는 사람이 뒤집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악으로 돌아가지만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이 속을 뒤집어놓는 거는 그건, 즉 말하자면 그 사람의 뜻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비입니다.

누가 나에게 "저 사람은 이렇게도 굴러가고 저렇게도 굴러가고 두루뭉수리 같아. 뭐 끊고 맺는 게 없어." 이러고 욕을 한다 해도 나는 그걸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고 또는 저 사람은 못났다 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수시로 이런 말 하죠. 부처님의 뜻이란 개를 건지려면 개가 되고, 벌레를 건지려면 벌레로 들어가야 하고, 부처 자리에 같이 앉아있으려면 부처 자리에 같이 하고, 보살이 되려면 한 발, 한 계단 내려딛고서 보살이 돼야 하고, 여러분 집에 가려면 여러분이 나하고 동등해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뭣이 잘나고 뭣이 부처고 뭣이 중생이고 그런 거 다 모릅니다.

엊그저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미국에서 어떤 아이가 학교를 3학년까지 다니다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정신이 이상해져서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했으니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하고요. 그 최씨는 미국에서 살면서도 항상 편지를 하면서 자기네 가정을 지켜나가고 공부를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전화를 받았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모든 데에 끄달리지 않고 세상의 일체 만법을 마음대로 응용할 수 있는 보배가 바로 각자에게 있다는 걸 실감하고 알 때 비로소 "그거, 그래요!", "그래요" 하고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거기 갈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전달해서 거기 받는 사람, 거기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이쪽에서 대답하는 사람이 벌써 동일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걱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안달복달할 필요도 없잖습니까? 순간 좋나 아닙니까?

그런데 3일 만에 300불을 보내면서 하는 소리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거를 열다섯 개를 그려놨어요. 그건 왜 그랬느냐? 그리고 그림 위에다가 한마디 '버리게 된 자식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럼 도대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고받는다 하는 것이죠.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실감하지 못하고 그저 남 탓을 하느라고 볼 일 못 보는 거야. '공부했다는 사람이 용으로 들어가? 공부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해?' 하고 말입니다. 도대체 남의 탓을 해서 뭘 합니까? 남이 이렇게 가든지 저렇게 가든지 무슨 상관 있습니까?

천칠백 공안이 다 문이야. 문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문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목적지는 한 목적지인데도 문이 그렇게 많으니 자기 차원대로 다가는 거라! 주판을 놓을 때 십 원을 놓고 만 원 놓는 걸 알았든지, 만 원 놓고 만 원 놓는 걸 알았든지, 백 원을 놓고 만 원 놓는 걸 알았든지 십억 놓는 걸 알았든지, 그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지금 용을 하는 것이, 그대로 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용이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고, 불법이 따로 있고 부처님 법이 따로 있고 깨우침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대로 지금 '깨우침 법' 하는 것은 안으로 굴려서 언제나 무겁게 원자력 능력을 닥치는 대로 받아서 쓰는 것뿐이지, 우정 찾지 않는 것을 일부러 말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아니까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은 언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 탓 안 한다. 남을 원망 안 한다. 남을 증오 안 한다. 남의 말에 끄달려서 돌아가지 않는다. 남의 참견을 안 한다. 모든 것은 안으로 굴린다. 참견을 안 하되 참견을 할 수 있는 거는, 내 앞에 닥친 참견은 해야지요. 이 도량에서도 만약에 뭐가 잘못 돌아간다 이럴 때는 자기 생각에, 주인공에 맡겨놓고 돌아가게 해야지, 이걸 말로 발설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런다면 일이 하나도 해결이 안돼요. 오히려 바깥으로 더 커지죠. 이런 건 다 놔버리고 자기한테만 오로지, 자기 주인공한테만 맡겨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리를 들었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걸 봤고,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에 거슬린 거지 내가 없이 어떻게 거슬립니까?

그런 거를 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끝없는 예부터 우리가 가지고 살아온 습을 녹일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항복을 받을 수 있으며, 또 항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항복을 받고 내가 항복을 하는 건데, 항복을 받는 사람도 나요 항복을 하는 사람도 나다 이겁니다. 육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삼십이상(三十二相)이 구족(具足)하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대로 산 부처다 하는 겁니다. 산 보살이다, 산 법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법이다, 사법이다 하기 이전에 그걸 다 놔버리고, 못났든 잘났든 문이 아니든 문이든 한번 엎드러져보고 돌아가는 거지, 이것이 큰 경험이며 보배를 크게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남의 말로 '팔만대장경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요렇게만 가야겠다.' 이건 모두가 착이야.

예전엔 그렇게 등대가 있고 등잔이 있고, 기름이 있고 심지가 있고 성냥이 있고 손이 있어야 했어.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손도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손이 들어지지 억지로 들어지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책을 본다 하는 것도 '글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마음을 담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요, 글자를 쓸 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쓴 거지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글을 씁니까? 그래서 글을 보지 말고 그 글 속의 백지의 마음을 봐라 이겁니다, 응? 글씨가 나를 보고 내가 글씨를 보지 말라 이겁니다. 그 글씨 속에 있는 거를, 우리는 그대로 글씨 써놓은 대로 이름을 가지고 상징하지 말고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아까 운문 스님이 말씀하신 그 뜻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닥치는 대로 스스로 코드를 꽂고 스스로 코드를 빼고, 우주법계에 스스로 천체 통신력으로 이행해주고, 그대로 통신이 되면 가차 없이 그대로 정돈해주고 책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 도리를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스님은 설법한다고 하면서 그저 부처님의 좋은 말씀은 안 해주시고 만날 저렇게 쓸데없는 말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데서 지금 쓸데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걸 아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죽으면 혼이 얼마 동안 있다가 윤회한다고 하지마는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면 그저 몸 떨어지자마자 다시 새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내 몸 없이도 수만 개가 바로 내 몸이 아님이 없고, 몸 하나가 수만 개의 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전화가 오고, 여기서도 여러분이 해결할 것이 있고 그러는데, 그럼 그 마음이 체가 있어서 어떠한 한계가 있다면 모르지만 체가 없기 때문에 한생각 내면 그냥 그게 내가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병에 걸리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 도리를 이렇게라도 알아서 커버해주는 사람은 쉽습니다. 병이 아무리 위독하다 할지라도 옆에서 아는 사람이 커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쉽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붙들고 애를 쓰면 그만치 더딥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는 거죠.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묘한 것입니다. 묘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에 조금도 애착이 없이 남의 걱정 하기 이전에 나부터 아시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남의 걱정이 있걸랑은 내 마음에다가 맡겨놓으시라는 얘기지 걱정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자비한 마음이 있걸랑은 안에다가 굴려놓으십시오. 거기에 맡겨놓으신다면 오히려 내가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주는 것보다 백곱쟁이 천곱쟁이 아마 좋은 결과를, 씨를 거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면서도 좀 더 사는 데에 괴로움이 없이 사시라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저는 때로는 가다가도 눈물이 나고 오다가도 눈물이 나는데 못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마 마음에서 말입니다, 남은 이 소리를 했는데 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 뜻을 보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울고 있어요. 아버지가 울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 그 생명이 앗아졌는가를 볼 때 너무도 무참해서 그 사람은 비켜놓고 그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일하게 돼가지고 눈물이 흐르는 거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조실부모한 사람들도 많은데, 조실부모했다 하면 고통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볼 때요.

그러니 모든 게 우리 그 마음들은 변치 않고 있으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거든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몸이 없어지면 바로 자식이 그분이지 즉, 과거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마음을 전달해서 나오고 생기고 이렇게 폈다 가라앉았다 하는 이 인생살이가 다 엊그저께가 따로 없고 내일이 따로 없고 오늘이 따로 없는 겁니다. 오늘은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86년 6월 15일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부대중 불자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솔숲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07년 6월23-6월29일 (6박7일)	우 소다나 사야도	20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6박 7일 중 일부기간 참여 가능)
• 시 작 날 - 6월 23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6월 29일 오전 12시
■ 참 가 비 : 15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복장,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 : dhamma53@hanmail.net)

팔정도 수행의 올바른 실천 **서울법기선원**

불교 대학 수강생 모집

불교의 기본교리와 수행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제8기 서울법기선원 불교대학을 개강합니다. 본 불교대학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력이 서린 가르침인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 이르는 법문을 요약하고, 불교계에 존재하는 수행방법을 비교분석하고, 팔정도 수행을 올바르게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 강 :
주간반 : 2007년 6월 12일(화) ~ 8월 14일 (화) 오전 10:00-11:30
야간반 : 2007년 6월 13일(수) ~ 8월 15일 (수) 저녁 7:30 - 9:00

대 상 :
1. 불교를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으신 분
2. 팔정도 수행을 정확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
3. 불교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
4. 불교를 알려드리고 싶은 이웃이나 친지 분

회향 : 2007년 8월 19일 서울정기법회
수강료 : 총 70,000원 (교재비 포함, 학생 50,000원)
접수 및 문의 : 서울법기선원 (02-854-1848)
www.bubkisa.or.kr

바른수행 바른깨침 **법 기 선 원**

모 연 문

귀의삼보 하옵고,
가람수호와 수행과 포교에 정진하시는 큰스님께 옥체 보존하시고 건강하시어 성불하시길 합장 삼배 올리며 기도수행정진으로 불연 깊은 불자님들께 합장 인사 올립니다.
소승은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신도시에서 신흥포교를 시작한지 1년여 되는 보휘이라 하옵니다.
찾아 뵙고 합장 삼배 올리고 말씀드려야 옳은 줄 아오나 모연문으로써 대신함을 대자비심으로 널리 양해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어린이 청소년 포교만 20여년 해오며 정진하다 불모지인 이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문을 닫게 된 포교원 맡아 왔으나 소승의 기도원력이 부족한 것인지 워낙 척박한 황무지이고 한집건너 타종교 일색인 이곳에 불교 어린이집 유치원 하나없고 포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각다 못해 모연문을 올립니다.
그래서 집세와 월 들어가는 공과금 등 운영비 등과 교통사고까지 나서 휴유증으로 병원치료에 힘이 들어 큰스님과 신심깊은 불자여러분께 화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법도량하나 만들기는 힘들어도 없어지기는 쉽습니다.
포교원이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 기도정진으로 전법도량으로 나아갈 수 있게 십시일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작은 냇물이 흘러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 대해를 이루듯이 큰스님 그리고 불자님들께서 조그마한 정성과 마음을 주신다면 열심히 포교 정진하여 전법도생 하겠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공든 탑이 되듯이 큰스님의 가르침과 불자님들의 깊은 신심에 격려를 기다리면서 뜻 깊은 부처님오신날을 보내면서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 2551년 5월 25일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485-16 ☎ 031)998-8700
대한불교조계종 동산포교원 寶輝 合掌

■ 큰스님과 불자님의 원력으로 이곳에도 부처님 자비의 씨앗이 뿌리내리게 해주십시오.
국민은행 248201-04-027171 동산사포교원
농 협 163-01-441644 동산사포교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덛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장개석 군이 모택동 군에 밀려서 대만으로 후퇴를 하였을 때, 많은 군인들이 처음으로 수도라는 것을 보았다 한다.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신기함에 눈이 휘둥그래진 군인들…. 그런데 철물점에 그 수도꼭지가 있더란다.

얼른 그걸 사다가 벽에다 밖고서 틀었더니 물이 안나오는게 아닌가? 그래서 속았다고 그걸 판 철물점에 총격을 가했더란다. 이어령 선생이 작년의 인문대학장단 협의회 발제사에서 해 주신 이야기이다.

우스운 일화지만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은 거의 그렇지 않은가 싶다. 요즈음 학술진흥재단 인문학단장으로 2년간의 파견 업무를 시작하면서 교수로서는 겪지 못하던 많은 일들과 부딪히고 있다. 특히 기초학문을 지원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는 학술진흥재단, 그 가운데서도 또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인문학의 지원을 맡게 되면서 새삼 위에 든 일화를 자주 상기하게 된다.

기초학문, 그 가운데서도 인문학은 수원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수원지로부터 복잡한 처리과정과 배관시설을 거쳐야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수원지와 거기서부터 수도꼭지까지 물을 운반하는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은 소홀하기 마련이다. 자연 우리는 직접 우리에게 편의를 주는 기술과 응용학문에는 환



불자 세상보기

성 태 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 꾸준히

호를 하면서 수원지에 해당하는 인문학 등에는 소홀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만일 수원지가 고갈되거나 오염된다고 생각해 보라. 수도꼭지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요즈음 "인문학의 위기이다", "인문학을 새롭게 진흥해야 한다"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은 그 동안 우리들이 소홀히 했던 수원지를 다시 돌보고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해도 좋은 것이다.

그 수원지를 담당하고 있던 인문학자들 스스로의 반성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만 맡기고 무관심했던 일반 대중들의 관심도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는 반성인 것이다.

문제는 인문학 등의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가 금방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몇 년을 계속 쏟아 부어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학문 성격이 우리의 문제에 바로 효용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인문학의 대표 격인 철학을 이야기할 때, "철학은 빵 굽는 법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말이 꼭 들어갈까?

조급한 사람들은 그래서 인문학의 투자에 대해 금방 회의를 가지게 되고, "여기에 투자하느니 딴 데다 하지"하는 투정을 부리게 된다.

이런 조급함에 대하여 다시 '콩나물 키우기'의 비유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콩나물을 기를 때는 계속 적당하게 물을 주어야 한다. 물론 위에다 부은 물은 거의 다 밑으로 흘러 버린다. 그렇지만 그러는 사이에 콩나물은 크는 것이다.

만약 거의 밑으로 샌다고 물을 아예 안주거나, 밑을 막고 물을 퍼부어보라. 콩나물은 말라 죽거나 썩어 죽는다. 그렇듯 인문학 등의 기초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말고 꾸준히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쁘게 바쁘게, 빨리 빨리라는 말로 형용될 수 있는 현대 사회! 위에 든 일화들이 어찌 꼭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학문 육성에만 해당하는 비유이겠는가?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심스럽게 키워야 할, 미래를 풍요롭게 할 새싹들을 "이걸 언제 키운단 말이야!"하면서 아예 밟아버리는 일은 없는지? 화려한 수사를 곁들인 선정적 구호에 휘말려, 정당한 절차와 수단을 무시하고 무슨 짓을 해도 좋으니 그 결과만을 얻으려는 방식이 만연해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식을 중시하는 마음이요, 그것을 몸에 배도록 익힌 사회 구성원 하나 하나가 아닐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당장의 효용성도 중요하지만 그 효용성을 밑받침하는 중요한 가치들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키워내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불자의 눈

생활 현장도 '안거' 자리다

5월 31일 전국의 선원과 시민선방 등에서 일제히 하안거 결제가 시작됐다. 불자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안거는 불교의 중요한 전통이다. 불교는 수행이라는 직접적인 구도행을 통해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갖춰져 있음'을 증오하는 종교다. 안거는 집중적인 수행 방법이다. 부처님 당시의 기후와 풍토에 따라 형성된 제도라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안거는 여름과 겨울 석 달씩 집단적인 집중수행을 하는 전통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안거가 특정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안거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끼리 운영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사회의 생활 구조상 불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생활의 현장에서 바쁘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안거에 들 기회가 없는 것일까?

안거의 목적은 '한 소식'이다. 부처님께서 새벽별과 눈맞추며 우주의 진리를 깨치신 것처럼 깨침의 소식을 듣기 위해 펄펄 끓는 기름에 발을 담그는 심정으로 정진하여 자성을 내증하는 한 소식을 챙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거는 격식과 형식보다 투철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일상에서 한 순간도 '화두'를 놓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만 있다면 생활 현장에서도 안거의 정신은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생활이 따로 있고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거수일투족, 행주좌와 어묵동정 그 모든 순간이 수행의 찰나다. 선원과 선방에서 뜨거운 열기로 정진하는 수행자들만큼이나 일상에서도 성성적적한 화두일념으로 정진하는 불자들이 늘어난다면 날마다 안거가 이 세상은 머지않아 불국토가 될 것이다.

동국대 쇄신 토론이 먼저다

동국대학교가 학제 개편과 관련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오영교 총장이 취임한 이래 학교발전을 위한 쇄신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학제 개편과 학과 정원 조정 등이 원인이다.

이미 불교대학이 개편과 관련, 학생과 교수 학교 측의 입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바 있다. 불교학의 퇴보를 염려하는 우려 속에서 전과금지, 재학생 전원 장학금 수여, 기숙사 및 사찰생활 의무화, 정원 감축, 사회복지학 복수전공 등을 골자로 개편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어 일반 학과에 대한 조정과 개편을 두고 학생들과 적지 않은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갈등 구조로 빨려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학교측은 충분한 타당성과 절차를 통해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학생들은 합의 과정이 생략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니 염려스럽다.

동국대학은 조계종의 종립대학이라는 태생적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일반 사학과는 달리 불교정신의 구현이라는 목적을 설립의 동기로 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설립목적에 대한 부합여부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쇄신 정책도 학교의 정체성 다지기와 미래지향적인 비전의 모색이라는 명분이 분명한 만큼, 일방통행식의 집행 보다는 보다 깊은 토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짓는 인내가 요구된다.

'종교자유' 칼럼 14. 학교는 교회가 아니다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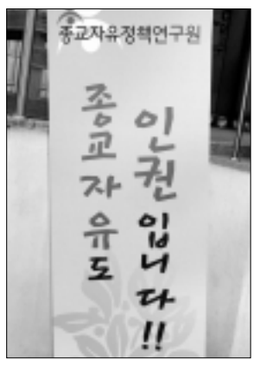
건학이념 위해 종교인권 희생 시켜선 안돼

이번 학기 초 서울 은평구의 예일여중이라는 미션스쿨에 자녀를 보낸 어느 학부모가 학교에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신의 계좌에서 찬송가집 대금을 빼갔다며 하소연해왔다. 학교측은 지금까지 일반교과서처럼 관행적으로 공동구입 해왔으며 무엇이 문제냐는 식의 태도였다고 한다.

신자들만 모이는 교회에서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2/3 이상이 비신자인 학교에서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한지 놀랍기만 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집행이 됐으니 내년부터 시정하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더란다. 종교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학교에 민원을 제출하고 교육청에도 시정명령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인권의식도 부족하고 무원칙 · 무성의한 학교와 교육청에 아이들 교육을 맡기고 있다 생각하니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 말 역시 은평구에 있는 숭실중학교의 한 교사가 학교내의 과도한 종교 강요 분위기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에 시정명령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양심을 어겨가며 순진한 학생들을 특정종교로 몰아가는 게 견디기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이 과정에서 종교과목 단수 개설, 우등상 조건으로 성경과목 성적 우수 등 위헌 소지가 있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캐치프레이즈.

는 일부가 시정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전체 예배, 담임주도의 경건회(조회 · 종례시 성경봉독 · 찬송 · 기도), 종교기관 탐방 등은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강제되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의 선택권이 배제된 채 종교 단체 또는 기관에서나 함직한 강제적인 종교의식과 특정종교 교육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대광고 사건으로 종교 강요가 인권침해인 것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 학생들의 종교인권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국민적 시선이 따가운데도 기독교 학교들이 버티고 있는 근거와 배경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마디로 종교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이다.

그러나 학교의 '건학이념' 실현을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 개인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희생시켜도 좋다는 것은 무지 아니면 억지다.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대등하게 충돌하는 것처럼 내세우는 것도, 두 자유가 같은 차원에서 논할 성질의 것이 못 된다는 점을 애써 감추려는 의도된 대국민 호도에 불과하다.

학생의 신앙(무신앙 포함)의 자유가 선교의 자유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2004년 헌법재판소가 "혐연권(嫌煙權)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므로,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힌 논리와 유사하다. 강 군이 대광학원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재판부도 "학생에게 종교와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이 보장돼야 하고, 종교교육이 허용되는 사립학교라도 (학생들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이 가능하며, 학생 의사에 반해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립학교'라는 명분도, 재정적으로 거의 독립 수준인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평준화 제도가 정착된 지금 무의미해진지 오래다. 현재 사학재단의 중고등학교 지원은 전체 예산 중 평균 1.8% 수준이며 그마저도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나머지는 국고지원과 학생들의 등록금이다.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에 단순히 종교사학이라는 이유로 종교를 강요할 근거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학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평준화가 문제의 핵심일까? 그러나 종교사학들이 국고지원을 전제로 평준화 제도를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 의해 특정종교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야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교육 체제 내에 속하는 한, 사학법인의 건학이념보다 국가의 공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함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짓 모른 체하면서 학생들의 종교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 것(돈)은 삼키고 쓴 것(종교적 중립)은 뱉는', 명분 없이 실리만 챙겨온 이중적인 행위로 떳떳하다 할수 없다. 학생의 종교인권 문제가 이제야 불거진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다.

'선 지원 후 추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준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우선 편중과 미달로 혼란이 예상될 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한 선택이 보장될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만일 본인 스스로 미션스쿨을 택했거나 입학 시 서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교 강요의 명분과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가치관이나 신앙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런 자유까지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의 자유' 개념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회가 아니다. 종교사학의 특정종교 강요에 대해 사회 여론도 3/4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공교육 바로 세우기라는 국민적 권리 차원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과제이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수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공 고

● 지현스님 (60세 정도)
010-4509-5850/055-905-9633

2006년 4월 10일까지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신
불지사 지현스님이 1년간 소식이
없으므로, 2007년 6월 20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경찰
입회하에 주인 임의로
법당을 정리하겠음.

부산 동래구 사직1동 55-28번지
집주인 : 이영찬 051)502-5634



풀 한 포기 다치지 않기를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이 시대를 뼈아프게 그려낸 한 영혼의 영적 오딧세이

눈 푸른 스님의 처절한 삶, 어쩌면 당신은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어두운 무의식속에 감춰진 상처와 고통들 속으로 불법을 등불 삼아 들어가 불굴의 수행과 성찰로 아픔을 치유해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라디오 불교방송 정목스님의 <마음으로 듣는 음악>, 매일저녁 7시 "책 읽어 드리는 시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마스 지음 ,황학구 옮김 / 신국판 /192쪽/8,500원
정신세계사



불교수행입문③ 염불 수행 입문

염불 수행자라면 꼭 한번 읽어야 할 책!

《염불 수행 입문》은 《간화선 입문》과 《절 수행 입문》에 이은 '불교 수행 입문'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이다. 염불은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의례이자 한국 불자들의 대표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염불 수행의 의식과 주의사항, 염불 방법과 역사 전거 등 염불 수행법을 종단 차원에서 정리하였다.《염불 수행 입문》은 염불의 기본부터 실수행까지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어 염불 수행자라면 꼭 한번 읽어야 할 책이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엮음/ 신국판 반양장/232쪽/8,000원
조계종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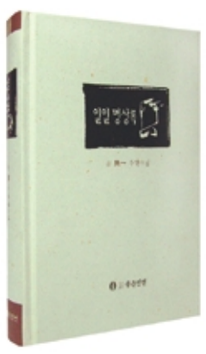


얘들아, 절에 가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최고의 사찰 가이드북

사찰에 들어서자마자 쏟아지는 아이들의 질문에 부모님들 얼굴엔 번뇌가 가득해진다. 사찰마다 안내판이 있지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는 역부족이다.《얘들아, 절에 가자》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 혹은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의 결과물이다.
사찰에서의 기본예절과 사찰 건축물의 의미와 일화 등 불교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있다. 익살스러운 삽화가 곁들여져 쉽게 구성되어 사찰 문화를 제대로 알고 싶은 일반인들이 읽어도 좋다.

홍주연 지음 / 4×6배판 변형 / 160쪽 / 9,000원
조계종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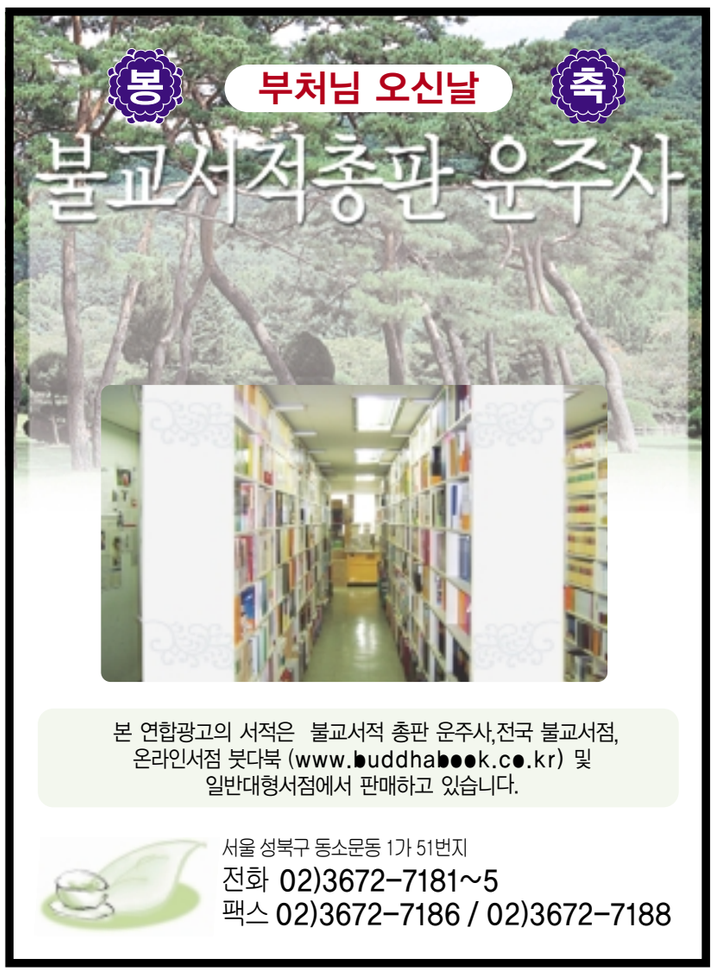
일일명상록

우학스님의 일일명상록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우학스님의 메시지! 하루 한 구절의 글귀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를 탓하지 말라. 거울은 비출 뿐이다.
거울을 잘못 택한 본인 잘못이 더 크다(8월 20일)."

우학스님 글/가로11.5×세로15Cm/ 양장/411쪽/10,000원
도서출판 좋은인연



본 연합광고의 서적은 불교서적 총판 운주사,전국 불교서점, 온라인서점 붓다북 (www.buddhabook.co.kr) 및 일반대형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전화 02)3672-7181~5
팩스 02)3672-7186 / 02)3672-7188



인도전통 요가의 맥 (초급, 중급, 고급)

전통요가의 흐름을 이어갈 한국의 요가 수행자들을 위한 책!!

'요가 비전'에 이어 두번째로 인도 전통 요가를 소개한 실용 입문서. 이 책은 인도 전통 요가의 수련방법들을 담아 정리한 요가의 핵심으로 요가의 역사와 의미, 수행자를 위한 조언과 명상법,
그리고 함께 요가 동작을 따라 하면서 익힐 수 있도록 컬러 자세 사진으로 구성한 것으로 초급, 중급, 상급편을 세트로 묶었다.

진리의 감로를 맛본 사람은 이론이나 교리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다.

배해수 편역/변형 4×6배판/ 각권 164-183쪽내외/값 47,000원
지혜의나무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현대인이 마음에 평화와 위안을 주는 담마난다 스님의 따뜻한 메시지

이 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근심의 여러 가지 형태를 나열하고 그 근본원인을 불교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그 해결방법과 궁극적 행복과 평화를 얻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탈속한 수행자의 세속인의 생활에 대한 예리하면서도 따스한 눈길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스리랑카 출신으로 회교국가인 말레이지아에서 불교를 일으켜 세운 스님이다.

슈리 담마난다 지음, 홍종욱 옮김/ 신국판 / 240쪽 / 값 8,900원
지혜의나무

무문관 그 수행 현장과 숭고한 구도 이야기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한 선승(禪僧)의 무문관(無門關) 수행일기 최초 공개

밥구멍 하나 빼고는 사방에 막힌 방에 오직 화두 하나만 들고 참선하는 무문관 수행,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무문관 생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일기가 공개 – 조선일보

무문관 수행자가 참선 중에 겪은 내면의 체험을 가감없이 기록한 일기체의 글은 유례가 없었다. – 문화일보



김성우 엮음
신국판 304쪽 / 값 12,000원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T. 02) 2198-5151 / 051) 244-1251

산야초로 만드는 효소 발효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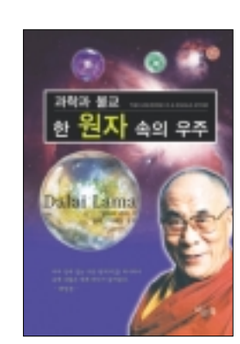
천혜의 자연에서 자라난 산야초 효소 발효액은 산야초를 채취하여 장기간 발효 숙성시킨 농축 원액으로서 다량의 비타민, 미네랄, 효소 및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산야초의 신비한 효능을 그대로 간직한 최고의 자연건강음료이다.
효소발효액은 혈액정화작용, 소화흡수작용, 노폐물배출작용, 항염항균작용, 해독살균작용, 세포재생작용 등이 있어 피로회복, 숙취해소, 갈증해소, 체력증진, 건강개선에 도움을 주고 자연의 맛과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최고급 건강음료라고 할 수 있다.

사륙배판변형 | 올컬러 | 248쪽 | 값 15,000원



약이 되는 산야초 108가지 1 2 3

하남출판사 사륙배판변형 | 올컬러 | 각권 값 15,000원



달라이 라마의 과학과 불교
한 원자 속의 우주

윤리와 인간적 가치에 대해 과학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과학은 지혜와 자비심의 결합으로 이루어 져야

내 바램은 우리의 근본적인 인간가치의 풍요롭고 순수한 정신성(영혼성)을 인간사회의 과학 코스와 기술쪽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요점은, 과학과 정신성이 접근법은 다르지만 인간성의 더 나은 측면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다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과학은, 우리를 가장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동기다 된 과학이다. 불교 용어로 말하자면, 이런 종류의 과학은 자비심에 바탕을 두고 자비심으로 조정된 지혜라고 설명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신성은 우리 내부의 자원을 향한 인간 여정으로서, 가장 깊은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이해하고, 또 가능한 가장 높은 이상에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역시 지혜와 자비심의 결합이다.

달라이 라마 지음, 삼묵 • 이해심 공역/ 신국판/204쪽 /12,000원
하늘북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개정판)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근본불교개론서

붓다의 가르침 중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기록으로 받아들여지는 빠알리 심장에서 발견되는 붓다가 사용한 성실하고 정확한 언어들을 가능한 한 요약해서 직접적으로 간명하게 진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책.

원폴라 라훌라 원저, 퇴현 전재성 역저 / 신국판/233쪽/값 10,000원

위빳사나 수행 28일

위빳사나 수행법을 대중화, 세계화한 마하시 세야도의 수행제자로서,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진 찬메 세야도의 법문, 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직접 배울 수 있다.

찬메 세야도 아신 자나까비왐사 법문, 케마 옮김/신국판/486쪽/값18,000원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진흙이 꽃을 피우네

우리의 삶은 진흙에서 연꽃으로 간다!

석지명 스님의 산문집. 우리의 인생을 '진흙과 연꽃'의 비유로 끄집어내고 있다. 세상이 진흙이기도 하고, 연꽃이기도 하듯, 더럽게 보이는 진흙은 출발점이며, 깨끗하게 보이는 연꽃은 도달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진흙에서 연꽃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 책은 법주사의 주지를 지낸 저자의 세상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묻고 답하는 화법을 통해 우리의 어려운 인생을 쉽게 풀어나간다. 세상의 삶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자 하는 철학자로서 '진흙과 연꽃'의 비유를 통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청정함을 지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석지명 지음/신국판/303쪽/10,000원
해 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모곡 사야도의 12연기 강론

이 책은 모곡 위빠사나 보급회 회장인 우 탄 다잉이 모곡 사야도의 12연기 법문과 도표를 바탕으로 하여 사성제와 연기법을 활성화시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 펴낸 것이다. 모곡 사야도는 이 책에 소개된 12연기 도표를 직접 고안하고 소개하여 우리의 오온 안에서 연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또한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우 탄 다잉 지음, 조영미 옮김, 묘원 주해 / 신국 양장/304쪽/값15,000원

12연기와 위빠사나

우 소바나 사야도의 수행법문

2003년 10월 미얀마의 우 소바나 사야도가 한국에서 10일간 한 법문을 묘원이 상당 부분 보완한 책. 미얀마에서 12연기 법문과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우 소바나 사야도의 12 연기는 아비담다의 대가 레디 사야도와 모곡 사야도로부터 계승된 전통적인 이론과 방법을 기준으로 삼은 가르침이다 .

우 소바나 사야도 법문, 묘원 편주해 / 신국 양장/432쪽/값20,000원

행복한 숲



참 아닌 참의 세계 진영과 찬문

진영과 찬문에 담긴 고승들의 철학세계와 수행 이야기!

주인공의 정신세계에 초점을 맞춰, 사람을 똑같이 그리되 그것은 참이 아니며, 주인공 자체도 허상에 불과하다는 불교인 특유의 초월적 인식과 회화관을 보여주는 진영과, 주인공의 생애와 업적 등을 표현하기 위해 고도의 은유와 비유, 그리고 촌철살인의 경구가 사용된 찬문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집중 분석한 책.
한국불교를 세계적으로 소개할 의도로 본문의 핵심 부분을 영역하여 따로 실었다.

신대현 지음/신국판/316쪽/값 25,000원
도서출판 혜안



고승 84인 설법집
名 설법 名 법문(Ⅰ)

불교신문사 편

이책은 불교신문에 3년간 연재됐던 「설법」원고를 중심으로 엮은 법문집이다.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나 우리들 일상적 삶의 갈등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불교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책의 큰 자랑이다.

84명의 한국불교 대덕스님들이 말씀한 이 책은 설법자료집으로 활용하다.

신국판 100g 미색모조 최고급 /양장본 / 395쪽 /25,000원
弘法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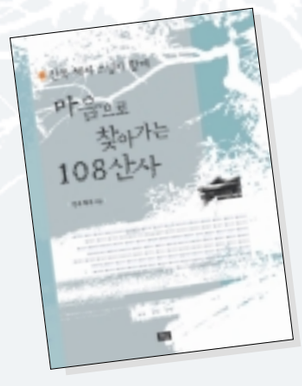
고승 84인 설법집
名 설법 名 법문(Ⅱ)

불교신문사 편

이책은 불교신문에 3년간 연재됐던 「설법」원고를 중심으로 엮은 법문집이다.

한평생 청정한 수행과 중생교화에 헌신한 82명의 큰스님 법어는 불교를 알고져 하는 이는 물론 현대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불자들의 삶을 편안하고 윤택하게 하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

신국판 100g 미색모조 최고급 /양장본 / 382쪽 /25,000원
弘法院



선묵혜자(禪默 慧慈) 스님과 함께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KBS TV〈책을 말하다〉 선정도서!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가슴에 담고
108산사 순례법회 기도회와 함께 떠나십시오.

삼각산 도선사 주지 선묵 혜자스님이 전국의 108개 사찰을 순회하며 산사의 장엄하면서도 예술혼이 깃든 전각, 석조물, 불화, 자연환경과 역사적 숨결이 살아 있는 산사에 얽힌 전설과 설화, 스님들의 일화를 압축된 언어로 펴낸 서사시집!
산사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전해주는 언어, 영혼을 밝혀주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언어로 현대인의 지친 영혼에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불교와 산사를 새롭게 접할 수 있는 필독서!

선묵혜자 지음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 값 20,000원

도서출판 화남 전화 02)3142-4787 / 팩스 02)3142-4784